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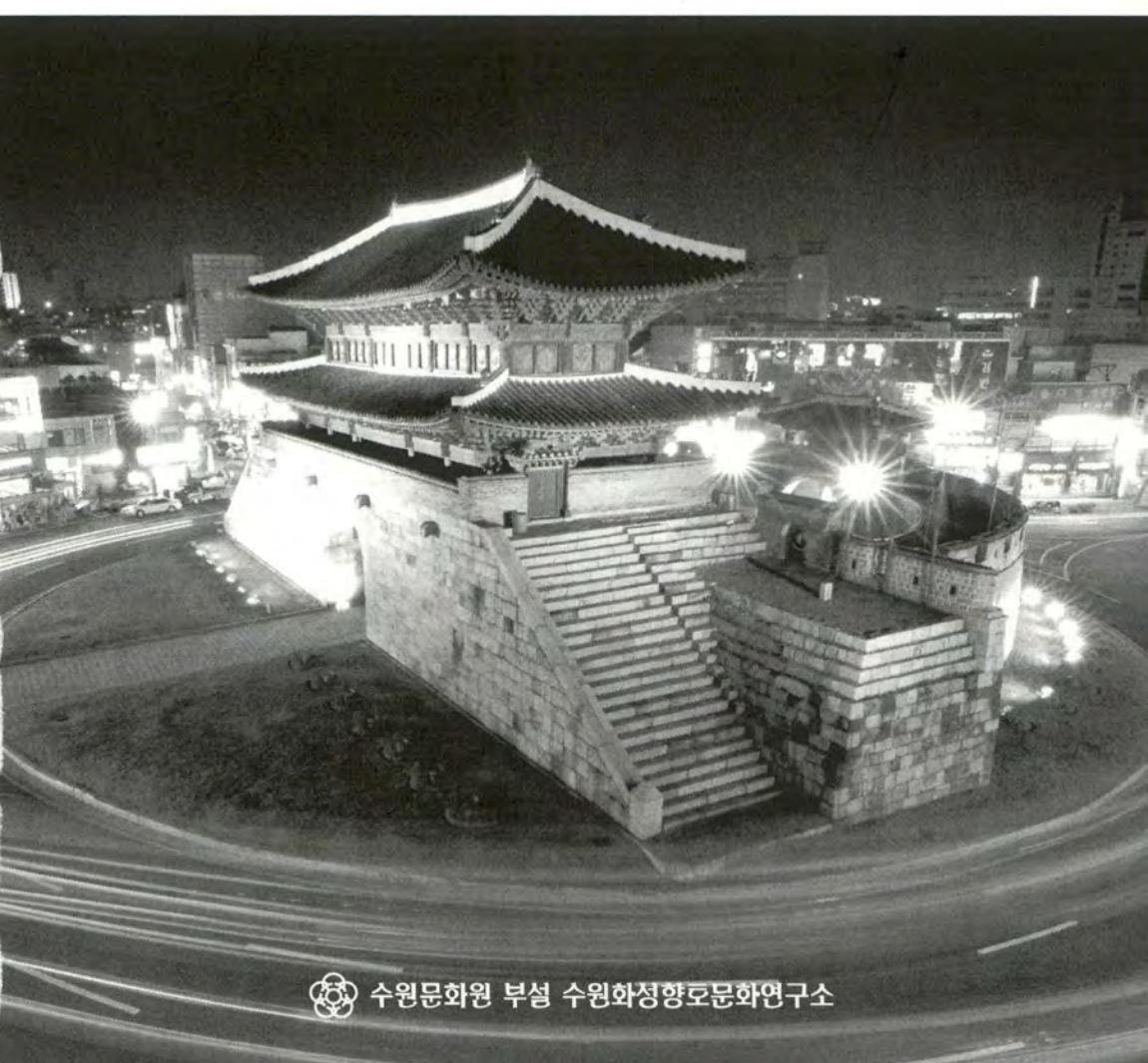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제2호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 발간사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의 행보

수원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수원학연구소를 부설하여 10여 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재조명하는데 이바지해왔습니다. 또한 『수원학연구』 논문집 10권을 발간하여 수원학에 대한 근간을 제시해왔으며, 작년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소 명칭을 넘기고 새롭게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를 출범하였습니다. 제1회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를 12월 10일 거행하여 '심재덕 전 수원시장을 재조명 하다'라는 제목으로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문화 의식과 정치사상, 화장실 문화운동 등에 대하여 발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수원문화원장으로 8년, 수원시장으로 7년, 국회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원의 문화 발전에 남긴 업적과 성과를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7월 1일, 수원지역의 독립운동가인 필동 임면수 선생과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원에서 만주까지 독립운동가 임면수"를 주제로 하여 임면수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검토,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그리고 필동 임면수 선생 추모활동과 관련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필동 임면수의 동상 건립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청 앞 공원에 필동 임면수 선생의 동상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욱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장

또한 수원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유지해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수원대 유풍두례를 보존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수원두례와 관련된 논문을 함께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의 두례농악 전승연구, 수원대유풍두례의 구성 및 판제 연구, 그리고 수원대유풍두례의 미적 특성에 대한 논문을 통해 수원두례의 전통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민속예술단이 수원두례를 통해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 논문집에 수원두례농악 전승연구를 쓰신 김현수 감독께서 지도자상을 수상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원학의 근간을 제시하고,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자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방향을 되돌아보는 수원학에 관한 일반논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리 및 문화 전반에 걸쳐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들을 차례로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가 나아가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축 사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어느덧 곱게 물든 단풍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을미년(乙未年)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인 병신년(丙申年)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아쉬움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집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제2호를 발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원학연구소라는 이름을 넘겨주고, 그동안의 업적을 이어갈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여 수원의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에서 만주까지 독립운동가 임면수”를 주제로 하여 임면수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검토,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그리고 필동 임면수 선생 추모활동과 관련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임면수 선생의 동상 건립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 시청 앞 공원에 임면수 선생의 동상 건립에 기여하여, 선생의 뜻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유지해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수원 고유의 농악인 수원대유평두례를 보존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수원두례와 관련된 논문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민속예술단이 수원두례를 통해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 논문집에 수원두례농악 전승연구를 쓰신 김현수 감독께서 지도자상을 수상하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문화가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가 앞으로 이러한 지역 활동의 지침서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욱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의 연구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는데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5. 12

# 목 차

## 특집논문1 수원에서 만주까지 독립운동가 임면수

- 필동 임면수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재검토 3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23  
박 환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필동 임면수 선생 추모활동에 관하여 49  
염상균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 특집논문2

- 수원지방의 두레농악 전승연구 79  
서한범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수 | 수원민속예술단 감독
- 수원대유평두레 구성 및 판제 연구 99  
양근수 | 남사당놀이 이수자, 광주시립농악단 총감독
- 수원대유평두레의 미적 특징에 관한 일고 143  
이희병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일반논문1

- 수원학이 나아갈 길 167  
양훈도 |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 회 보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191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195

특집논문1

# 수원에서 만주까지 독립운동가 임면수

- 필동 임면수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박 환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필동 임면수 선생 추모활동에 관하여  
염상균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여 백

# 필동 임면수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목 차

1. 머리말
2. 임면수의 가계와 가족관계
3. 수원 상업계의 실력자 임홍수
4. 출생지에 대한 재검토
5. 망명과 환국에 다른 이름 표기 방식의 변화
6. 맺음말

## 초 록

임면수는 수원 상권을 움직인 유력한 상무사 두령이었던 임홍수(林興洙)의 동생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수원 팔부자집의 일원이었다. 이에 성안의 유력한 유지집안 출신으로 전통적인 한문공부를 하다가 근대적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고 근대적 학문을 수용한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즉 1903년 수원 양잠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4월 일어공부를 위하여 사립 화성학교(華城學校)를 졸업하였다. 이후 수원지역 자강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더욱이 국내 자강운동의 한계를 넘어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가장 치열하고 올곧은 독립운동 노선을 걸었던 수원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임면수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이 인정되어 1990년 애족장을 추서받

았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정보란의 임면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관리번호: 180

성명: 임면수, 한자: 林冕洙, 이명: 必東(號), 林勉洙

생년월일: 1874-06-13, 사망년월일: 1930-11-29

본적: 경기도 수원 梅香洞

주소: 滿洲 吉林省 柳河縣 三源堡

운동계열: 만주방면, 심사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柳河縣 三源堡의 독립운동 기지의 경기도 대표로 활동하며 개척사업과 신흥무관학교 개설에 참여, 활동한 공적이 확인됨.

그러나 연구결과 임면수는 매향동 출생이 아니라 북수동 출생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즉 임면수는 북수리 299번지에서 태어나서 결혼 이후 북수리 229번지로 분가하였다.

출생일도 호적이나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1874년 6월 10일(음)로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망일은 1930년 11월 29일(음력)이지만 양력으로 환산하면 1931년 1월 17일이다.

이름의 한자표기는 처음 林勉洙에서, 만주 망명시절의 임필동(林必東)을 거쳐 1922년 감옥에서 출감한 이후 林冕洙로 스스로 고쳐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훈록 등 임면수와 관련한 연구 및 자료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정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북수동의 임면수와 관련한 태어난 집(북수동 283번지, 다세대 건물 우정주택)과 살았던 집(북수동 367번지, 동창당한약방) 등에 대한 표석 설치 등을 통한 명소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수원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한문공부를 하다가 근대적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고 근대적 학문을 수용한 대표적 인물이 필동 임면수이다. 1903년 수원 양잠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4월 일어공부를 위하여 사립 화성학교를 졸업하였고, 화성학교 재학 중이던 190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수원에서 멕시코이민 모집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임면수는 다른 청년 유자들과 함께 지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자강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더욱이 국내 자강운동의 한계를 넘어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가장 치열하고 올곧은 독립운동 노선을 걸었던 수원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길을 걷게 되는 배경과 내용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미 임면수의 독립운동이 인정되어 1990년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정보란의 임면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관리번호: 180

성명: 임면수, 한자: 林冕洙, 이명: 必東(號), 林勉洙

생년월일: 1874-06-13, 사망년월일: 1930-11-29

본적: 경기도 수원 梅香洞

주소: 滿洲 吉林省 柳河縣 三源堡

운동계열: 만주방면, 심사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공적개요: 柳河縣 三源堡의 독립운동 기지의 경기도 대표로 활동하며 개척사업과 신흥무관학교 개설에 참여, 활동한 공적이 확인됨.

현재 지역에서는 필동 임면수 선생의 삶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제출되고 필동 임면수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동상건립 등 현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원대 박환 교수는 임면수의

생애와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힌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sup>1)</sup> 필자는 필동 임면수의 국내활동을 통한 수원지역 자강운동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는 글을 준비하면서 선생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우선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임면수 선생은 매향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인물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표기와 생몰년 및 출생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임면수 선생의 출생지와 생몰년 및 이름 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임면수 선생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기본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 2. 임면수의 가계와 가족관계

현재 임면수의 가계와 관련하여 그 계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임씨라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다. 나주 임씨의 시조 임비(林庇)는 고려 충렬왕을 원나라까지 호종했던 공으로 보좌이등공신(輔佐二等功臣)에 책록되었고, 뒤에 상장군(上將軍)과 충청도도지휘사(忠淸道都指揮使),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에 올랐다. 시조의 9세손 임탁(林卓)이 고려 말에 해남감무(海南監務)를 역임한 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회진(會津)으로 낙향하여 관향을 회진으로 하였다가 뒤에 회진이 나주에 속하게 되면서 나주로 고쳤다고 한다. 나주임씨의 분파는 임탁의 8세손이자 임봉(林鵬)의 네 아들, 즉 임익(林益)의 장수공파, 임복(林復, 1521~1576)의 정자공파, 임진(林晉)의 절도공파, 임몽(林夢)의 첨지공파가 나주임씨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2)</sup> 이 가운데 임진(林晉, 1526~1587)을 파시조로 하는 절도공(節度公派)가 수원 및 평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임면수 가계는 족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임명상(林明相)씨를

1) 박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수원역사문화연구』 3, 수원박물관, 2013 ;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출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04.

2) 임씨한국종친대종회, 『林氏先祖寶鑑- 遺蹟篇』, 1999, 3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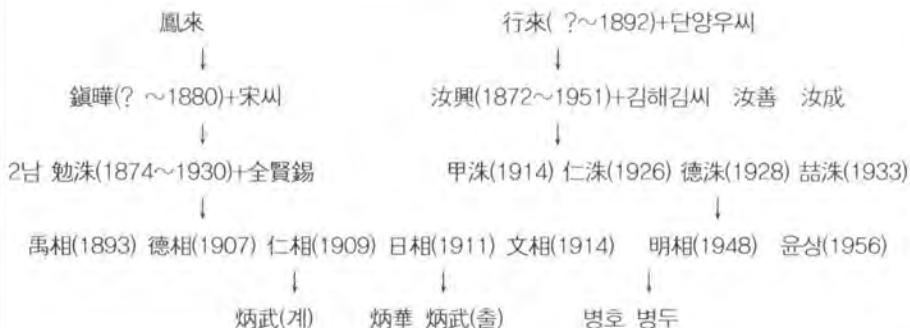
통해 나주임씨 장수공파(長水公派)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원의 장수공파로 정조 때 화성 축성 당시 팔달문 공사를 담당한 임준창(林俊昌)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팔달문 석벽에 공사 책임자로 '牌將 嘉善 林俊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789년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며 새로 행궁과 객사 및 향교를 건립할 때 임건창은 객사 건립의 감독관(客舍看役 牌將 副司果)으로 참여하였다.<sup>3)</sup> 주로 정조 때 활약한 임준창은 1795년(정조 19) 3월 24일 경복궁 위장(景福宮衛將)이 되었다. 1796년 1월 22일 득중정에서 군교들을 대상으로 한 활쏘기에서 임준창은 외영군기감관(外營軍器監官)으로 정조임금으로부터 별조통개(別造筒箇)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또한 1800년 정조의 건릉을 조성할 때 외결속감관(外結束監官)으로 참여한 가선(嘉善) 교련관(敎鍊官) 임준창에게 변장(邊將)으로 제수하라는 산릉도감의 별단의 기록이 있다. 임준창은 경복궁 위장과 만호 등을 역임한 무관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까지 오른 인물로 나주임씨의 수원 입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원래 임준창의 묘소는 정남면 보통리 선영에 있었는데 선산이 팔리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임명상씨는 아버지(林甲洙)가 임면수와 6촌지간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랐고 증조부 행래(行來)의 형 봉래(鳳來)의 묘소가 정남면 보통리 선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면수 가계는 임준창의 후손으로 봉래와 행래 형제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임면수의 민적부와 제적부를 통해 단편적인 계보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임면수는 1874년 나주임씨 임진엽(林鎮暉)과 송씨 사이에서 2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임면수의 민적부와는 달리 제적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임진수(林鎮洙)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아버지 임진엽은 임행래(林行來, ~1892)의 장남으로 남수리 218번지 임여홍(林汝興, 1872~1951)과 4촌간인 셈이다. 나주임씨의 항렬은 앞의 4개 파가 거의 같은 항렬을 쓰고 있는데, 24세 진(鎮)- 25세 수(洙)- 26세 상(相)- 27세 병(炳) 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임면수는 장수공파의 25세손이 되는 셈이다.

3)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9月, 辛亥.

### 〈임면수의 가계도〉



임면수는 7살 나던 해에 아버지 임진엽(林鎮暉, ? ~1880)을 여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보겠지만 큰형 임홍수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였다. 임면수는 1892년 19살 나이에 3세 연상의 천안전씨 전상호(全相鎬)의 장녀 전현석(全賢錫, 1871~1932)과 결혼하였다. 본가였던 북수리 299번지는 호주상속을 한 임홍수의 집이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결혼하여 살았던 것 같다. 임면수 부부가 이집에서 같은 동네인 북수리 229번지로 분가한 것은 결혼한 지 10년 뒤인 1903년의 일이다.

초기 민적부에는 임면수의 소생으로 장남 禹相(1893년 7월생), 장녀 學嫵(1903년생), 차녀 交嫵(1906년생), 2남 德相(1907년생)의 2남 2녀가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망 이후 작성된 제적부에는 장녀 道相(1903년생), 차녀 惠相(1906년생), 장남 仁相(1909년생), 차남 日相(1911년생), 3남 文相(1914년생)이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임면수 부부는 모두 5남 2녀를 두었는데 최종적으로 3남 2녀가 생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이들 부부사이의 장남은 임우상(林禹相, 1893~1919)이다. 삼일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임우상은 1906년 9월 27일 삼일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원래 이름은 임희송(林希松)이었는데 우상(禹相)으로 개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912년 만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삼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19세에 전현석 여사와 결혼하여 6남 2녀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김세한, 『삼일학원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109쪽.

장남 고 임우상(林宇相)도 당시 20여의 약관으로서 고국에 잠입왕래하며 부친을 도와 군자금 모집하는 등 신흥무관학교 교관(教官)으로 학생교육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국내 외 구국동지들의 연결과 보호에 자진하여 그들의 숙식과 요양이며 그들의 무기와 군수 품의 보관과 체송을 도맡아 간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서기 1919년 고 장남 우상을 국내 잠입하여 김세환(金世煥)씨 등 동지들에 연락이며 군자금 모집하여 서간도 귀로 도중 영하40·50도의 추위에 십 여일이나 보행길에 동상과 독감에 걸리어 귀가 후 즉시 사망하였습니다.<sup>5)</sup>

독립투쟁을 하던 만주에서 20대의 장남 임우상이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어 학력과 활동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약사』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면 임우상의 독립운동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아들 덕상(德相)은 어린나이에 일찍 요절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아들 임인상(林仁相, 1909년생)의 기록도 소략한 편으로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는 형편이다.

넷째 아들 임일상(林日相, 1911~1982)이 실질적으로 임면수의 대를 이은 셈이다. 임일상은 1921년 임면수의 피체로 가족과 함께 고향 수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에 안겨 만주에 이주한 이후 만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셈이다. 초등학교를 수원에서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6년 경성기독청년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1927년 3월 같은 학교 사진전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졸업 후 2달 뒤인 1927년 5월 만주 길림으로 가서 성(城)사진관을 개업하고 중국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29년 장춘 조선일보 지역 사진기자로 활동하였고 다시 1936년 중국 상해에서 상업 활동을 펼쳤다. 이후 林사진관 및 聖林사진관을 운영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1946년 서울에 정착하여 상업활동을 하였다. 1950년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1953년 부터 그곳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10년간 활동하였다. 이후 고향 수원으로 돌아와 시내 팔달로 3가 96번지에서 사진관 '헬리온 사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의 일이다.

마침 세류동 공동묘지가 택지개발이 됨에 따라 임면수 선생의 묘지에 대한

5) 허영백, 『약사』, 15쪽. 『약사』에는 宇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민적부에는 禹相으로 되어 있다.

이장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듬해인 1964년 추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아들 임일상의 역할과 노력이 지대한 것이기도 했다.

평양감옥에 압송되어 기막힌 고문과 몹쓸 매를 맞아 운신부동의 전신마비되고 언어조차 가리지 못함을 알자 죽을 줄 알고 출옥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입혀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동안에 가족들은 벌써 퇴만령(退滿令)을 받고 아들 일상(日相) 군만 남긴 채 고향에 와서 만나 선생을 성심껏 구료한 바 효험을 보아 악형의 여독이 다소를 풀렸으나 신경통이 심한 중에 아들 일상 군의 소식을 듣고저 병구(病軀)를 끌고 직향 길림(直向吉林)하였다. 아들 일상은 역시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이청천(李青天) 부하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여 한국이 독립되기 전에는 고향 땅을 밟지 안겠다하여 귀향하기를 거부함으로 단신 환국한즉 반신불수증이 발작하여 무한한 고통을 하시다가 전생을 받쳐 달성하려던 조국광복을 야속하게도 보지 못하신 채...<sup>6)</sup>

첫돌이 지난 갓난아이로 고국을 떠나 만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던 임일상의 처지에서 보면 1921년 아버지 임면수가 체포된 것은 가족의 귀국을 강요하는 큰 사건이었다. 옥바라지해야 하는 어머니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임일상 가족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면수가 출옥한 뒤 한성 기독청년학관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청년회학관은 초등과·중등과·고등과를 비롯하여 영어전문과 및 공예부의 목공과·철공과·인쇄과·사진과 등을 두었다. 임일상이 졸업한 뒤인 1928년 중앙청년회학관은 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27년 동경사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청년학관 사진과 전임교수로 신낙균(申樂均, 1899~1955)이 부임한 것도 이즈음이다.

임일상이 만주에서 활동한 기간은 1927년부터 1934년까지로 수원의 염석주(廉錫柱, 1895~1944)가 만주에서 추공(秋公)농장을 개설하고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들의 관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임일상의 첫째 아들 임병화(林炳華, 1933년생)는 만주국 신경시 영락정 3정목 25번지에서 태어났다. 이름 번성(繁盛)을 병화(炳華)로 개명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임일상의 둘째 아들 병무(炳武)는 후사가 없는 큰아버지 임인상의 양자로 입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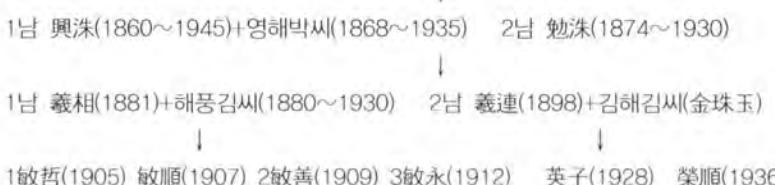
6) 허영백, 앞의 책, 23쪽.

### 3. 수원 상업계의 실력자 임흥수

임흥수(林興洙, 1860~1945)의 제적부를 통하여 임면수와 형제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원의 상업과 장시(場市)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임흥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차에 그들이 형제 사이라는 사실은 짜릿한 흥분을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었다. 7살에 아버지를 여읜 임면수에게 실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 임흥수였다. 임면수는 장조카 임희상(林羲相, 1881년생)과의 나이 차이가 7살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임흥수 가계도〉

鎮嘆(? ~1880) + 宋씨



임흥수는 상무사(商務社) 두령으로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상인이었다.<sup>7)</sup> 상무사는 보부상단을 통괄하고 관리하던 기관으로 상인조합의 성격을 지닌 결속력이 강한 조직으로 이름이 높았다. 정부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객주의 동업조합을 보호 통제할 목적에서 상회소를 두고 객주동업조합으로 상무회의 소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 1883년(고종 20) 조직된 원산상회소(元山商會所)가 최초의 상회소이며 갑오개혁 과정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대적 상업회의소인 상무회의소(商務會議所)로 통일하고 1895년 11월 상무회의소 규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상무회의소는 상업의 발전방안과 분쟁 조정 및 정부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시 1899년 정부는 상무회의소 규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상무사(商務社)로 바꾸고 서울에 상무본사를 두고 지방에

7) '商社義捐',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11일.

분사를 설치하였다. 그밖에 상무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을 간행하며 무허가 상인단체 조직을 엄금하도록 하는 한편 상무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대신·관찰사·군수 등이 맡게 하여 조직과 운영 면에서 통제를 강화하였다.

임홍수는 1899년 『광무양안』에 따르면 성안 장안동과 보시동 및 성밖 역촌과 입암평 등에 552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sup>8)</sup> 더욱이 북수동 팔부자 거리의 팔부자집 가운데 하나가 임홍수 집이었다. 팔부자 거리는 보시동(북수동) 문안우시장 인근에서 중영에 이르는 길목에 연달아 서 있던 번듯한 기와집들을 일컫는다.<sup>9)</sup> 1897년 천주교측에서 구입한 팔부자집은 북수리 340번지(219평)로 1912년 당시 토지조사부에 주교 소유로 괴원량(郭元良), 즉 르각(Le Gac, 1876~1914) 신부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북수리 335번지는 중영이 위치한 곳으로 이후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섰다가 수원군청과 해방 후 화성군청이 들어섰던 곳으로 지금의 후생내과 자리이다. 중영 바로 위 343번지(204평)는 최송(崔松)의 소유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천도교 교당이었으나 이후 천주교 측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천주교 성당 일부가 되었다. 그 위로 344번지(322평)와 295번지(168평)는 이성의(李聖儀), 345번지(279평)는 민영린(閔泳璘, 경성부 북부 수진방 사직동), 346번지(188평)는 차형린(車珩璘), 347번지(129평)는 차동린(車東璘), 그리고 건너편 299번지(254평)가 임홍수(林興洙) 소유였다. 그리고 그 아래 337번지(207평)는 일본인 마나베(眞鍋貞一)에게 팔린 상황이었다. 팔부자집의 소유 양상은 수원의 대표적 가문이었던 전주 이씨와 연안 차씨와 수원 최씨 및 여흥 민씨, 나주 임씨의 소유였던 셈이다. 전통적인 팔부자거리의 노른자위 땅에 자리한 임홍수의 집은 아버지 임진엽이 물려준 집이고 임면수가 태어난 집이기도 하다.

한편 임홍수는 갑오개혁 이후 성안에 장이 서는 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1900년부터 1904년까지 성밖장과 성안장의 분립과정에서 북수동을 비롯한 성안의 상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하였다.<sup>10)</sup> 1900년부터 성안의 문안장과 성밖의 문밖장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경제적 생존권과 결합하여 권력과 결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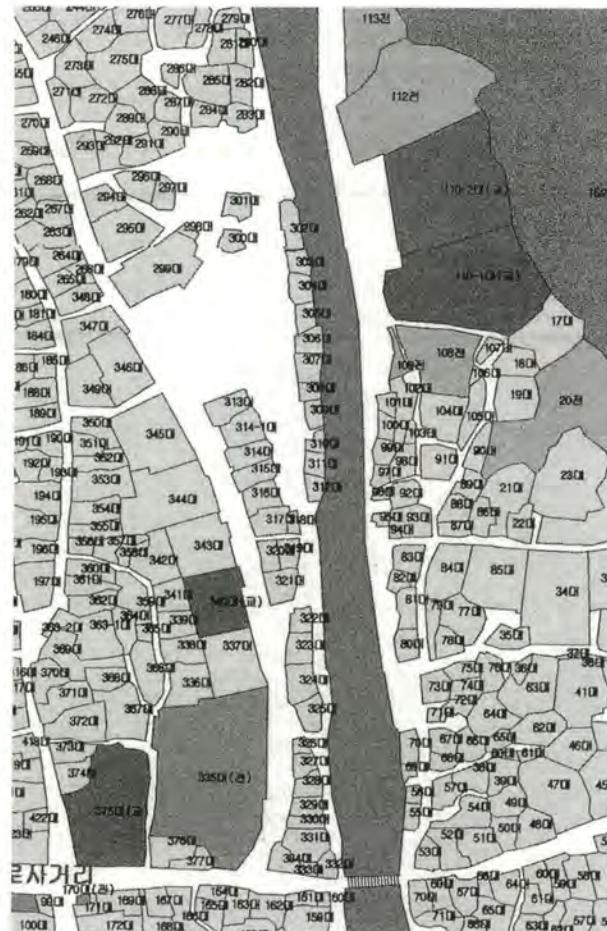
8) 『양안』에는 林興守로 표기되었으며 장안동, 보시동, 역촌, 입암평 등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9) 한동민, 「수원 우시장, 수원경제를 이끌다」, 『수원을 걷는다 – 근대수원읽기』, 수원박물관, 2012.

10) '廣告', 『皇城新聞』, 1904년 7월 28일.

흔미한 상황이었다. 결국 1904년부터 수원의 장시는 성밖장과 성안장으로 나뉘어 열리게 되었다. 이는 다른 지방의 장시가 통상 5일마다 서는 5일장과는 달리 각각 10일마다 서는 간시(間市)의 형태이자 이중장(二重場)으로 운영되었던 수원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임홍수는 문밖장의 구천동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정도로 성안 상인들의 대변자였던 것이다.

1907년 기호홍학회에 임면수는 형 임홍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임홍수는 상무사의 두령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팔부자 거리와 삼일학교(1911년 화성지적도)

水原府居<sup>한글</sup>는 林興洙 宋允

明 兩씨는 本以 有志之士로 商務를 擴張키 為<sup>한글</sup>야 該社 頭領이 되었더니 今番 國債상  
이에 热心勸勉<sup>한글</sup>야 收合한 金額報 三百餘圓에 達<sup>한글</sup>았는대 該府 收金所로 卽爲送交  
한<sup>한글</sup>았다더라.<sup>11)</sup>

즉 1907년 임홍수는 송윤명(宋允明)과 더불어 국채보상운동금으로 300여 원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1907년 6월 삼일학원 후원금으로 6원을 지원

11) '商社義捐',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11일.

하기도 했다.<sup>12)</sup> 결국 임면수는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상업적 자산을 기반으로 근대적 학문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 4. 출생지에 대한 재검토

현재 임면수의 출생지와 출생연도는 1963년 허영백 선생이 지은 「약사」<sup>13)</sup>(「愛國先烈 故 必東 林冕洙先生略史」)와 1964년에 세운 「묘비문」에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면 매향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sup>14)</sup> 인물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보 작성의 기본적인 항목은 태어난 곳과 태어난 때에 대한 정확함이라 할 것이다.

1909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민적부(民籍簿)는 임면수에 대한 기존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민적부에 임면수의 직업이 '교원(教員)'으로 표기되어 있어 삼일학교 교원이었을 때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민적부에 따르면 임면수는 2남으로 1903년(광무7) 8월 15일 분가하면서 호주가 되었다. 이에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普施洞) 3통 6호로 분가함에 따라 이곳이 본적지가 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일제측 요시찰 자료에는 원적(原籍)을 수원면 북수리 110번지로 적고 있다.<sup>15)</sup> 그러나 북수리 110번지는 1912년 당시 『토지조사부』에는 801평(田)의 밭이었다. 이후 1923년 삼일학교가 신축 이전한 곳이다. 바로 위 북수리 111번지(垈)는 대지 1,036평으로 1913년 삼일여학교가 신축 이전되었다. 북수리 111번지, 110번지의 소유자는 유홍준(劉泓俊) · 변조진(邊兆鎮) · 고흥순(高興順) 3명의 공동명의였다. 1911년 3월 20일자로 신고한 것으로 수원교회를 대리한 인물들이다.

변조진(邊兆鎮)은 버딕(Burdick, George M. Rev)의 한국식 이름이다. 버딕은 미감리교회 선교사로 1903년 내한하여 미감리회 제19회 선교회에서 수원구역

12) '光武十一年六月日 水原三·學校贊成金額', 『皇城新聞』, 1908년 2월 6일.

13) 許英伯, 「光復先烈 故 必東 林冕洙先生略史」, 1963.

14) …선생은 서기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면 매향리 지금의 (수원시 매향동)에서 나서서 서기 1930년 11월 29일 56세를 일기로 서거하시다… 〈光復先烈 必東 林冕洙先生之墓〉 1964년 4월 25일.

15) '불령단 표 195', 『해외요주의 선인연명부』, 일본외무성.

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삼일학교 설립에 관여하였고 1908년 수원지방회로 승격 초대감리사가 되었던 인물이다. 유흥준은 이후 목사로 활동한 인물이고, 고흥순은 초창기 수원교회의 신자로 남창리 65번지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유지였다.

이들 3명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성안 보시동 야소교회라 일컬어졌던 북수리 153번지(垈, 308평)와 151번지(垈, 114평)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초가집은 야소교회와 삼일학교로 사용되었다. 152번지(田, 87평)도 교회 자산으로 이들 공동소유였다. 인근의 북수리 108번지(田, 290평), 109번지(田, 43평), 110번지, 111번지, 112번지(田, 566평), 118번지(田, 37평), 119번지(田, 120평), 147번지(田, 1035평), 151번지, 152번지, 153번지, 208번지(田, 181평), 375번지(垈, 559평) 등이 3인의 공동소유이자 교회자산이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북수리 375번지는 1911년 3월 30일 이들 3인의 공동소유로 신고하였고, 이듬해 1912년 벽돌 건물로 새롭게 교회를 지어 이전함으로써 종로교회라는 이름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편 장남 임홍수가 아버지 김진엽의 사망으로 호주 상속한 뒤의 본적은 북부면 보시동 11통 1호이다. 이는 1914년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수원면 북수리 299번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임면수는 이곳 보시동 11통 1호(북수리 299번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살다가 결혼하여 본가에서 몇 년을 살다가 분가한 셈이다. 따라서 북수리 299번지가 임면수가 태어나서 자란 생가라 하겠다. 현재 북수동 283번지로 다세대 건물인 우정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북수리 일대의 유력한 집안들은 김해 김씨와 정주 주씨 및 나주 임씨 등 세 집안을 꼽을 수 있다. 정주주씨는 주영식(周永植) · 주공식(周公植), 나주 나씨는 임덕준(林德俊) · 임화실(林化實) 및 임홍수와 임면수 형제 등이 대표적 인



임면수 민적부

물이다.

따라서 임흥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임면수 역시 북수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임면수 부부는 처음 보시동 3통 6호로 분가하였는데, 제적부에 본적으로 기재된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229번지이다. 이곳은 현재 북수동 367번지로 동창당한 약방 자리이다.

이후 제적부의 주소는 이후 수원읍 남창리 56번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수원읍 남수리 45번지로 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면수 사망 이후 부인 전현석이 1932년 3월 21일 북수리 367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장녀인 임도상(林道相)은 1934년 남수정 45번지에서 사망하였고, 3남 임문상은 중동 70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이들 가족사에서 매향동에서 살았던 적은 없다. 매향동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비문과 「약사」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 매향동 집터를 삼일학교에 기증하였다는 내용은 김세한이 집필한 삼일학교 교사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여성교육을 위해 가대(家垈)와 토지 과수원을 현 매향여자중·상업고등학교 부지로써 회사하였다. 어찌 선생의 후덕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선생은 삼일학교에서 주호의 권리도 개의(介意)한 바 없는 의인이었다.<sup>16)</sup>

임면수가 삼일여학교 부지로 집터와 토지, 과수원을 회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일여학교는 북수리 111번지여야 하는데 이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일제측 자료에 근거하여 임면수의 본적을 북수리 110번지로 한다면 이곳은 삼일학교여야 한다. 삼일학교가 신축 이전한 북수리 110번지(801평)가 임면수 소유의 땅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1911년 화성안 지적도에는 110번지와 111번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특이한 상황이다. 즉 111번지가 없이 110번지도 110-1번지와 110-2번지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1110번지의 의문을 풀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나중석 씨는 매향동에 있는 토지 900평을 1906년 5월 삼일학교 체육교육을 위해 운동장(현 운동장 자리)으로 기부했던 것이다.<sup>17)</sup>

16) 김세한, 『삼일학원65년사』, 삼일학원, 1968, 80-81쪽 ; 김세한, 『삼일학원팔십년사』, 삼일학원, 1983, 111쪽.

오히려 나중석이 1906년 삼일학교 운동장으로 900평을 기부하였다면 북수리 110번지 801평의 규모와 근접한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만주에서 활동할 당시 일제측 자료에 임면수의 원적을 북수리 110번지로 적고 있는 것은 특별히 주목 해야할 대목이다. 이는 첫째, 임면수가 고향 수원의 본적지를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위장함으로써 정확한 신원파악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1913년 삼일여학교가 들어서는 북수리 110번지가 원래 임면수 소유 토지였을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삼일학교가 신축 이전한 북수리 110번지(801평)학교가 신축되기 전까지 가옥이 들어선 적이 없는 밭이었다.

따라서 북수리 110번지의 밭을 학교재산으로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면수가 태어난 곳이 매향동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하튼 삼일여학교 터는 임면수가 희사한 토지에 세워진 것이고, 삼일학교 운동장은 나중석이 기부한 토지에 건설된 셈이 되는 셈이다. 삼일학교 초기 설립자 6명 가운데 나중석과 임면수가 언급되는 가장 핵심적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임면수 선생의 생몰년은 1874년 태어나 1930년 사망한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태어난 날짜는 민적부의 경우 개국(開國) 482년, 즉 1874년(고종) 6월 10일로 되어 있다. 제적부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제의 요시찰 자료에도 생년월일이 명치(明治) 7년, 1874년 6월 10일로 되어 있다.<sup>17)</sup>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묘비와 「약사」 및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에는 1874년 6월 13일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민적부와 제적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출생일을 1874년 6월 10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망일은 1930년 11월 29일(음력)이다. 실제 양력으로 환산하면 1931년 1월 17일이다.

17) '나중석씨가 토지 900평을 기부함',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상업고등학교, 1968, 71쪽 ; 김세한, 『삼일학원팔십년사』, 1983, 95쪽.

18) '불령단 표 195', 『해외요주의 선인연명부』, 일본외무성.

## 5. 망명과 한국에 따른 이름 표기 방식의 변화

현재 임면수 선생의 한자 표기는 林冕洙로 쓰고 있다. 그러나 초기 민적부 등 관공서 자료와 대한제국기 각종 자료와 신문 등에는 일관되게 林勉洙를 쓰고 있다.

水原養蠶學校…及第는 林勉洙…<sup>19)</sup>

水原華城學校…第一回卒業式을 舉行… 卒業生은 林勉洙 等…<sup>20)</sup>

水原人 林勉洙 一元…<sup>21)</sup>

水原英語三學堂 … 書記 …林勉洙<sup>22)</sup>

評議員 …林勉洙…<sup>23)</sup>

水原府內 三一學校校長 林勉洙…<sup>24)</sup>

따라서 林勉洙와 林冕洙를 처음부터 혼용한 것은 아니다. 林冕洙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22년 평양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일이다. 1923년 아담스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자료인 「憑文」에는 林勉洙와 林冕洙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즉 1906년 학교 설립자로 기록할 때는 林勉洙로 적고 있고,<sup>25)</sup> 1923년 현재 교회 직원으로 권사(勸士) 林冕洙 및 건축공사 간역원(看役員) 林冕洙라는 표기로 분명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922년 감옥에서 출옥하고 난 뒤부터 본인 스스로 의도적으로 林冕洙라는 한자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과 함께 하며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던 임면수는 독립투사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을 나오며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를 닮고자 한 의지의 표현으로 추정된다.

이후 죽을 때까지 林冕洙로 한자명을 사용하였고, 사후 만들어진 제적부에도

19) '華校蚕業', 『皇城新聞』, 1903년 11월 6일.

20) '華校卒業', 『皇城新聞』, 1905년 5월 9일.

21) '在桑港遭難同胞의 救恤金廣告',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2일.

22) '國債報償趣旨書',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9일.

23) '支會任員及會員名簿', 『本會記事』, 『기호홍학회월보』 제2호(1908년 9월 25일), 62쪽.

24) '學界獻身', 『學界彙聞』, 『기호홍학회월보』 제7호(1909년 2월 25일), 38쪽.

25) 李夏榮 林勉洙 羅聖奎 崔翼煥 金濟九 車裕舜 邊兆鎮(미국인) 崔命義 白雅惠(현임 설립자, 미국인)

林冕洙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사후 세류동 공동묘지의 묘비도 '羅州 林冕洙之墓'라 쓰고 있으며, 1960년대 세류동 공동묘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삼일학교 교정으로 임면수 선생의 묘를 옮기는 추모사업이 추진되면서 林冕洙로 한자명이 확정적으로 사용되었다. '林冕洙先生 追悼委員會'가 만들어지고 묘비를 새롭게 건립하는 작업과 동시에 만주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許英伯이 임면수 선생의 간략한 생애를 기록한 『光復先烈 故 必東 林冕洙先生略史』(1963)가 편찬되었다. 더욱이 후손이 보훈처에 올린 공적조서에 이름을 林冕洙로 등재함으로써 현재 공훈록에 林冕洙로 등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임면수의 망명시기를 검토해 보자. 임면수의 만주 망명시기는 허영백의 「약사」<sup>26)</sup> (「愛國先烈 故 必東 林冕洙先生略史」)에 따르면 1910년 10월 초 봉천성 회인현 횡도천으로 망명하였다고 적고 있다.<sup>27)</sup> 김세한의 『삼일학교사』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 비밀리에 신민회에 가입하고 양기탁(梁起鐸)씨 집에서 열리는 구국운동회의에 참석하여 신민회 공결(公決)과 지시에 의해 모국을 떠나 서북만주 땅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것을 다짐하며 삼일학교를 나홍석(羅弘錫)씨에게 위탁하였다. 극비밀리에 가족을 이끌고 봉천성 환도천이라는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때는 경술년 10월 초였다.<sup>28)</sup>

망명시점을 모두 1910년 10월 초로 보고 있으며, 김세한은 더 나아가 삼일학교를 나홍석에게 위탁하였다는 것이다. 나홍석(羅弘錫, 1888~1936)은 임면수와는 일어 화성학교 후배로 1906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1909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과를 졸업하였다.<sup>29)</sup> 졸업 후 한 동안 삼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1909~1910년 즈음에는 삼일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삼일학교를 나홍석에게 위탁할 만큼 삼일학교에서 나홍석의 역할과 위상이 큰 것은 아니었다. 단순한 교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마 나홍석도 1913년 이전 시점에 만주로 망명을 하였다. 나홍석의 만주의 생

26) 許英伯, 「光復先烈 故 必東 林冕洙先生略史」, 1963.

27) "봉천성 회인현 횡도천(前中華民國奉天省懷仁縣恆道川)이란 지방(地方)에 망명우접(亡命寓接)하게 되니 때는 경술년(庚戌年) 10월 초(十月初)였습니다." 허영백, 「약사」, 1963, 12쪽.

28) 김세한, 『삼일학교원활십년사』, 1983, 112쪽.

29) 「卒業生 一覽」, 『大韓興學報』 제5호, 1909. 7.

활을 알려주는 자료로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의 기록을 들 수 있다. 1913년 나홍석은 이승희 선생을 이조연의 아들 이탁(李倬)와 함께 찾아가 “일찍이 야소교에 관여했으나 이는 본의가 아니었다. 지금부터 원컨대 선생을 따르고 孔教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0)</sup> 또 나홍석은 자신의 연구 저작물인 「日本文明論」을 가지고 가서 접검을 요청하기도 했다.<sup>31)</sup>

또한 박환 선생도 허영백의 『약사』에 기초하여 1910년 10월 만주로 망명한 것으로 기술하거나,<sup>32)</sup> 1911년 2월 가족을 이끌고 만주 서간도로 망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정확히 임면수의 서간도 망명 시점은 1912년 2월의 일이다. 이는 민족부에 임면수의 만주 망명시기를 ‘明治 45년 2월 10일 支那 西間島로 全部出稼’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12년 2월 10일 중국 서간도로 임면수 가족 전체가 이주하였고, 동년 4월 17일 보시동 이장 이화순(李和淳)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약사』의 서술처럼 임면수가 만약 1910년 10월 초 서간도로 망명한 것이라면 독립운동사상 임면수의 역할과 활동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이는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형제의 망명보다 빠른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2년 2월에 망명한 것이 당시 상동교회 사람들과 연결되어 진행된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1912년 2월 10일 서간도 망명 이후 임면수라는 이름 대신 임필동(林必東, 林弼東)이라는 가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본명 대신 별명과 이명을 사용함으로써 신분의 노출을 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때문이다.

‘필동’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자호(自號)였을 가능성성이 크다. 必東은 반드시 동국(한국)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弼東 역시 우리나라 동국을 보필하는 인물이 되겠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필동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되

30) 李承熙, 『韓溪遺稿 一』, 국사편찬위원회, 1982, 139쪽.

31) …羅弘錫持所著研究日本文明論, 위의 책, 150쪽.

32) 박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수원역사문화연구』 3, 수원박물관, 2013.

33)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임면수 선생을 재평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6. 맷음말

임면수는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사상 재평가되어야하는 인물이다. 가장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임면수에 대한 평가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의 파악이 우선이라 하겠다. 이에 임면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면수는 수원의 대표적인 상업적 성공을 이룬 나주임씨 장수공파의 26세손이다. 북수동 팔부자 거리의 팔부자집 가운데 한 집이었던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셈이다. 그러면서도 수원의 초기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근대교육을 수용한 인물로 성안 유력한 가문과 결혼 등의 관계망을 통해 지역의 유지로 활동한 셈이다.

첫째, 임면수는 매향동 출생이 아니라 북수동 출생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즉 북수리 299번지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북수리 229번지로 분가하였다.

둘째, 북수동은 나주임씨, 김해김씨, 정주주씨가 유력한 성씨로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나주임씨 집안 출신이다. 특히 성안의 상권을 움직인 유력한 상무사 두령이었던 임홍수의 동생이다.

셋째, 호적이나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태어난 때는 1874년 6월 10일(음)로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망한 날짜는 1930년 11월 29일(음)이지만 양력으로 환산하면 1931년 1월 17일이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름의 표기는 처음 林勉洙에서, 만주 망명시절의 임필동(林必東)을 거쳐 1922년 감옥에서 출감한 이후 林冕洙로 스스로 고쳐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훈록 등 임면수와 관련한 연구 및 자료에서 기본적 인적사항이 정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수동의 임면수와 관련한 태어난 집(북수동 283번지, 다세대 건물 우정주택)과 살았던 집(북수동 367번지, 동창당한약방) 등에 대한 표석 설치 등을 통한 명소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 백

# 만주지역에서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박 환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만주로의 망명 배경: 상동청년학원에서의 민족의식의 확대와 동지들과의 교류
3. 만주로의 망명
  - 1) 피눈물로 고향 산천 수원을 떠나 만주 환인현 횡도천으로
  - 2) 유하현 삼원포로의 이동과 정착
4. 부민단에서의 독립운동
  - 1) 부민단은 어떠한 단체일까?
  - 2) 독립군의 연락소: 객주업 운영
  - 3) 부민단에서 결사대로 활동
5. 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교장으로 활동
  - 1) 양성중학교
  - 2)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다
6. 3·1운동 이후 무장활동
7. 맺음말

## 초 록

임면수는 구한말에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10년대에는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인물이다. 수원 출신으로 수원에서 활동하다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로서 임면수의 민족운동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인물은 별로 발견되고 있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임면수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하여 1912년 2월 만주 서간도 환인현 횡도천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개교한 양성중학교 교장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는 부민단의 결사대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3·1운동 이후 일제의 간도 출병으로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 투옥되었다.

임면수의 만주지역으로 망명은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임면수의 만주 망명 부분은 이회영 등 6형제, 이상룡, 김동삼 등 경북 안동 출신 등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임면수는 신민회의 경기도 대표로서 만주 망명에 기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신들의 만주 망명과 임면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도 앞으로 보다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면수의 망명 부분과 관련하여 그의 부인 전현석과 아이들 문제도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임면수가 만주로 망명할 당시 자녀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임면수의 만주 망명이 얼마나 큰 모험이며 고난이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만주에서의 망명생활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임면수가 만주에서 활동한 주요 지점은 환인현 횡도천, 유하현 삼원포, 통화현 합니하, 해룡현 등지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임면수는 서간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들인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한족회), 신흥무관학교 등이 있던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임면수의 만주지역에서의 활동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양성중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별칭으로 인정된다. 이 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는 수원 삼일학교에서의 교육사업 경험 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임면수는 수원출신 기독교인으로서 만주지역에서 교육운동과 무장투쟁 을 함께 전개한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양성중학교, 경학사, 부민단, 양성중학교,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전현석

## 1. 머리말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는 구한말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계몽운동가였다. 근대 학교인 삼일학교(三一學校)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sup>1)</sup> 학교 교육에 매진하는 한편,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기호홍학회 수원지부 평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국이 점차 일제에 침탈당하자 그의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는 수원지역사회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좀 더 큰 꿈을 갖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 지역을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의 발걸음이 본인 신앙의 중심축인 서울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학원으로 옮기게 된 것은 그의 성향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상동청년학원에서의 공부와 활동은 필동 임면수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였다. 전덕기(全德基)목사를 통해 그리고 이동휘(李東輝), 이회영(李會榮) 등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지사들과의 만남은 그의 항일 운동의 반경을 수원, 경기도를 벗어나 전국, 나가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임면수는 상동교회를 통해 신앙심이 더욱 굳어지고 민족의식이 더욱 단단해져, 그의 민족운동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하여 1912년 2월 만주 서간도 환인현(桓仁縣) 횡도천(橫道川)<sup>2)</sup>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계획은 상동청년학원에서 함께 한 동지들이 만든 신민회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만주로 망명한 임면수는 1910년대 경학사(耕學社), 부민단(扶民團)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경학사에서의 활동 기록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경학사가 해체된 이후 부민단에서의 활동, 특히 1916년도 활동이 일본측 기록에서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만주지역에서 임면수의 활동은 지역적으로는 통화현(通化縣)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객주업을 통한 독립군의 상호연락 및

1) 임면수가 삼일학교 설립자의 한분임은 아담스기념관 건물 머리돌에 보관된 글인 憑文(1923년 6월 25일 작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함께 학교 설립을 발기한 인물은 이하영, 나성규, 김제구, 최의환, 차유순 등이다.

2) 恒仁縣 恒道川, 회인현 興道川으로도 불리웠다.

지원활동, 결사대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임면수는 통화현 합니하(哈泥河)에 개교한 제2의 신흥무관학교인 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교장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는 객주업을 하면서 부민단의 결사대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3·1운동에도 임면수는 결사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제의 간도 출병으로 독립운동이 위축되자, 통화현에서 해룡현(海龍縣)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일제에 의해 체포 투옥되었다.

지금까지 임면수에 대한 연구는 필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적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임면수에 대한 기초적인 인적 사항과 구한말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계몽운동, 191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운동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만주지역에서의 임면수의 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논고에서 임면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임면수를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살펴본 장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만주지역 한인독립운동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임면수의 독립운동을 그의 주변 상황과, 그의 동지들을 함께 파악하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면수의 역사적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밝혀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만주로의 망명 배경: 상동청년학원에서의 민족의식의 확대와 동지들과의 교류

상동청년학원은 1905년 상동교회에서 설립해서 운영한 중등부 과정의 교육기관이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는<sup>4)</sup> 초등교육기관인 공옥여학교와 공옥남학교 외에 중등부 과정의 청년학원을 설립하였다. 1904년 10월 미국교포 강천명(姜天命)이라는 사람이 그 때 돈 5원을 교육사업에 써달라고 부처옴으로써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 학교가 개학한 때는 1905년이었다. 전덕기 목사는 이 청년학원을 통하여 구국운동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고 투철한 민족정신을 키워주기 위하여 신앙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한글 보급

3) 박환, 「필동 임면수의 민족운동」, 『수원역사문화연구』 3, 2013.

4) 한규무, 「전덕기의 애국계몽운동」, 『나라사랑』 97, 외솔회, 1998.

운동·국사 강의·외국어 강의·군사 훈련·신문화 수용과 전파·지도자의 자기 수양(종교훈련) 등을 가르쳤다.

상동청년학원을 통한 한글보급운동은 주시경(周時經)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주시경은 1907년 7월 1일부터 상동 청년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기 국어 강습회를 열어 국문법을 교수하였다. 그 교수 내용을 보면, 음학(音學)·자분학(字分學)·격분학(格分學)·도해학(圖解學)·변성학(變性學)·실용연습의 6과를 교수하였다. 또한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예배 후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상동청년학원 내에서 국어의 중요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며 가르쳤다. 1907년 11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상동청년학원 안에 국어야학과를 설치하고 국어문법을 가르쳤다. 또한 한국사와 한국지리, 그리고 교련시간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독립정신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교련시간에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군가를 부르며 북소리에 맞추어 행진하였다고 한다.<sup>5)</sup>

임면수의 상동청년학원에서의 공부에 대한 기록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영백(許英伯) 장로<sup>6)</sup>가 작성한 임면수의 비문에 있다. 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구한말 선생은 뜻한 바 있어, 수원에서 서울로 상경하였다. 성동감리교회 안에 설립되어 있는 청년학원에서 영어와 일어와 촉량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상동청년학원은 상동교회의 담임목사 전덕기 목사가 설립하였다. 당시 이곳은 기독교 중견인물들의 집합소이며 애국자들의 종 집합소였다. 임면수는 서울에 유학하면서 교회와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강연회나 토론회나 정부탄핵 연설장이니 강습회니 빠짐없이 따라다니며 식견을 넓히고 인격 향상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강화에서 사학을 30여 차나 설립하고 독립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이동휘씨의 강화를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선생은 국가민족의 항로를 계몽하고 선도하는 지침이 오직 교육부터 라는 것을 절감하

5) 이명화, 「상동청년학원」, 『한국독립운동사사전』 독립기념관, 1996.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시 험」, 『신학월보』, 1904. 11 ;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79) ; 기독교 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상동교회일백년사』, 1988. ;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역사학보』 126, 1990 ; 한규무, 「1900년 대 서울지역 민족운동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6) 『이강일기』(독립기념관 소장)에 허영백 장로에 대한 기록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허영백은 1920년대 초 서간도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고 행리로 돌아와 신교육을 개척하고자 하였다.<sup>7)</sup>

임면수가 감리교 계통의 기독교인이었던 점, 신민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주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이주한 점, 만주에서 상동청년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임면수가 상동청년학원에서 공부하였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1905년 화성학교를 졸업한 임면수는 국권 회복에 관심을 갖고 서울로 상경하여 상동청년학원에 다닌 것 같다. 이것은 임면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감리교 기독교 신자였던 그에게 있어서 상동청년학원은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이며 민족주의자였던 이동휘는 그의 민족의식 형성과 활동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함남 단천(端川)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계몽운동가였다. 그는 아전 이승교(李承橋)의 아들로 1891년경 18세때 군수의 시중을 드는 통인(通人)으로 있다가 상경하여 1895년 한성무관학교(漢城武官學校)에 입학·수학한 뒤 육군 참령(參領)까지 진급하였으며, 1902년부터는 강화도(江華島) 진위대장(鎮衛隊長)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계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군직(軍職)을 사임한 뒤, 강화도에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설립하는 한편,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결성에도 관여하는 등 민족주의 교육과 구국계몽운동에 적극 노력하였다. 1907년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의 해산으로 대한제국이 준식민지화하자, 군동지였던 연기우(延基羽)·김동수(金東洙)등과 함께 강화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투쟁할 것을 모의하였으나, 광무황제의 해아밀사건(海牙密事件)에 관련된 혐의로 일경에 피체·유배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미국인 선교사 병커의 주선으로 그 해 10월 석방되었다. 석방 후 1908년 1월경 서북학회(西北學會)를 참여하는 한편, 이동녕(李東寧)·안창호(安昌浩)·양기탁(梁起鐸)·이갑(李甲)등과 더불어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인물이다.<sup>8)</sup>

1907년 4월에 창립된 비밀결사 신민회에 청년회 출신자들이 발기인으로 참

7) 김세한, 『삼일학원65년사』, 삼일학원, 1968, 79-80쪽

8) 반병률, 『성재 이동휘일대기』, 범우사, 1998.

여하여 신민회의 주요 인적 기반이 되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였다. 엄격한 회원 자격 심사를 거쳤던 신민회에 청년회원인 이동녕·이동휘·전덕기·김진호·김창환·여준·이관직·이시영·이준·이필주·이회영·정재관·조성환 등이 참가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상동청년회원들의 신임과 명망을 엿보게 한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상동청년회원 중에는 국내에서의 항일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미주·만주·노령 등지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았다. 1904년 무렵에는 박용만과 이승만은 미주로, 1906년 이상설·이동녕·정순만 등은 북간도 용정에 국외 최초의 민족주의 교육 학교인 서전서숙을 운영하였고, 그 후 우덕순·김희간·이동녕·이상설·정순만 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김창환·여준·이관직·이동녕·이시영·이회영 등은 서간도(西間島)로 이주하여 삼원보(三源堡)의 독립운동 기지인 경학사와 사관양성소인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였으며, 정재관과 이동휘·장지영 등은 북간도 최대의 민족교육학교인 명동학교의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상동청년회 인물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각 교민 이주사회에 독립운동 단체를 결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다. 1910년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일제에 의해 '105인 사건'이 조작되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졌을 때, 신민회에 가담하여 활동 중이었던 상동청년회 출신자들도 큰 고통을 치렀다.

### 3. 만주로의 망명

#### 1) 피눈물로 고향 산천 수원을 떠나 만주 환인현 횡도천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됐던 1907년, 서울에서 안창호·양기탁·이회영 등을 중심으로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단체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1909년 봄에 일제에 의하여 한국의 멸망이 거의 확실시되자 국내에서의 민족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서울 양기탁의 집에서 이동녕·주진수·안태국·김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에 독립 기지를 건설할 것과 군관 학교를 설치할 것에 대하

여 의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간도 지역의 한 지점을 택하여 그 지역에 동지들을 이주시기고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임면수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여 애통한 나머지 서울로 올라와 비밀리에 신민회에 가입했고, 양기탁씨 집에서 열린 구국운동회의에 참여하여 신민회의 공결(公決)과 지시에 따라 모국을 떠나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승학(金承學)이 작성한 『한국독립사』에 따르면, 이때 임면수는 경기도 지역의 대표로 활동하였다고 한다.<sup>9)</sup> 만주로 망명 당시 임면수는 삼일학교를 나홍석(羅弘錫)에게 위탁하였다. 임면수는 극비리에 가족을 이끌고 1912년 2월<sup>10)</sup> 봉천성 환인현 횡도촌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sup>11)</sup>

추위가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늦겨울에 임면수는 부인 전현석(全賢錫, 1871년 생)과 아이들 2남 2녀<sup>12)</sup>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였다.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단동으로 또는 신의주에서 하차하여 몰래 안동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1910년 겨울에 만주로 망명한 우당 이희영의 부인 이은숙(李恩淑)은 당시 상황을 자신의 회고기,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서간도 시종기』(정음사, 1979)에서<sup>13)</sup>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0년) 8월 晦初間에 回還하여 여러 형제들이 일시에 합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放賣하는데, 여러집을 일시에 방매를 하느라 이 얼마나 極難하리오. 그때만 해도 여러형제 집이 예전 대가의 범절로 남종여비가 무수하고 君臣座席이 분명한 시대였다. 한 집안 부동산 가옥을 방매해도 소문이 자자하고 下屬의 입을 막을 수 없는데다 한편 조사는 심했다. …(중략)… 팔도에 있는 동지들께 연락하여 1차로 가는 분들을 차차로 보냈다. 신의주에 연락기관을 정하여 타인보기

9)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독립문화사, 1970, 247쪽.

10) 임면수 제적부에 명치 45년(1912년) 2월 支那 서간도로 전부 출가로 기록되어 있다.

11) 허영백, 『광복선열 고 필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12) 임면수 망명 당시 제적부에는 2남 2녀였다. 林禹相(1892년생, 남), 學姒(1903년생), 交姒(1906년생), 德相(1907년생, 남) 등이 그들이다. 임면수, 전현석 등이 사망한 이후의 제적부에는 이름과 나이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남 3녀로서 장녀 林道相(1903년생), 차녀 林惠相(1906년생), 장남 林仁相(1909년생), 차남 林日相(1911년생), 3남 林文相(1914년생) 등이다.

13) 다음의 책도 이와 관련하여 참조된다. 구술 허은, 기록 변창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에는 주막으로 행인에게 밥도 팔고 술도 팔았다. 우리 동지는 서울에서 오전 8시에 떠나서 오후 9시에 신의주에 도착. 그 집에 몇 시간 머물렀다가 압록강을 건넜다. 국경이라 경찰의 경비, 철통같이 엄숙하지만, 새벽 3시쯤은 안심하는 때다. 중국 노동자가 江冰에서 사람을 태워가는 썰매를 타면, 약 2시간만에 안동현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동녕씨 매부 이성구씨가 마중나와 처소로 간다. 안동현에는 우당장(우당 이회영-필자주)이 방을 여려군데, 여려동지들 유숙할 곳을 정하여 놓고 국경만 넘어가면 준비한 집으로 가있게 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면수도 수원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때 압록강을 건너 나라를 떠나는 임면수지사의 마음이 오직하였겠는가. 서울의 우당 이회영,<sup>14)</sup> 안동의 석주 이상룡(李相龍),<sup>15)</sup> 백하 김대락(金大洛)<sup>16)</sup> 등 여러 동지들은 여러 일가친척들이 함께 이동을 하였지만, 필동 임면수는 부인 전현석과 더불어 홀연히 고향 산천 수원을 떠나 만주 대륙으로 향하였다 것이다.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安東縣)으로 이동한 임면수는 횡도천으로 향하였다. 이곳이 우당 이회영 등 신민회계열이 임시 거처로 정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은숙의 기록을 다시 보기로 하자.

임시로 정한 횡도천으로 향하였다 …(중략)… 안동현에서 횡도천은 500라가 넘는지라 입춘이 지났어도 만주 추위는 조선 大小寒 추위 比 치도 못하는 추위이다. 노소없이 추위를 참고 새벽 4시만 되면, 각각 정한 車主는 길을 재촉해 떠난다. 채찍을 들고 〈어 헤!〉 소리 하면 여러 말들이 고개를 치켜들고 〈으흥!〉 소리를 하며 살같이 뛰다. …(중략)… 갈수록 첨첩산중에 천봉만학은 하늘에 땅을 것 같고, 기암괴석 봉봉의 칼날 같은 사이에 쌓이고 쌓인 白雪이 은세계를 이루었다. 험준한 준령이 아니면 강판 얼음이 바위같이 깔린 데를 마차가 어찌나 기차같이 빠른지, 그중에 채찍을 치면 더욱 화살같이 간다.

이은숙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안동현에 도착한 임면수 부부가 환인현 횡도

14) 박환, 「이회영과 그의 민족운동」,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15)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2008.

16)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2011, 백하 김대락의 경우 1911년 1월 6일 서울을 출발하여 임면수와 마찬가지로 신의주, 안동, 횡도천, 삼원포로 향하였던 것이다.

천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산천을 보며, 추위를 느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것을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망설임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은숙은 안동현에서 7~8일만에 횡도천에 도착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7~8일만에 횡도천에 도착하여 柴糧은 넉넉하니. 5간 房子에 60명 권속이 한데모여 나라다 큰 잔치집 같이 수련수련 愁亂하게 몇일을 지냈다.

횡도천은 멀리 고구려의 수도였던 졸본성이 바라보이는 곳이다. 졸본성의 웅장함을 바라보며 임면수는 옛 영광을 새롭게 부활시킬 것을 굳게 다짐하였을 것이다. 횡도천은 고구려의 옛 터였을 뿐만 아니라, 환인현성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아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다만 계곡은 깊지만, 넓지 않아 독립운동가들 다수가 정착하기에는 그리 좋은 곳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999년에 횡도천을 답사한 필자는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국학자료원, 2001) 351쪽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횡도천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아 환인현 현성에 들어와 물어물어 갈 수밖에 없었다. …(중략)… 횡도천까지는 험한 높은 산길의 연속으로 환인현성에서 2km정도 떨어져 있었다. 鳳鳴山의 新嶺 고개를 거쳐 산으로 40분 정도 가니 첨첩산중 속에 횡도촌이 나타났다. 산골짜기 아래 있는 마을로 지금은 일부 한족마을 50호 정도만 남아있고, 모두 환인저수지(일면 훈강저수지)에 잠겨 있었다. 이 저수지는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생겼으며, 당시 전체 500~600호 정도 중에 우리 동포 10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이곳 횡도천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의 학자 이건승(李建昇) 등도 있었다. 이건승은 1910년 12월 1일 압록강를 건너 12월 7일부터 이곳에 우거하였다.<sup>17)</sup> 1911년 5월에 망명 온 박은식(朴殷植)도 1912년 3월까지 대종교 3대 교주가 되는 윤세복(尹世復)의 집에 거처하였다.<sup>18)</sup> 윤세복은 1911년 음력 2월 만주로 망명하여, 동년 음력 5월에 환인현에 동창학

17) 이은영,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18-19쪽.

18) 이은영, 위의 글, 237쪽.

교를 설립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sup>19)</sup> 그리고 경북 안동의 석주 이상룡도 도착하였다.<sup>20)</sup>

## 2) 유하현 삼원포로의 이동과 정착

만주로 망명한 임면수 역시 우당 이회영 등 동지들과 함께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당 이회영 등 신민회 동지들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유하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당 이회영은 1911년 1월 28일 유하현으로 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유하현은 5.6백리나 되는데, 2월 초순에 도착하였다. 鄒之家라는 데는 주가성이 여러 대를 살아서 그곳 지명이 주지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3간방을 얻어 두집 권속이 머물렀다. 이곳은 첨첩산중에 농사는 강냉이와 졸쌀, 두태고, 쌀은 2, 3백리 나가 사오는데 제사에나 진미를 짓는다. 어찌 쌀이 귀한지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름 짓기를, 〈좋다밥〉이라고 하더라.<sup>21)</sup>

한편 경북 안동의 석주 이상룡, 그의 처남 안동의 김대략 등도 앞을 다투어 그곳에 도착하였다. 김대략의 경우 1911년 4월 10일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sup>22)</sup>

1911년 봄에 만주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추가가(鄒家街)에서 자치 기관으로서 경학사를 만들고,<sup>23)</sup>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1911년 6월에<sup>24)</sup> 농가 2칸을 빌어서<sup>25)</sup>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추가가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마(人馬)의 왕래가 잦아 독립운동 기지로서는 적당하지 못하였다.

19) 조준희, 「단애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일고찰」, 『선도문화』 8, 2010, 99쪽.

20) 정병석, 「일제 강점기 경북 유립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대응-백하일기와 서사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8, 2014, 99쪽.

21) 이은숙, 앞의 책, 20쪽.

22) 정병석, 「일제 강점기 경북 유립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대응-백하일기와 서사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8, 2014, 96쪽.

23) 경학사를 1912년 여름에 해산하였다고 하고 있다(신한민보 1940년 6월 13일 이동녕사령(3)

24) 신한민보 1915년 12월 23일 신흥강습소 정형(1)

25) 위와 같음

반면에 통화현 합니하는 동남쪽으로는 고뢰산(古磊山)이 30리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는 청하지(淸河子)의 심산유곡이 있으며 남서쪽으로 폐가동(閑家洞)의 장산밀림(長山密木)이 펼쳐져 있는 준엄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신흥강습소를 합니하로 이전하였다.

1913년 봄, 합니하로 학교를 이전한 신흥강습소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노력과 봉사로 만들어졌다. 황립 초원에 수만 평의 연병장과 수십 간의 내무실 내부 공사 등 모두 생도들의 손으로 이루어냈다. 그리고 동년 5월에 교사 낙성식을 갖고 학교 명칭을 '신흥중학'으로 개칭하였다.<sup>26)</sup> 이로부터 통화현 합니하는 우리 독립군 무관 양성의 대본영이 되고 구국 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새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27)</sup> 신흥중학교는 1914년에 거듭되는 천재(天災)로 인하여 그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둔전병제도를 통하여 학교의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였다.

임면수는 만주지역의 상황이 열악해 지자, 동포들을 순방하면서 신흥무관학교 유지비를 염출하기 위해 영하40도의 한파 적설을 무릅쓰고 썩은 좁쌀 강냉이 풀나무 죽으로 연명하면서 군사훈련비를 조달하기에 심혈을 다하였다.

## 4. 부민단에서의 독립운동

### 1) 부민단은 어떠한 단체일까?

부민단은 1910년대 서간도지역에서 조직된 재만 한인의 자치기구이자 독립운동단체이다. 1912년 가을에 조직되었으며, 통화현을 중심으로 한 서간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를 전개하였다. 1911년 경학사가 해체된 후 재만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사회의 자치와 산업의 향상을 지도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1912년 가을, 독립운동가들은 경학사를 바탕으로 하여 부민단을 조직하였다. 부민단의 뜻은 '부여의 옛

26)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28-331쪽.

27) 허영백, 『광복선열 고 펼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영토에 부여의 후손들이 부흥결사(復興結社)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본부는 통화현 합니하에 두었다. 초대 총장은 의병장 허위(許蔚)의 형인 허혁(許赫)이 맡았으며 곧 이어서 이상룡이 선임되었다. 부민단에는 서무·법무·검무(檢務)·학무·재무 등의 부서가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었다.

부민단의 표면적인 사업은 재만 한인의 자치를 담당하고 재만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재결(裁決)하는 것과 재만 동포들을 대신하여 중국인 또는 중국관청과의 분쟁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것, 재만 한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맡아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만 한인의 토대 위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민단에서는 신흥강습소를 통하여 독립군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흥강습소의 이러한 활동은 그 지역 토민들의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부민단에서는 “나의 동포 잊었으니 이웃 동포 내 동포요”, “나의 형제 잊었으니 이웃 형제 내 형제라”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토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의복, 모자, 신발 등을 토민들과 똑같이 입고 변장함으로써 상호 친교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토민들의 배척은 진정될 수 있었다.

또한 부민단에서는 신흥강습소의 졸업생을 주축으로 하여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으며, 1914년 이후에는 백두산에 백서농장(白西農庄)이라는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하여 항일투쟁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후 부민단은 1919년 3·1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재만 한인의 자치기구이자 독립운동단체로서 그 사명을 다하였다. 부민단은 1919년 4월 초순에 군정부(軍政府)가 성립된 것을 계기로 부민단의 모체 위에 한족회(韓族會)가 조직되자 발전적인 해체를 단행하였다.<sup>28)</sup>

## 2) 독립군의 연락소: 객주업 운영

만주지역에서 부민단원으로 활동할 때, 임면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임필동이란

28) 박환, 「부민단」, 『한국독립운동사사전』, 1996.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령단관계잡전 재만주부 1914년 12월 28일 〈불령자 처분〉 자료의 별첨자료 〈서간도재주 불령선인조사〉 총 54명 중에 보면 임면수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在住地: 통화현

원적지: 경기 수원

성명: 林弼東

연령주정: 50

비고: 객주업을 하는 유력자<sup>29)</sup>

표에는 통화현, 유하현, 환인현, 해룡현 등지에 총 54명의 독립운동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0)</sup>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화현 합니하: 이시영 6형제(李始榮, 이회영, 이식영, 이철영, 李時榮, 이호영), 여준,

윤기섭, 김창환, 이규봉, 이동녕, 김동삼, 강모??, 장한순 3형제(장한순,

장유순, 장도순), 김형식

통화현 청구자: 권중엽

통화현 고립자: 권중철

통화현 대항도자: 정승철

통화현: 이계동, 조중세, 김필순, 이태준, 임필동, 김상준

통화현 추가가: 방기전, 김칠순, 이윤옥, 김창무, 이시중, 왕삼덕, 안동식, 이상룡

통화현 쾌당모자: 최시명

유하현 남산천: 김대락, 주진수, 申모

유하현: 임화동,

유하현 이미: 배인환, 배용택

유하현 삼원포: 방일의, 유창근

해룡현 간포: 이상희, 이봉희, 이준형, 이승희, 이문희

환인현(회인현) 항도천: 흥승국, 조택제, 김윤혁, 흥참판, 청참판, 윤창선

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중국동북지역편 1, 2003, 481쪽.

3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80-482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4년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통화현, 유하현, 해룡현, 환인현 등지에서 활동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중 통화현 합니 하에 거주하는 인물이 다수이나, 임면수는 통화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립운동가 총 54명 중 대부분이 신흥학교 관련 학자 및 교사들이다, 임면수처럼 객주업에 종사하는 인물은 모두 5명이다. 통화현의 이계동(李啓東, 충청도인, 50세, 객주업으로서 유지자), 이시중(李時中, 평안도인 36-7세, 객주업유지기), 최시명(崔時明, 평안도인 42-3세, 객주로서 유지자), 회안현 항도천의 洪承國(42-43세, 충청도인) 등이다. 그 중 임필동만을 '유력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임면수의 부인 전현석 여사는 무시로 찾아드는 별동대 특파대 각양 인원의 식사를 하루에 5,6차례씩 밥을 지어야 했고, 각인각색의 보파리와 총기를 맡아주는 등 챙겨주어야 하는 혁명투사의 아내로써 그 고역이란 필설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독립의 어머니라고 불리웠을 정도였다.<sup>31)</sup> 임면수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 당시 독립운동자로 선생댁에서 잠은 안 잘이가 별로 없고, 그 부인 전현석 여사의 손수 지은 밥을 안먹은 이가 없었으니 실로 선생댁은 독립군 본영의 중계 연락소이며, 독립운동 객의 휴식처요, 무기보관소요, 회의실이며 참모실이며 기밀 산실이었으니

위의 기록은 임면수가 객주업을 운영할 당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추정된다.

### 3) 부민단에서 결사대로 활동

임면수가 독립운동가로서 여관업에 종사하였음을 일본외무성문서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1916년 8월 5일자 배일선인 비밀단체 상황취조의 건>을 통하여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민단에서는 1916년 3월 16일 회의 결과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가 날로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명으로 구성된 결사대(일명 山獵隊)를

31) 김세한, 『삼일학원65년사』, 삼일학원, 1968, 82쪽.

편성해서 통화현에 일본영사관 분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7-8명은 통화현 시가에 잠입하였다. 일본측 정보기록에서 는 임면수를 그중 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일찍이 통화현 동관대가(東關大街) 거주의 여관영업자, 경기도 수원부생 임필동(林必東)은 이러한 종류의 무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1916년 9월 9일자 재안동영사가 일본외무대신에게 보낸 〈재만조선인비밀결사취조의 건에 대한 회답〉에도 임면수가 언급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당지(통화현)의 배일자 중 유력자인 결사대원 임필동(林必東, 林弼東이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1916년 당시 임필동이 통화현 지역의 유력 항일운동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5. 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교장으로 활동

### 1) 양성중학교

양성중학교는 통화현 합니하 남구사차(南溝四岔)에 설립한 기독교계 학교이다. 처음에는 대동(大東)중학교로 불리다가 신흥학교(新興學校)로 잠시 개칭한 뒤, 다시 1915년 4월에 양성중학교로 개명하였다.<sup>32)</sup>

양성중학교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공비(公費)는 각자 각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학생의 연령은 주로 15세에서 18세였다. 교과목은 중등교과 산술·국어·문전·고등소학·독본·신정·산술·최신 고등학 이과서·교육학·대한신지지·초등윤리학·신선박물학·중등산술·신선이화학·유년필독·보통경제학·윤리학교과서·대한국사·사범교육학·신편화학·중등용기법·중등생물 등이었다.

32) 서중석교수는 신흥무관학교가 일제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며,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교육내용과 주요 정보를 은폐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114-115쪽) 이러한 견해를 참고한다면, 양성중학교는 신흥무관학교와 사실상 같은 학교였을 가능성이 크다.

서북간도지역에서 전개된 교육구국운동은 독립전쟁론에 기초한 독립운동의 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자들은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군을 양성해야될 중차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교육의 여러 과목 중에서도 특히 국사교육을 중시하였다. 서북간도 민족학교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는 구한말에 편찬된 망국사·건국사·국난극복사 등의 교재를 이용하였다. 양성학교의 국사교과서로 사용한 『유년필독』은 1907년 현재에 의하여 발간된 아동용 역사교과서인데 그 내용은 인문·지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본분 등이 강조되었고, 일제에 의해 압수된 출판물 중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였다.

서간도에 경학사를 설립한 이상룡을 비롯하여 박은식·신채호·김교현 등이 서간도 지역에서 역사를 담당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당시 각 학교의 역사교육은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성중학교의 교장은 임필동이었으며, 교수(校首) 이세영(李世英), 교사는 차정구(車貞九)·김장오(金長五)·사인식(史仁植)·이문학(李文學)·신기우(申基禹)·윤진옥(尹振玉), 재무감독은 이동녕(李東寧)이었다.<sup>33)</sup>

## 2)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다

임면수는 1910년대 중반 만주 통화현 합니하에 설립된 민족학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일찍이 1909년 수원에서 삼일학교의 교장으로서 근대 민족교육을 실천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중학교는 처음에는 대동중학교에서 출발하여 신흥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다가 다시 양성중학교로 개명하였다. 그가 교장으로 일했던 양성중학교에 대하여는 강덕상편, 『현대사자료』<sup>27</sup> 조선3, 160-161면(1916년 12월 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養成中學校

哈泥河 南溝 四岔

排日主意

1915년 4월 양성이라고 개칭

33) 김은경, 「양성중학교」, 『한국독립운동사사전』, 1996.

교장 임필동

校首 李世英

교사 車貞九 金長五 史仁植 李文學 申基禹 尹振玉, 재무감독 李東寧

기숙생 21, 통학생 41 학생 연령 15세부터 28세까지

중등교과산술, 國語文典, 高等小學讀本, 新訂산술, 最新高等學理科書 교육학 大韓新地誌 초등윤리과, 新選박물학, 중등산술 新選理化學, 幼年必讀, 보통경제학, 윤리학교  
과서 대한국사, 사범교육학 新編화학 中等用器法 중등생리학

종래의 유지법을 일변해서 생도의 公費 등은 각자 지불하게 하고 단지 수업료는 없음  
처음에 대동중학교라고 칭하다가 후에 신흥학교라고 고쳤다가 다시 양성중학교라고  
개칭

양성중학교는 합니하 남구 4차에 위치하고 있었다. 합니하의 경우 1910년대 전반기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던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다. 아울러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세영과 재무감독 이동녕 등은 신흥무관학교의 실질적인 중심 인물들이었다. 이로 볼 때 양성중학교는 제2의 신흥무관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어문전, 대한신지지, 대한국사, 유년필독 등을 통하여 한글, 한국사, 한국지리 등을 가르쳐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임면수의 장남 임우상(林禹(字)相)도 20여 세의 나이로 부친을 도와 신흥무관학교 운영을 위한 군자금 마련을 위하여 진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는 아버지 임면수를 대신하여 수원에 있는 김세환(金世煥) 등 수원지역 지사들의 군자금 모금에 진력하였고, 서간도로 돌아오던 중 영하 40-50도의 추위 속을 10여 일이나 도보로 이동 중 동상 등에 시달리다가 귀가 즉시 사망하였다고 한다.<sup>34)</sup>

34) 허영백, 『광복선열 고 필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 6. 3·1운동 이후 무장활동

통화현 지역에서는 3월 12일 금두화락(金斗伙洛)의 금두화교회에서 기독교인과 한인청년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쾌당모자(快當帽子) 부근에서 한인 4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금두화락 시위운동에서는 일본 밀정 노릇을 해 왔던 계성주를 붙잡아 반역죄로 평결한 다음 3일 뒤 처단하였다. 한인청년회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일까지 운동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일제와 중국 관헌의 집중적인 경계와 단속이 심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지역 시위운동 주도자들은 서간도 각지에 파견되어 3·1운동을 촉진하였다. 유하현 삼원보, 통화현 합니하 지역의 부민단원·기독교인·학생들은 압록강 방면 이주 한인촌, 국내 등 각지에 연락하여 태극기를 계양하고, 오인반(五人班) 등 독립운동의 하부조직을 만들게 하였으며, 각지에서 독립운동축하회와 독립운동비를 각출하는 등 서간도 독립운동을 새롭게 활성화시켰다.

4월 들어 통화현 쾌당모자, 금두화락 부락민들은 총기구입과 700벌의 피복을 제조하고,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우마를 징발하고, 군사비를 거출하였다. 금두화락의 오성범(吳成範)은 170명의 무장대를 이끌고 4월 10일 압록강 연안의 현병대를 습격하고자 집안현 동취보 흑소자구에 집결하였다.<sup>35)</sup> 당시 임필동의 무장활동은 『한국민족운동사료』3(국회도서관, 1979), 368-369쪽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독립운동에 관한 건(1919년 4월 29일)

압록강방면 義州대장보고

2. 渭原분견소 관내 대안

1)

통화현 金斗伙洛 배일선인 吳成範 이하 170명의 일단이 (초기가 소지한 자 많음)

압록강을 대안에 배치한 현병을 습격하려고 4월 10일경 집안현 東聚堡 黑沙子溝(榆

樹林子 북방 11리)에 침입을 보내어 현병을 습격 강안의 동정을 엿보게 하고, 빈번히

35)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중 서간도 지역의 3·1운동

습격방법을 획책중이라고.

2)

통화현 快當帽子 거주 名簿 갑 尹德培

통화현 旺清門 거주 임필동

이들은 동지 약 6백명(무기 소자자 많음)과 더불어 4월 12일 경 집안현 雲芝溝(通溝의 북방 13리)부근에 와서 시기를 보아 통구로 진입하여 조선인조합 총지부와 주재 일본 순사 및 江對岸 현병을 습격할 목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필동은 1919년 4월 통화현에서 집안현으로 이동하여 집안현의 일본순사, 친일조직인 조선인조합 총지부<sup>36)</sup> 등 뿐만 아니라 국경을 지키고 있는 현병들도 습격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중 특히 집안현 조선인지부는 태평구(太平溝)에 1916년부터 조직되어 1921년 당시에는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친일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37)</sup>

임면수는 1920년 일본이 통화현에 일본영사관을 설치하자,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그해 봄, 가족을 데리고 해룡현 북산성자(北山城子)로 이동하였다.<sup>38)</sup> 한편,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에도 수많은 무장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었고, 활발한 국내 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본군들은 1920년 9월 간도로 출병하여 만주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때 임면수도 해룡현 북산성자에서 일본군 토벌대에 체포되어 중국에서 추방되었던 것이다. 즉, 임면수는 정일택(鄭日澤), 한용기(韓元基), 이용도(李用道)와 함께 1920년 6월 12일 밤 해룡현 북산성자 삼도가(三道街)에 재주하는 김강(金剛)의 집에서 김강의 부재중에 그 지역 일본경찰관 및 부근에 거주하는 친일 조선인 등을 암살하고, 남만철도연선에 거주하는 동지와 기맥을 통하여 아편 밀수입 통한 이익으로 상해임시정부에 송금하려는 협의로 체포되어 조선으로 추방당하였던 것이다.

36) 김주용, 「1910-20년대 남만주 친일조선인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1925년 이후 일본 안동현 부영사였던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안동현에 본부를 두고, 재만주 어용친일단체로 알려진 조선인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였다(전갑생, 「청구 김우영의 '정치적 활동'과 나혜석」, 『나혜석연구』 2, 2013, 149쪽)

37) 김주용, 위의 글, 323쪽.

38) 허영백, 『광복선열 고 필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임면수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경찰 및 친일조선인을 처단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편의 밀수입을 추진하고 있던 점도 주목된다. 당시 아편의 경우 만주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다수 거래하였으며,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등지에서도 한인들에 의하여 다량의 아편이 재배되고 거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sup>39)</sup>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임면수가 군자금을 마련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송금하려는 협의로 체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임면수가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임면수는 공화제 정부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인물로서 추정된다.

그렇다면 임면수는 당시 어느 단체의 소속이었을까. 임면수는 1910년대 지역적으로는 환인현, 유하현, 통화현 등 압록강 건너 지역인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단체로는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임면수는 3·1운동 이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한족회(韓族會) 등에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리고 이를 단체들은 공화주의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던 단체들이었다. 특히 임면수와 함께 활동하다 체포된 정동수(鄭東洙)의 다음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군정서의 이면단체인 한족회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정동수는 13세 때부터 형과 함께 만주에 건너와 이곳저곳을 편력하다 1916년 앞에 적힌 거주지에 거주하였으나 1919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韓族會의 區長代理로 일하며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집하고 또한 排日新聞 「신배달」을 취급하며 양민을 선전해 온 바 있으며 오늘날에는 區長의 代理, 신문의 취급 등은 하고 있지 않으나 암암리에 不逞鮮人과 기맥을 통하여 독립운동을企圖 助勢하여 당시방의 공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름.<sup>40)</sup>

서로군정서는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에서 조직된 무장독립운동단체이다. 1919년 4월 초순 유하현 고산자에서 조직된 군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

39) 박강, 「러시아 이주 한인과 아편문제-우수리스크시 부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40) 국가보훈처, 『만주지역 재류금지관계잡전』, 2009, 120-122쪽.

여함으로써 1919년 11월 개칭된 조직으로 군자금 모집·무장활동·선전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은 독판제(督辦制)로 운영되었다. 즉 최고지휘부인 독판부 아래에 무장활동을 담당하는 사령부·참모부·참모처 등을 두었으며, 무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정무청·내무사·법무사·재무사·학무사·군무사 등을 설치하였다.

서로군정서는 1919년 11월 성립된 이후 무장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서로군정서에서는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부심하였으며, 우선 관할 지역의 한인자치기구였던 한족회로부터 군자금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족회에서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로부터 군자금을 얹출하고자 하였다. 각호(各戶)가 부담해야 하는 군자금의 액수는 일원오각(一元五角)이었으며, 1만여 호가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한족회를 통한 군자금모집 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임면수는 이러한 단체인 서로군정서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임면수는 철령(鐵嶺)으로 압송되어 가던 중, 한국인 경찰 유태철(柳泰哲)의 도움으로 중국인 여관에서 번잡한 틈타 탈출에 성공하였다. 낮에 숨고 밤에 걷는 일정으로 14일만에 길림성 이통현(伊通縣) 고유수(孤榆樹) 한인 농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 박씨 집에 은둔하였다. 그 후 장춘을 거쳐 부여현에 도착하여 안승식(安昇植)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겨울을 날수 있었다. 그러나 1921년 2월 경 길림시내에 잠입하여 활동 중 결국 밀정의 고발로 길림영사관에 체포되었다.<sup>41)</sup>

임면수는 평양감옥에 압송되어 고문과 매로 전신이 마비된 후에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sup>42)</sup> 고향에 돌아온 임면수는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병마에 시달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임면수는 1922년 8월 수원소작인상조회에 이사로 참여하는<sup>43)</sup> 한편 1923년 3월

41) 허영백, 『광복선열 고 필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42) 허영백, 『광복선열 고 필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43) 매일신보 1922년 8월 21일 〈수원소작지회설립〉 주요 간부는 다음과 같다. 池河永(고문), 羅弘錫(회장), 崔楠(부회장), 禹成鉉(이사), 金奭鎬(이사), 李圭淳(이사), 李哲培(이사), 高仁寬(이사), 林冕洙(이사), 洪思先(이사), 池公淑(평의원), 李世煥(평의원), 李相殷(평의원), 權寧億

에는 민립대학 설립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44)</sup>

1923년 5월 임면수는 삼일학교 건축물인 아담스기념관을 건립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sup>45)</sup> 그가 실제 어느 정도 이일에 헌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원으로 돌아온 임면수에게 수원의 종로교회 교인들과 삼일학교는 그의 성품과 신앙심을 믿고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기 위하여 감독을 맡긴 것은<sup>46)</sup> 아닌가 짐작해 본다. 아담스기념관을 지으면서 임면수는 만주지역 신흥무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그 당시를 그리며, 제2의 신흥무관학교로서, 민족학교로서 삼일학교를 건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주별판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그의 열기가 아담스기념관 즉, 삼일학교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조선일보 1924년 8월 22일자 〈水原幼稚園 設立〉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水原有志의 多年 企望하던 幼稚園은 各方面에 여려 가지 障碍로 實現치 못하던바 發起人 諸氏의 極力 周旋으로 去十八日 午後 三時에 水原 三一學校 講堂에서 玄錫七氏를 臨時會長으로 定하고 發起總會를 開催한바 幼稚園 設立에 對한 將來 方針을 討議한 結果 實行委員 七名을 選舉하야 事業進行에 對한 實務를 委任케하고 同 午後 六時에 閉會하였는데 實行委員 氏名은 如左하더라  
林冕洙 車明奎 崔鎮協 車泰益 李完善 金顯相 嚴柱喆 (水原)

즉, 임면수는 삼일학교 강당에서 열린 수원유치원 발기 총회에서 실행위원으로서 마지막 교육의 불꽃을 태웠던 것이다.

결국 임면수는 수원에서 1930년 11월 29일 56세의 나이로 순국하여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sup>47)</sup> 1964년 임면수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시 및 수원시민, 삼일학원 및 동창회 등의 후원으로 수원시 주최 고 펠동 임면수선생 추도식을 거행하여 기념비를 제작하고 세류동 공동묘지에서 삼일학교내 동산에

(평의원), 尹龍熙(평의원), 柳基德(고문), 朴世陽(고문), 羅重錫(고문), 俞致高(고문)

44) 매일신보 1923년 3월 24일 〈民大 발기인, 앞으로 닷새밖에〉 함께 활동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정영진, 이휘룡, 송기호, 이종철, 윤홍수, 진규환, 정순종, 이규재, 박기영, 임면수, 윤희룡, 김세환, 강성수, 김탁, 주기진, 김하윤.

45) 아담스기념관 상량문 참조.

46) 아담스기념관 빙문. 看役員으로 표기되어 있다.

47) 김세한, 『삼일학원65년사』, 삼일학원, 1968, 83쪽.

이장하여 안장하였다. 그리고 1990년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와 더불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 7. 맷음말

구한말 상동청년학원에서 활동한 임면수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하여 1912년 2월 만주 서간도 환인현 횡도천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개교한 양성중학교 교장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는 부민단의 결사대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3·1운동 이후 일제의 간도출병으로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 투옥되었다.

임면수는 구한말에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10년대에는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인물이었다. 수원 출신으로서 수원에서 활동하다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로서 임면수의 민족운동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그런 유형의 인물은 별로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면수의 만주지역으로 망명은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임면수의 만주 망명 부분은 이회영 등 6형제, 이상룡, 김동삼 등 경북 안동 출신 등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임면수는 신민회의 경기도 대표로서 만주 망명에 기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신들의 만주 망명과 임면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도 앞으로 보다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면수의 망명 부분과 관련하여 그의 부인 전현석과 아이들 문제도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임면수 망명 당시 제적부에는 2남 2녀였다. 林禹相(1892년생, 남), 學姪(1903년생), 交姪(1906년생), 德相(1907년생, 남) 등이 그들이다. 임면수, 전현석 등이 사망한 이후의 제적부에는 이름과 나이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남 3녀로서 장녀 林道相(1903년생), 차녀 林惠相(1906년생), 장남 林仁相(1909년생), 차남 林日相(1911년생), 3남 林文相(1914년생) 등이다. 위를 통하여 볼 때, 임면수가 만주로 망명할 당시 자녀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

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임면수의 만주 망명이 얼마나 큰 모험이며, 고난이었겠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만주에서의 망명생활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임면수가 만주에서 활동한 주요 지점은 환인현 횡도천, 유하현 삼원포, 통화현 합니하, 해룡현 등지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임면수는 서간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들인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한족회), 신흥무관학교 등이 있던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임면수의 만주지역에서의 활동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양성중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별칭으로 인정된다. 이 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는 수원 삼일학교에서의 교육사업 경험 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임면수는 수원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만주지역에서 교육운동과 무장투쟁을 함께 전개한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

여 백

# 필동 임면수 선생 추모활동에 관하여

염상균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표창장과 훈장증, 그리고<br>국가유공자증 |
| 2. 1964년의 추모활동                  | 4. 언론에 드러난 추모활동            |
| 1) 광복선열 필동 임면수 선생<br>추도위원회 취지문  | 1) 늘푸른 수원에 등장한 임면수         |
| 2) 필동 임면수 선생 천장식 안내문            | 2) 삼일상고의 연극공연 '아!<br>삼일이여' |
| 3) 필동 임면수 선생 천장식<br>추도사-수원시장 허철 | 3) 신흥문관학교                  |
| 4) 조사(弔辭)                       | 4) 진정한 광복은 무엇인가            |
| 3. 정부의 포상                       | 5) 임면수 본격 조명은 2015년부터      |
| 1)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                 | 5. 맷음말                     |

## 초 록

필동 임면수는 수원을 대표하는 선각자요, 독립운동가였으며, 오늘의 삼일학원과 매향학원을 세우는 등 교육자이자 신학문의 전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하였으며 일경에 체포되고 구금되면서 악랄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또한 그 고문의 영향으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묘소도 일경의 눈치를 보며 공동묘지에 격식도 차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조성되고 말았다.

1964년 수원의 각 기관장들과 유지들이 힘을 합쳐 임면수의 묘소를 그가 설립한 삼일학원 영역으로 옮기고 비석을 세우는 등 추모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이후로는 임면수를 추모하는 여타의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1974년 그의 아들 임일상에 의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 작성되었고, 증빙자료를 보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980년 표창장, 1990년 훈장증, 1996년 국가유공자증 등을 차례로 포상하였다.

200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임면수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다. 수원시정을 다루는 신문인 『늘푸른 수원』에서 임면수의 삶과 그의 손자인 임병무 시인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임병무와 그의 딸이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연극에 나란히 출연한다는 기사로 또 한 번 임면수에 대한 조명을 이끌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담론이 일기 시작하여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었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 아래 동상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을 범시민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 및 선양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광복 70주년, 독립운동가, 임면수, 신흥무관학교, 심일학원

## 1. 머리말

필동 임면수는 누구인가?

수원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임면수(林冕洙, 1874-1930)<sup>1)</sup>의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필동(必東)이다. 아버지 임진협과 어머니 송씨의 둘째 아들로 1874년 6월 13일 당시 수원면 매향리에서 태어났다. 한학을 공부하다가 19세이던 1892년 부인 전현석과 결혼하였다. 이듬해 동학에 가담하였고, 25세 때는 서울 상동 기독교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를 만나고 애국선각자들과 교류하면서 상동청년학원<sup>2)</sup>에서 수업하였다. 또한 양잠학교, 측량학교, 일어학교 등을 졸업하며 신학문을 받아들이려 노력하였다. 29세이던 1903년에는 수원 북수리 예배당에 삼일학교와 삼일여학교 설립에 기여하였다. 33세 때인 1907년, 이하영, 김제구 등과 함께 국채보상운동<sup>3)</sup>을 전개하고, 35세 때에는 삼일학교 교장, 기호홍학회 수원시지부 평의원에 선출되고, 신민회<sup>4)</sup>에도 참여한다. 36세 되던 1910년, 신민회 경기도 대표로 활동하던 중 서간도 유하현으로 망명한다. 이때 삼일여학교(현 매향중·고등학교) 부지를 회사한다. 이듬해인 1911년에는 자치기관으로서의 경학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하여 농가를 빌려 신흥강습소를 만든다. 이후 1913년 통화현 합니하로 자리를 옮겨 신흥중학교<sup>5)</sup>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키워나간다. 1916년(42세)에는 통화현 부민단 결사대에서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 1) 임면수는 한자로 林勉洙로도 쓰는데 1964년 추모위원회의 안내장 및 비석, 차남인 임일상의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 등에서 林冕洙로 썼다. 한편 그의 호를 넣어 임필동(林必東)으로도 썼다.
- 2) 1904년에 상동교회(尙洞敎會) 목사 전덕기(全德基)가 신교육운동과 교육구국의 일환으로 서울에 세운 학교로, 개화운동의 선구자인 수원의 임면수 등은 청년학원에서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를 설립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 3) 1907-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 대한 매일신보(1907년 3월 9일)에는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임면수, 이하영, 김제구 등 3인의 기독교인이 국한문 취지문을 자비로 발간, 경기 각 군에 뿐하고 불과 2.3일 만에 500여원의 연금을 모았다고 나온다.
- 4) 1907년에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이다.
- 5) 대동중학교에서 출발하여 신흥학교로, 다시 양성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활동하고,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간도까지 들어오므로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1920년 해룡현에서 일제에 체포되었다가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21년(47세) 길림성에서 체포되어 평양감옥에 수감되고 악독한 고문으로 이내 실어증에 전신마비가 오자 보석으로 풀어주었다.

수원으로 돌아온 1923년(49세) 가족의 정성어린 치료로 건강이 다소 회복되자 동지들을 찾아 기금을 모으고 미국 아담스교회의 지원을 받아 삼일학교 아담스기념관 건립에 감독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0년 11월 29일, 56세를 일기로 수원에서 순국하여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임면수 선생의 비석

1964년 세류동 공동묘지 일원이 주택 및 학교로 개발되자 수원시 주체로 삼일상고 동산에 이장하여 안장하고 기념비<sup>6)</sup>를 세웠다. 이후 1980년 정부에서

6) 비의 전면 위쪽에는 삽자가를 새겼고, 光復先烈 必東林冕洙先生之墓, 후면에는 '이곳에 우리의 위대한 선각자 임면수선생이 잠드셨다. 선생은 서기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면 매향리 (지금의 수원시 매향동)에서 나셔서 서기 1930년 11월 29일 56세를 일기로 서거하시다. 선생은 일찍이 깨달으신 바 있어 신교육의 필요를 느끼시고 당시 나중석, 이하영, 이성의, 최의환, 차유순씨 등 다섯 동지와 더불어 삼일남녀학교를 창설하시어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던 중 국운이 기울어지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고국을 떠나 서간도와 북만주 일대를 전전하시며 조국과 거례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 이 정신은 바로 예수의 희생적 정신을 본받으신 것으로 거룩한 이 교훈은 이 거례와 함께 영원히 빛나리. 1964년 4월 25일 유족 장자 일상, 장손 병화, 병무' 이렇게 새겼다.

독립운동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고, 1990년 독립운동에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1996년에는 드디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았다. 2003년에는 삼일상고 내 필동 묘역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 필동관으로 명명하였다. 2009년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묘지를 삼일동산에서 대전국립묘지(현충원)로 이장하여 안장하였다. 2015년 독립운동가 임면수선생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 오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7월 1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2. 1964년의 추모활동



세류동 공동묘지에 있던 임면수의 묘소

1930년에 서거한 임면수의 묘소는 화성 남문 밖 세류동에 조성하였다. 지금의 세류3동 신곡초등학교 주변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은 공동묘지로 조성되어 수많은 무덤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수원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옮겨올 예정<sup>7)</sup>이었고, 수원의 도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주택용지 및 학교용지가 필요해졌으므로

7) 1963.12.16. 법률 제 1538호. 경기도청 위치를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로 변경함을 공포함.

개발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신곡초등학교는 세류초등학교에서 갈라져 나왔으므로 수원역과 세류동 일대에 변화가 컸던 사실을 증명해준다.

아래의 취지문에서 천명하는 것 같이 임면수는 일제강점기 국권을 회복하여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신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겨레 만대의 융성과 번영을 도모하다가 날로 악랄해지는 일제의 탄압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본거지인 서간도로 망명한다. 이곳에서 당당하게 분투노력하다가 왜적에게 체포되어 '죄 없는 죄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게 모진 고문을 당해 쓰러져 이내 운명한다. '온 겨레의 지표'가 되는 인물이며, '수원사회 개화문명의 선구자'였고, '각종 계몽사업과 삼일학교를 설립한 선도자'로 추앙해야 마땅한데도 왜경의 날카로운 감시 때문에 호상도 못하고 일반인의 참배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오늘(1964)까지도 애국자 대우의 예도 치르지 못했고, 다례향화도 올리지 못한 채 34년이 지나 풀이 무성한 수많은 무덤 가운데 방치된 것을 개탄한다. 그래서 늦었으나마 '온 겨레의 정성을 모아 현화소향(獻花燒香)의 의례를 갖추어 영령을 추념하고 나아가 선생의 일관한 애국정신을 체행하여 유방만대(流芳萬代)의 민족정기를 양양코자 후학 일동의 발기로써 시내 각 단체 각 기관장들과 원근동지들이 추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 '이 성스러운 행사를 진행코자 이에 호소하오니 애국시민 여러분이여 많은 협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면수의 후학이면서 생존 동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후학이자 문하생 대표의 이름, 그리고 발기인의 이름을 적었다.

## 1) 광복선열 필동 임면수 선생 추도위원회 취지문

한국은 한국인의 조국이거늘 한국을 흥(興)하게 한 이도 있거니와 망(亡)하게 한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대한제국 말엽에 조정을 어지럽히던 권문세도의 간신배와 외세 편승의 국정을 농락하던 매국적(賣國賊)들의 손에서 조국은 급기야 반만년 국통이 왜노(倭奴)에게 넘겨져 온 겨레가 왜적의 철제질곡(鐵蹄桎梏) 밑에 망국노로 허덕일 때 나라를 찾고자 의사, 열사, 투사들이 접종(接踵)하여 생명을 흥모(鴻毛)와 같이 버리신 분들 중에 여명기에 처했던 수원사회에서 천장만애(天障萬碍)의 갖은 형극의 길을 헤치면서 구국구족의 횃불을 들고 독립전취(獨立戰取)에 전 생애를 바치신 애국자 필동 임면수 선생이 계셨습니다.

선생께서는 국권을 만회하여 세계열방에 국위를 선양하고 서구문명을 모방하여 신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겨레 만대의 융성과 번영을 도모하던 중 날이 갈수록 악랄한 왜적의 탄압에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으므로 뜻한 바 있어 적의 법망을 이탈하여 독립운동의 본거지요, 군사운동의 대본영인 서간도로 망명하여 당당한 광복전열에서 분투노력하시다가 시불리혜(時不利兮)로 불행히 왜적에게 체포압송(逮捕押送)되어 죄 없는 죄인으로 잔인무비(殘忍無比)의 갖은 옥고형독(獄苦刑毒)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경오년(1930) 11월 29일 정오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면서 명목(瞑目)하셨습니다.

오호라 선생이 가셨음이여! 온 겨레의 지표가 되실 뿐더러 특히 우리 수원사회에 개화문명의 선도자로서 각 계몽사업을 비롯하여 교회와 삼일남녀학교(동중, 상고, 매향중·고등학교)를 창설하여 대대로 오늘의 문화 혜택을 베푸신 선구자이시며 애국지성(愛國至誠)에 종생(終生)하신 위국사신(爲國捨身)의 광복선열이십니다. 당시 호상(護喪)의 자유도 없는 장례로서 왜경의 시독(視毒)이 심신을 찌르는 환경 중 격분(激憤)과 슬픔 속에서 쓸쓸히 운구되어 선생의 유해가 지금 수원시 세류동 공동묘지에 묻힌 후 주목(注目)과 취체(取締)로 일반의 참배조차 임의로 못하던 중 독립된 오늘날까지도 애국자 예대(禮待)의 다행화(茶禮香火) 한 번 올리지 못하고 춘풍추우(春風秋雨) 34성상 군총초평(群

塚草坪)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원 묘지 변경 전제 밑에서 우선 안정한 지대를 가려 유해를 옮겨 모셔 그 절개와 충의에 보답하는 동시에 애국애족의 위공(偉功)을 현창하여 후인들에게 시범을 주고자 이제 늦었으나마 온 겨레의 정성을 모아 헌화소향(獻花燒香)의 의례를 갖추어 영령을 추념하고 나아가 선생의 일관한 애국정신을 체행하여 유방만대(流芳萬代)의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후학 일동의 발기로써 시내 각 단체 각 기관장들과 원근동지들이 추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성스러운 행사를 진행코자 이에 호소하오니 애국시민 여러분! 차정(此情)을 승찰(乘察)하사 만강(滿腔)의 협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원(懇願)하나이다.

1964년 3월 10일

후학 선열 생존동지

허영백, 김중화, 신덕영, 오광선, 나중석, 흥사혁, 이기원, 홍수복

후학 문하생 대표

최계남, 김병갑, 김용욱, 임병두

발기인

김병호, 송순호, 이병희, 차인순, 허 철, 이실경, 흥사운, 정일환, 김태병, 이대인, 손학인, 장기홍, 이병직, 서희석, 오유봉, 김성환, 정순규

## 2) 필동 임면수 선생 천장식 안내문<sup>8)</sup>

근계 시하 중춘지제 존체만안(尊體萬安)하시고 업무 융성하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나이다. 금반 본회 회장 임일상 고 엄친께서 수원에 문학개화 시초로 삼일남녀학교를 창립하시고 해외 서북간도로 망명하시어 무관학교를 설립. 수만 독립군을 육성. 항일투쟁의 선발대로 삼십여 성상을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항쟁하시다가 일제 관현에 옥고(獄苦)로 영면하심을 수원의 제자와 서울의 생존동지 제위께서 발기. 금월 17일 광복선열로 추도 및 천장식을 거행한다 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당일 참석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적극

8) 1964년 3월 31일 광복선열 고 필동 임면수선생 추도위원회 명예회장 허철, 회장 김병호 명의로 된 안내문도 전한다. 이 안내문에서는 국가재건사업에 진력하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선정된 귀하를 위원(고문 및 위원)으로 추대하니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협조하여 주심을 앙망. 이에 안내하나이다.

서기 1964년 4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영업사진사협회 경기도지부 수원시분회 부회장 용영상 백각 회원 귀하



임일상<sup>9)</sup>은 필동 임면수의 둘째 아들이다. 장남 우상(字相)은 만주에서 20여 세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1919년 국내에 잠입하여 김세환 등과 군자금을 마련한 후 돌아가는 길에, 영하 40~50도의 추위에 10여 일 노출되어 동상을 입고 독감에 걸려 만주에서 사망하였다.

차남 일상(日相) 역시 주위에서 귀국을 권유하였으나 독립군 이청천의 부하로서 독립 전에는 귀향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1927년 사진전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길림성에서 사진업을 개업하였으며, 중국 장춘 조선일보 지국 사진기자로 활동하였다. 이후 1936년에는 상해, 1948년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1952년에는 부산에서 사진업을 개업하고 한국전쟁 후 수원으로 이주하여 1963년 수원에서 사진업(헐리운사장)을 개업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대한영업사진사협회 경기도지부 수원분회 회장을 맡았다.

9) 임일상의 아들인 임병무(시인) 등 후손이 수원에 거주한다.

임일상은 1964년 12월에 감사의 글을 올린다. '각계기관장님과 유지제현께서 물심양면의 협조와 고귀하신 정성의 덕택으로 선고의 면장을 무사히 마쳐 가문에 영광이자 불후의 유사인지라 충심으로 사의를 드린다.'며, 사후 미진한 사정이 생겨 늦게나마 인사드려 송구스럽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다. 그러면서 '수원시 팔달로 3가 96번지 헐리운사장 선열유족 소생 임일상 재배'로 마무리 한다. 그는 당시 남문 주변에서 '헐리운'(허리우드) 사진관을 운영한 것이다.

### 3) 필동 임면수선생 천장식 주도사—수원시장 허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평생을 구국 항일 운동에 바치시고 갖은 옥고와 왜제(倭帝)의 잔행(殘行)으로 득병하시어 운명하신 고 필동 임면수 선생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주도사를 드리나이다.

호국의 선열로 유명을 달리하신지 어언 삼십여 년 공동묘지의 한 모퉁이에 버림받은 채 비바람을 맞으며 고인의 뜨거운 위국충절(爲國忠節)과 위훈(偉勳)이 올바른 추앙을 받지 못하게 하였음은 심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그 죄송스러움을 무어라고 다 사귈 길이 없사옵니다.

오늘 작은 정성이나마 고인의 위업을 추모하는 뜻있는 유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여 옮겨 모시고 뜻을 이어받아 길이 추앙하고자 하오니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히 잠드시옵소서.

아울러 지하에서나마 계속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염원하시고 가호(加護)하심을 힘입어 우리 13만 수원시민이 배전의 분발(奮發)로 이 나라를 빛나게 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도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1964년 4월 25일

수원시장 허 철(許 哲)

### 4) 조사(弔辭)

광복선열고필동임면수선생주도

고 임선생의 영령 앞에 조사를 드리자니 우부졸열(愚夫拙劣)한 제가 어찌 고인의 위업을 다 표현할 수 있으리까? 마치 되를 가지고 바닷물을 재려는 어리석음 같고, 흥곡이

대봉의 뜻을 알려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 훈업을 다 측량할 수 없으나 다만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 위덕을 말씀하여 조사를 대신할까 하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제현께서는 언사의 출렬함과 내력의 미숙함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는 ‘홍안은 늙고 백발은 가서 시대를 따라 인물은 교체되고, 인생은 가고 또 다른 인생은 와서 무상한 세상은 춘몽’과 같다고 하였다. 이 조사는 임면수의 차남 일상이 사단법인 대한영업사진사협회 경기도지부 수원분회 회장이었던 관계로 당시 경기도지부장이었던 오택선이 썼다.

더구나 지도자가 아쉽고 인물이 귀한 오늘날 한국에는 어이타 이러한 위대한 분이 없는가를 회상할 때 더욱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한 번 죽음 면하지 못했듯이 얼마나 많은 인생이 허무하게 오고갔는지를 개탄한다. 그리고는,

‘고 임선생과 같이 지조 높고 절개 굳어 애국애족하신 분은 몇몇이나 되는지요?’

라고 물으면서 임면수의 위업을 부각시킨다.

선생은 뜻이 있어 기독교에 헌신하여 신문화를 받아들여 이 강토를 구하려 할 때 간교한 왜적들은 이 강산을 엿보았다. 흉악한 중·소 역시 삼천리를 탐을 내서 중·일·소·일 양차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패권 쥐고 한국강산 짓밟으며 무고한 우리 민족 반노예가 되었다. 이를 본 임선생은 분기가 충천하여 구국 구민할 양으로 기독교로 발판 삼고, 왜놈 안목 피해가며 이세국민 길러내어 애국사상을 고취시켜 한국독립 이루려고 하였다.

이런 바탕에서 수원에 삼일학교를 설립한 것과 애국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나 그것이 체포대상이 되어 삼일학교를 동지에게 부탁하고 망명한 사실도 적었다.

극비밀리에 유약한 처자를 대동하고 경기도 대표로서 망국설한을 되새기며 낮익고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낮설고 물선 오랑캐 땅 만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흥무관학교로, 경학사로, 부민회로 각종 기관에 책임자로서 교육과 지도에 진력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은 한국과 만주의 중계연락처 책임자로 선정되어 내왕, 인원수용과 침식 제공 및 각 기관 또는 학교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부부가 함께 마치 자신들의 천직으로 알고 늘 부드러운 음성에 웃는 얼굴로, '음식을 공궤하고 약을 먹이며 붕대를 갈아주면서' 조만간 독립을 볼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였다.

특히 별동대, 특파대 등 각양각색의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보따리와 물건을 건사해준다, 군인들의 무기를 간수해준다, 해진 옷을 기워준다, 젖은 감발을 말려준다, 하는 허다한 일들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시며 심지어는 하룻밤에 6~7차례나 밥을 짓고 나면 날이 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 실로 그 망국동포를 위한 애국지성을 누가 감히 측량할 자 있으리까.

이와 같이 선생댁은 독립군 총본영의 중계연락소요, 독립운동가의 휴게소요, 무기보관소며 회의실이요, 참모실이요, 보급처요, 정비실이며, 기밀실이었다.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해가며 십여 년을 보낼 때 일본의 압력은 날로 심해져서 때로는 중·일 연합 토벌작전에 당하고 때로는 일인의 기습을 받아 허다한 양민들까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할 즈음 1920년 대학살 당시 선생은 중국인 여관에서 야음을 이용하여

도피하였으나 이듬해 2월 길림영사관에서 체포되어 기막힌 고문을 겪고 기절한 것을 동지들이 업고나와 고향에 돌아왔다. 그 후 퇴만령<sup>10)</sup>으로 귀향한 가족들과 만나서 성심껏 간호를 받은 덕에 악형의 여독은 다소 풀렸지만 신경통이 심해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둘째 아들 일상의 소식을 듣고자 병든 몸을 이끌고 길림까지 갔다가 단신 환국한즉 반신불수증이 발작하여 무한한 고생을 하시다가 전생을 바쳐 달성하려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모든 비분을 풀길 없이 불행하게도 1930년 11월 29일에 향년 56세를 불귀의 객이 되시니 슬프다! 영면이여!

장남 우상은 이미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죽었으므로 차남에 대한 임면수의 사랑은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차남 일상마저도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는 귀국하지 않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며 이청천 부하로 활동하였으니 그 아비의 사랑이 병든 몸으로도 자식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 행차에서 무리했던 탓일까. 이내 임면수는 반신불수로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인생은 누구나 죽게 되지만 평생에 가신 길 그다지 험하고 고생이 많으시며 또 그렇게 원하던 조국광복을 앞에 놓고 보지 못하신 채 가시니 그 원한 어찌 필설로 다 기록하리요.

그러나 선생의 고혼은 저 천당 높이 올라 예수님 품 안에 안기어 세상에서의 고생 다 잊고 편안히 계시려니와 이에 여기 남아 있는 3천만은 언제나 복락만 가득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고 기쁨의 날을 보내게 될까요.

천당에서 예수님의 품안에 들어 세상에서 겪은 고생 다 잊어버리라고 명복을 비는 한편, 평화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싶은 당시의 염원도 함께 들어갔다.

여기 세류의 공동묘지에 안장한지 이미 34년에 이제 다시 삼일학교 묘지로 천장하는 오늘을 당하매 감구의 회포 더욱 소상함을 금할 길 없나이다.

만좌하신 여러분! 우리는 고 임 선생께 필생의 유지와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여 억만 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생들의 해야 할 본분인줄 알고 선생의 영령 앞에 다시금 맹세를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선생의 영령 앞에 이 조사를 사로며 선생의 약사를

10) 만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

되새겨보았나이다.

아! 인생의 삶이여! 장히 이러할진저!

서기 1964년 4월 25일

사단법인 대한영업사진사협회 경기도지부장 오택선 근조



1964년 12월에는 추모위원회 명예회장 허철, 회장 김병호 명의로 감사장이 발송되었다. ‘지난 4월 25일 본시 출신 광복선열 고 필동 임면수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추도 및 천장식을 거행하온 바, 각 기관장 및 유지 제현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정성을 모아 천장 및 비석 건립의 예의를 갖추어 영령을 추념하고, 나아가 선생의 일관한 애국정신을 체행하여 유방만대의 민족 정기를 이 고장 수원에서 양양케 되었으니 만강의 충성을 다하여 감사드리고자 이제 늦었으나마 서면으로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로써 1964년의 천장 및 비석 건립 등 추모 활동은 일단락되었다.

### 3. 정부의 포상

#### 1)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

임면수는 1980년 8월 14일 대통령 최규하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이로부터 10년 후인 1990년 12월 26일 대통령 노태우로부터 훈장증을 받았다. 이후 1996년 대통령 김영삼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을 받았다. 그러나 일련의 표창과 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은 유족과 독립운동단체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1974년 임면수의 차남 일상은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sup>11)</sup>'을 적는다.

(전략)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걱정하시어 민족중흥에 주야로 노심초사하고 계신 각 하께 호소를 드리게 됨을 크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역사적 사실은 밝혀야 되옵고 또한 이를 밝혀서 조상의 빛나는 얼과 업적을 자손에게 알게 하고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되오며. 어버이를 위한 자식의 도리이기에 감히 호소를 드리니 널리 부족하여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나이다. 나라와 거례를 위하여 조국광복에 신명을 바쳐 의(義)에 가신 선열들이 어찌 자신의 공훈과 업적이 뒷날 알려지고 보상 받기를 바랐겠습니까만 그분들이 자신의 안위는 돌 아보지도 않고 신명을 흥모(鴻毛) 같이 국가민족에 바쳐 민족독립의 터전을 마련하신 그 정신과 그 가르침은 우리 후손들이 깊이 간직해야 하고, 그분들의 공훈과 업적은 밝혀지고 알려져서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민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 후손에게 올바른 민족정신의 자세가 이룩되어 민족의 번영이 기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일상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노력한 선열들에 대한 견해와 자손의 도리로 후손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역사가 바로잡혀야 민족중흥도 수반되는 것이며 후손들이 올바른 민족정신을 지니게 되어야 번영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1) 이 호소문은 200자 원고지에 세로로 쓴 원고인데 아마도 초고인 듯 곳곳에 첨삭을 가했다. 이 논고에서는 원문을 최대한 살리되 가능한 한 읽기 쉽게 고치면서 긴 문장을 짧게 끊어 옮겼다.

소생의 선친인 고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는 19세기 후반 우리 강토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화하고 더욱 일제의 악독한 침략으로 국가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을 때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약관으로 동학과 의병세력과도 맥을 통하여 구국의 길을 모색 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독립협회도 찾았으며, 상동예배당의 전덕기 목사를 만나 이동휘, 노백린, 안태국, 이상재, 이동녕, 이승만 차병수, 신채호, 윤치호 등의 민족지도대열과 접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국의 길이 우선 민족을 개화 문명 시켜 역량을 키움이 급선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문을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굳힌 후 향리인 수원에 사재를 털어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유교사회의 신학문에 대한 반발과 방해는 말할 수 없이 격렬하여서 학교운영의 경비조달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모집도 곤란이 막심하였으나 구국의 일념에서 만난(萬難)을 물리치고 극복해 갔던 것입니다. 학교는 삼일남자중학교와 삼일여자중학교로서 현재의 삼일중·상고교와 매향여자중·실고의 전신이며 실로 수원사회에 신학문의 싹을 이룬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운명 속에서 임면수가 지닌 애국심의 정도가 보이는 듯하다. 매일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문을 접하고, 아울러 독립협회와 민족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구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는 수원에 내려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질서의 반발로 학교의 운영도 어려웠고, 심지어 학생 모집조차도 어렵게 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등 임면수는 수원에 큰 이바지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경향 각지의 동지들과 연계를 굳게 하여 구국운동에 정열을 쏟았습니다만, 1910년 기어코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구국전열이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민회의 경기대표로서 가족을 인도하고 남부여대로 그해 10월에 서간도로 망명하여 십여 년 간을 보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중직을 맡아 경비를 조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등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내외 구국동지들의 연락과 보호에 자진하여 그들의 숙박과 요양이며 그들의 무기와 군수품의 보관과 우송을 도맡아 간난(艱難)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이러하니 부인도 남편을 도와 그들의 숙식과 세탁, 구병시약(救病施藥) 등으로 며칠씩 계속하여 밤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주 일대에서는 만주의 구국대열 중에 이곳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돌게 된 것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일대로 옮겨가자 임면수도 가족까지 인도하여 서간도로 가서 10여 년 망명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흥무관학교의 경비 조달과 교육을 담당하였고, 그리고 그와 부인은 국내 외 구국동지들을 도와 연락처로 삼게 하고 숙식을 해결해주는 등 만주 일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1920년 왜경에 피제되어 평양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으로 전신마비의 불구가 되어 빈사지경으로 석방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갈망하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산된 가족을 만나지도 못한 채 1930년 별세하였습니다.

왜경의 탄압으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수원세류공동묘지에 박장(薄葬)하게 되었다가 1964년 4월 수원의 각기관장, 유지, 동지, 선·후배와 그 유족들의 발의로 그가 설립한 삼일중·상고교의 후림에 천장하고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총무처에 공훈심사를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경에 체포된 후 겪은 고문과 탄압은 임면수를 전신마비의 상태로 몰아갔다. 결국은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압박하여 조문도 받지 못하는 등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64년 묘를 천장하고 추모비를 세웠으며 공훈심사까지 신청했지만 10년이 되도록 결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생을 구국으로 마친 그 얼과 업적은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어버이를 위하여 정성을 다함이 자식이 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된 외로운 혼을 위로해드리는 방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못하여 자기가 세운 교육기관이면서도 오불관언의 냉대를 받아 학교 후림의 묘소마저도 다른 곳으로 천이되기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자식의 도리로 그 아버지의 공훈과 업적을 밝히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외로운 혼을 위로해주는 방법은 국가에서 그 공훈과 업적을 인정해주는 것과 번듯한 묘소를 조성하여 추모의 공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일이 당시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학교의 냉대로 묘소를 옮겼으면 하는 눈치까지 감내했으니 그 아들 일상의 속이 까맣게 탔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번 더 심사를 요청하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해달라고 사정한다.

후손이요 자식의 도리에 안타깝기 비할 데 없어 그분의 공훈과 업적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올리니 금년 3.1절에는 심사포장 해주셔서 고훈을 위로하고 아울러 선열의 후손으로서 어버이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시기를 우러러 바라옵니다.

서기 1974년 2월  
고 임면수의 유자(遺子) 임일상(64세)

임일상의 호소문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세밀하게 기록하여 호소력 짙게 작성하였을 것이다. 증빙자료 또한 더욱 보완하여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런 여러 노력의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표창장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 2) 표창장과 훈장증, 그리고 국가유공자증

표창장—제50003호

고 임면수

위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한 바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80년 8월 14일

대통령 최규하

이 증을 대통령표창부에 기입함

총무처장관 김용희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지 10년 후인 1990년 12월 26일 이번에는 훈장증을 받는다. '위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추서함'이라고 쓰고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훈장의 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노태우, 국무총리 강영훈, 총무처장관 이연택을 차례로 적고 '이 증을 건국훈장부에 기입함'이라는 작은 글씨를 적었다.

1996년에는 국가유공자증을 받기에 이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1996년 6월 1일 대통령 김영삼, 국가보훈처장 황창평

## 4. 언론에 드러난 추모 활동

### 1) 『늘푸른 수원』에 등장한 임면수

수원시정소식을 알리는 『늘푸른 수원』 2000년 2월 23일자에 「애국지사 임면수 선생, 일제 항거 독립투사, 교육선각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독립군을 양성한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 역임, 투옥과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내용 등 임면수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같은 신문 2000년 3월 1일자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무대에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씨 부녀가 극단 성의 「겨울 산에는 새가 없다」는 총체극에 나란히 출연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제 81주년 3·1절을 기념해 3월 1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에서 임씨와 딸인 수정양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 역을 맡았다. 임씨가 묵묵히 독립운동을 알리는 반면, 수정양은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기리지 못하는 후손들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해 세대 간의 의식 차이를 드러낸다.

## 2) 삼일상고의 연극 「아! 삼일이여」

한편 임면수가 설립한 삼일상업고등학교에서는 2005년 11월 11일 오후 7시 수원 남문 소재 드림플러스 소극장에서 「아! 삼일이여」 연극을 공연하였다. 1990년 한 해 동안 잠시 활동했던 연극반이 2005년에 새롭게 부활하여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이다. 연출은 정명옥, 작가는 김성열, 음악은 이승호, 지도교사는 백설, 강병호 등이었다.

연극의 내용은, 필동 임면수 선생이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기초공사로 수원 최초의 삼일중등학교를 설립하는 1막, 삼일이여! 독립운동 중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2막, 평양감옥. 매국노 고즈까이와 필동 임면수 선생의 갈등구조를 다룬 3막, 체포. 현 삼일학교 설립자 무덤의 이장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유족간의 이해관계를 다룬 4막, 무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출가는 '삼일상고 창단 공연인 만큼 필동 임면수 선생님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해요. 설립자가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이신 만큼 삼일학교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했으며, 지도교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학교 설립자이신 임면수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높이고 더 나아가 독도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민족의식 고취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

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였다.

### 3) 신흥무관학교

2012년 5월 22일자 재외동포신문에는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식 · 학술 회의'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일제강점기 해외에 건설된 최초의 항일무장독립운동 기지였던 '신흥무관학교'가 올해로 설립 101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윤경로)는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내달 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식 · 학술 회의'를 개최한다. 기념사업회 측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인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고자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경로 상임대표의 개회사, 박유철 광복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학술회의에서는 박환 수원대 교수, 한용원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강윤정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서영석 협성대학교 교수 등이 각각 발제한다.

### 4) 진정한 광복은 무엇인가

2013년 8월 13일자 경기신문 사설에는 「8·15에 생각하는 진정한 광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오늘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삼스럽게 독립투사와 후손들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수원에 거주하는 임병무씨와 과천에 사는 조길성씨의 이야기다. 시인이기도 한 이들의 삶은 빈한하기 이를 데 없다. 임병무씨의 할아버지 임면수 선생은 1919년 설립돼 폐교될 때까지 2천100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배출한 만주 신흥무관학교 6대 교장을 지낸 분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청산리 대첩에 참전했으며 친일 주구배(走拘輩) 주살 등 독립투쟁 전선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 이전엔 국가 독립 일꾼 양성을 위해 수원삼일학교를 개교, 초대 교장이 됐으며 밭을 갈며 배우자는 '경학사'를 만들기도 했다.(중략)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들은 집안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할아버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과 전 재산을 바친 탓(!)에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임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몇 년 전 뇌수술을 받은 이후 직장도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씨도 낭마주이, 주차관리원 등 거친 인생을 살았다.(중략) 그런데 대부분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은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을시오적' 이근택의 후손들은 대학총장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을 되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9건이나 낸 적도 있다. '정미칠적' 이병무 후손은 정계와 재계에 진출했으며, '경술국적' 민병석의 후손은 대법원장을 지냈다. 말이 필요 없는 매국노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은 땅 찾기에 나섰다. '그 할애비에 그 손자'다. 친일사학자 이병도의 후손들은 서울대 총장과 문화재청장까지 지냈다. 더 억장이 터지는 일은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관을 따르는 친일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명해야 하며,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위안부를 매춘부로 폄하하는가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담은 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하기도 했다. 아직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다는 임씨와 조씨의 한탄에 동감한다.

## 5) 임면수 본격 조명은 2015년부터

2015년 들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만 준비해오던 필동 임면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기를 띠었다.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겸 한신대학교 초빙교수는 1월 28일자 경기일보 기고에서, 「광복 70년 기념사업, 공존과 화해 모색하는 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략)한말 망국의 위기 속에서 수원지역에서도 국권을 회복하려는 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의병운동이 전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임면수, 김세환, 김향화, 이선경, 임순남 등 수원 지역의 선각자들이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과 친일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쟁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했던 이들의 의로운 투쟁의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외세를 물리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이분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고 건강한 시민의식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선양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히 중요한 우선적 사업과제이다.

동시에 70년째 지속되는 분단의 고통과 주변국가들 간의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대안적 논의와 모색 또한 광복70주년사업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후략)

2월 26일에는 여러 매체에서,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추진 위 발족」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일제 당시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길러낸 독립운동가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 1874~1930)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26일 오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발족했다.

이날 수원대학교 박환교수는 "필동 선생은 수원의 대표적 사립학교인 삼일학교를 세운 근대교육자이자 1907년 수원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자강운동의 선각자였다"며 "망국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을 길러내고 부민사 결사대대원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수원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인 필동 선생이 학계를 비롯한 수원지역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은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이는 학계의 직무유기로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선생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근대 인물들에 대한 발굴·재조명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상덕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경기르네상스포럼과 수원문화원, 사학계를 주축으로 시민모금운동을 벌여 8·15 광복절에 임면수 선생의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동 임면수 선생은 수원 출신으로 서울 상동청년학원을 수료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개인재산을 털어 지금의 삼일학교를 설립해 교육계몽 활동을 펼쳤다.

또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으며 1911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러나 1921년 만주 지린에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반신불수로 석방, 1930년 고문 후유증으로 수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3월 2일자 경인일보는 극단성 김성열 단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 '삼일이여, 삼일이여' 연출 김성열 극단 성 단장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를 무대로 불러와 수원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수원 삼일학교(현재 삼일 중고교)의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1874~1930)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뮤지컬 ‘삼일이여, 삼일이여’의 연출을 맡은 김성열(62) ‘극단 성’ 단장의 말이다.

김 단장은 무대 스태프로 시작해 현재 연출가로 활동하며 연극 외길 인생을 32년째 걸어온 정통 연극인이다. 그는 ‘정조대왕’과 ‘나혜석’ 등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 했다.

그는 이번 작품과의 인연에 대해 “어릴 적부터 임면수 선생의 손자와 함께 자라며 선생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삼일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선생을 알지 못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삼일이여, 삼일이여’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독립 운동가 임면수의 발자취를 헤아으며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청소년극 ‘임면수’를 무대에 올렸지만 당시에는 완벽하게 그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지원 사업에서 선정돼 일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녹여낸 독립운동가 임면수의 일대기가 온전하게 창작뮤지컬로 탄생했다.

그는 “십여 년 간 선생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쌓였던 묵은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라며 그동안의 노심초사의 드러냈다. 김 단장은 임면수 선생을 향토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작품을 ‘시민 참여의 장’으로 준비 중이다.

2011년 그가 만든 수원 최초의 일반시민으로만 구성된 ‘수원시민극단’과 함께 60대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금빛합창단’을 코리스로 작품에 참여시켰다. 아울러 지역 내 청소년 연극동아리를 참여시켜 임면수의 삶을 체험시킬 계획이다.

창작 뮤지컬 ‘삼일이여, 삼일이여’는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 제막식이 열리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첫 공연을 올린다.

김성열 단장은 이미 2007년 8월 13일에도 장안구민회관에서 직접 쓰고 연출한 ‘조선의 하늘’을 공연하였다. 역시 임면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연극으로 녹여낸 결과물이었다.

4월 20일자 경기일보에는 경기마라톤대회의 이모저모를 알리면서 이색 홍보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아시나요?”

제13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열린 19일 수원종합운동장 한쪽에서는 독립운동가 필동 임

면수 선생을 재조명하고 기념사업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활동이 펼쳐졌다. 이 같은 노력에 부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의 발길이 늘어났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임면수 선생의 애국정신에 감탄사를 연발, 일부는 후원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날 홍보활동을 벌인 한준택 사단법인 경기르네상스포럼 상임이사는 “시민들에게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을 알리기 위해 경기마라톤대회를 찾았다.”며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줘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후원회원 모집활동에는 가수 정수라 씨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정씨는 “수원에서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님을 재조명한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옛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훌륭한 일에 함께해 영광스럽고, 이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5월 6일자 일요신문은 수원대학교 아주향 교수의 「임면수를 아시나요」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나혜석과 임면수를 수원의 큰 인물로 묘사하며 글을 시작하였다.

20세기를 전후해서 수원에는 큰 인물이 둘이 있다. 자기에 충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삶이 산산이 부서져 여성해방의 모범이 된 정월 나혜석과, 잃어버린 나라 회복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쳐 노블레스 오블리주(oblige)의 모범이 된 필동 임면수. 그들을 보며 나는 묻는다. 신념은 어떻게 생길까.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가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가짜 신념 말고 진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신념의 내용과 상관없이 존중하게 된다. 그들은 삶의 심지라 해도 좋을 소중한 원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삶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마침내 삶을 던져서도 지키게 되는 원가가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나혜석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면수는 그렇지 않다.

임면수라는 사내가 있었다. 1874년 수원에서 태어난 반가의 아들이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전통교육이 그를 반듯한 양반으로 만든 모양이다. 그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던 조선을 위해 원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는 함께 살아내야 하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느꼈다. 한글도 모르던 백성이 태반인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교육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으로서 많은 것을 누린 그는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과 함께 가진 것을 털어 학교를 세웠다. 백성이 똑똑해져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였다. 그 학교가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신여성 나혜석이 나온 삼일학교였다. 그는 1907년에는 수원지역의 국체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 얼마나 큰 좌절인가. 그의 나이 서른일곱. 그 시절 서른일곱은 새로운 꿈을 꾸기 힘든 중년이었다. 모든 것을 접고 암울한 시대에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폭력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한 일제에 무릎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만주로 가서 민족학교를 세웠다. 거기서 독립군들을 키웠다. 빼앗긴들의. 그들의 봄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우리의 봄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부창부수였다. 부인 전현석은 만주에서 객주집을 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었다. 당시 독립군으로서 전 여사의 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또한 그 집은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보관소이기도 했다.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학자 박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필동 임면수 선생은 삼일학교를 세운 근대교육자이자, 1907년 수원의 국채보상을 이끈 자강운동의 선각자였다.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길러내고, 부민단 결사대 대원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 운동가였다.”

그는 결국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고문과 매로 전신마비가 되어 돌아왔으나 고향 수원에는 거처할 방도 없었던단다.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권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간 사람을 보면 분명히 우러르게 된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다. 우리의 역사 속엔 그런 피와 눈물이 있다. 신념에 의해 의지가 생기고 마음이 열려 기꺼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헌신이 있다. 그들의 불행 속엔 불행 이상이 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희생 속에서 꽂힌 것일 테니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 5. 맷음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삶을 되새기는 것은 가치가 큰일이다. 더구나 아직도 조명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신적인 유산은 올바른 역사 인식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갈 원동력이어야 한다. 우리 조상 가운데 자신의 삶보다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 선각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임면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 또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선각자가 아니었던가. 그에 대한 조명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마땅하고, 앞으로 세워질 임면수의 동상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날이 되어야 하고 주인공은 바로 우리여야 한다.

여 백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제2호

## 특집 논문 2

- 수원지방의 두레농악 전승연구  
서한범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수 | 수원민속예술단 감독
- 수원대유평두레 구성 및 판제 연구  
양근수 | 남사당놀이 이수자, 광주시립농악단 총감독
- 수원대유평두레의 미적 특징에 관한 일고  
이희병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여 백

# 수원지방의 두레농악 전승연구

서한범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현수 (수원민속예술단 감독) |

## 목 차

1. 머리말
2. 수원지역의 둔전과 두레농악
  - 1) 둔전과 농업진흥정책
  - 2) 둔전과 두레농악
3. 수원두레의 구성과 전통성
  - 1) 수원두레의 구성
  - 2) 수원두레의 전통성
4. 맺음말

## 초 록

우리민족은 농악을 통하여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래서 농악은 농업 생산량의 증대가 이루어진 조선후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악은 대체로 연희의 목적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원두레는 일반적인 농악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원두레는 축성과정, 근무형태, 그리고 왕의 거동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으며 판굿 만이 아닌 고사 굿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풍물과는 달리 경기도 무속에서 사용되는 진쇠장단과 터벌림 장단등, 경기도 도당굿의 무속장단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원지역 특유의 독

특한 가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원 두레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조사와, 현지·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원 두레의 현상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술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시적인 시각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확보된 자료를 통해 둔전과 수원 두레의 상관관계, 둔전과 수원 두레의 역사적 사실, 수원 두레의 구성, 수원 두레의 의의 및 현재의 수원 두레의 전통성과 전승 복원 과정 등 수원 농악을 고찰해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를 통하여 수원두레에 대한 전문인의 호기심을 증대하고 지역민들에게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공시적인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농악, 두레, 수원두레, 대유평, 수원대유평두레

## 1. 머리말

농악(農樂)이란 농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음악 일체를 말한다. 농악을 통하여 우리민족은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때로는 농악을 연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연희는 단순한 농악패들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다리를 놓거나, 보수, 그리고 사찰 보수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이 있다.

농악의 유래에 대해서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같은 제천의식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는데, 이는 악기, 노래, 춤을 수반하는 제천의식이 현재의 농악과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모습의 농악이 형성된 것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진 조선 후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농사 현장에서 대규모의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신명을 돋우기 위한 풍물패의 음악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이나 놀이에 두루 사용하면서 농악이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민족은 사시사철 언제든 농악을 즐겨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악은 농사의 신과 마을의 당산과 산신에게 마을의 액을 쫓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 의식이었으므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농악이란 단어는 조선시대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다. 판소리 〈춘향가〉를 보면 '두레굿'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조선시대까지 '두레굿'이라는 말이 보다 익숙하였던 것 같다. 농악이라는 표현이 글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36년 총독부에서 펴낸 『부락제(部落祭)』라는 책에서였다. 일제 강점하에서 농업 수탈정책의 하나인 농업장려운동으로 원각사의 협률사라는 단체에서 '농악(農樂)'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악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농악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농민(농사꾼)의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원래 두레굿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 스스로 농악이라고 불렸던 적은 없었고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의 하나로써 일본의 탈놀이 능악(能樂)의 발음인 '노가꾸'를 본떠서 농악이란 말을 만든 것<sup>1)</sup>이라는 설도 있다.

농악은 대개 마을마다 형성된 두레조직에 의해 연주되었기 때문에 흔히 농악과 두레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악은 두레조직만이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풍물잽이들인 걸립패 등도 농악을 치기 때문에, 농악과 두레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두레’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조직된 공동체를 말한다. 그래서 두레란 말은 상부상조와 공동노동조직으로 출락조직의 상징이기도 하다. 두레는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과 관련된 공동노동조직으로, 이양법의 확산에 따른 노동집약 형태의 농법을 반영한 마을단위의 공동노동조직이었다. 두레는 각 지역마다 여러 형태의 두레가 존재 하였으며 부르는 명칭 또한 달라 농사, 농계, 농청, 농악, 목청, 길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수원두레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축성할 때 함께 설치한 둔(屯)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둔은 과전법(科田法)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의 주둔병의 군량의 자급을 위하여 반급(頒給)하는 밭과 논을 의미한다. 이러한 둔을 운영하기 위해 둔전병들은 평시에는 둔전을 경작하여 군량을 보급하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리하여 수원두레는 군악과 농악, 굿판이 함께 어울려진 형태가 되었다.

수원두레는 점차 수원화성의 축성과정, 둔전병의 근무형태, 그리고 왕의 거동을 내포한 풍물로 발전하였으며 판굿 만이 아닌 고사 굿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풍물과는 달리 경기도 무속에서 사용되는 진 쇠장단과 터벌림 장단등, 경기도 도당굿의 무속장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기제의 민요 창법으로 특이하게 꺾는 창법과 농사의 중요성과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소망하는 사설이 담겨있다.

게다가 일반 두레와는 다르게 서얼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 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근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안성이나 평택의 농악과는 다르게 소리굿, 고사굿, 잔굿, 춤굿, 마당굿 등으로 구성 되어있어서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이 살아있는 민속예술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두레는 그 보존가치가 크며 이를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13쪽.

큰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떨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수원 농악은 그 역사성이나 예술성 등 문화재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두레의 역사적에 사실에 대한 조사와, 현지·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원 두레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술인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시적인 시각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확보된 자료를 통해 둔전과 수원두레의 상관관계, 둔전과 수원두레의 역사적 사실, 수원두레의 구성, 수원두레의 의의 및 현재의 수원두레의 전통성과 전승 복원 과정 등 수원 농악을 고찰해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원두레에 대한 전문인의 호기심을 증대하고 지역민들에게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공식적인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 2. 수원지역의 둔전과 두레 농악

### 1) 둔전과 농업진흥정책

수원의 둔전(屯田)은 정조시대 이르면서 조선의 대표적인 둔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둔전이란 원래 교통과 운송이 발달하지 못한 중세사회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하여금 황무지 또는 진전(進田) 등을 개간하고 경작케 하여 군수에 충당하는 이른바 차전차경(且戰且耕)의 군사목적용 특수목적의 땅이다.<sup>2)</sup>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훈련도감·총용청(摠戎廳)·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 등 기존의 5군영에서는 많은 둔전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1779년(정조 3년) 8월 당시 수어청 소속의 둔전은 29개 소였으며<sup>3)</sup> 같은 해 11월 양향청(糧餉廳) 소속 둔전 가운데서 실제 수세(收稅)되

2) 조선시대 둔전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재료, 「조선초기 둔전고」, 『역사학보』 29, 1965 ; 이경식,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21.22 합집, 1978 ; 정창렬, 「조선후기 둔전에 대하여」, 『이해남박사화갑기념논총』, 1970 ; 원영환, 「조선후기 둔전고」, 『유흥렬박사화갑기념논총』, 1971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2006.

3) 『正祖實錄』, 正祖 3年, 8月, 甲寅.

는 것만 해도 2천여 결에 달하였다.<sup>4)</sup> 특히, 5군영의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정조 중엽 이후 친위군영으로 부상한 장용영 관하의 둔전은 52개소에 달할 만큼 활발한 증가추세를 보였다.<sup>5)</sup> 이러한 둔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원지역의 둔전이었던 것이다.

정조는 둔전이야말로 따로 국방비를 들이지 않고도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위 11년에 각신 윤행임(尹行恁)에게 둔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였다.

둔전은 훌륭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었다. 재상 유성룡이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병 1만 명을 두고 그 반을 나누어 둔전을 경영하여 군량으로 삼으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내가 비로소 경기안의 2~3 산군(山郡)에 장영용의 항군(鄉軍) 2초(哨)를 두고 둔전을 설치해 봄·여름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고 가을·겨울에는 활쏘고 사냥하게 했다.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군사들의 늄료(廩料)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무기를 갖추는 데 쓰도록 해서 병사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게 하는 뜻을 붙였다.<sup>6)</sup>

둔전 경작민들에게는 정해진 지대 이외에 각종 추가부담이 더해지고 있었다. 둔군의 직역자로서 져야할 부담도 있었지만 둔전의 중간관리·수취자들에 의하여 가해지는 중간수탈도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종자(種子), 농우(農牛), 수세(水稅) 등 둔전의 관리와 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작인부담이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둔전인 대유둔은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둔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수원화성 장안문 밖의 넓고 척박했던 대유평은 만석거라는 수리시설에 의해서 논으로 바뀌어 둔전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

정조는 신도시 화성에서 만석거와 대유둔의 설치·운영을 성공시킨 자신감을 바탕으로 3년 뒤인 1798년(정조 22) 현릉원 입구 능행로 외편에 총둘레 683보나 되는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만년제(萬年堤)를 축조하기에 이른다.<sup>7)</sup> 또한

4) 『備邊司賸錄』, 正祖 3年, 11月, 24日.

5) 『備邊司賸錄』, 純祖 2年, 9月, 2日.

6) 『弘齋全書』, 「日得錄」7.

7) 『園幸乙卯整理儀軌』卷 3, 移文, 乙卯, 閏2月, 初1日.

만년제와 함께 정조 22년(1798)부터 새로운 저수지인 축만제(祝萬堤)를 쌓고 그 물을 사용하는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설치했다. 이러한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규모의 수리시설 축조와 함께 최신의 농업기술·협동농업 등을 활용한 둔전경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곧 벼의 생산량은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둔전 경영을 통하여 화성 성곽, 행궁 등의 보수와 장용외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물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었다.

정조의 지대한 관심 아래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농업진흥정책은 화성부의 읍민·장교·관속 등 소민들의 구휼과 생계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민생대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었다.

## 2) 둔전과 두레 농악

두레는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으로 두레패 농악, 또는 풍물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두레는 논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모심기, 논매기 등의 논농사는 그 시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 노동은 농경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노동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품앗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생활 체계로, 두레가 노력의 합리성을 강조한 제도라면 품앗이는 보다 증여(贈與)의 관념에 비중을 둔 관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공동체 생활양식에서 생성된 협동의 의미이며, 그 바탕에는 농민의 능력에 대한 평등관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경 생활에는 반드시 농악이 따랐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악은 노동 생활은 물론, 농민들의 단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악의 발달 요인 중에서 두레패들의 농경 생활과 농악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악은 두레로 노동을 할 때, 노동의 고통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농악은 두레에 부속된 필수적인 것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악이 없는 두레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악은 두레가 발달한 곳에서 성행하였으므로 농악은 농경이 발달한 평야지대에서 현저하게 발달해 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한 수원은 농업이 발달한 대평야지대이므로, 이곳에 두레농악이 발달한 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조선후기 개혁군주 정조가 만든 이상적인 농업경영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였던 수원 대유평은 두레농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유평은 정조의 이상과 꿈이 실현된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sup>8)</sup>

조으는 듯 잠자는 듯 꿈을 꾸고 누었는 듯한  
시루봉(時樓峯) 허리의 적은 암자 …중략…  
10리 장송길에 버든 대육평(大育坪)넓은 뜰에서  
들니어 오는 두레소리. 모다가 꿈이요 그림입니다  
〈華城春風曲〉<sup>9)</sup>

위의 〈화성춘풍곡〉은 1932년에 쓰여진 『별건곤』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에서도 대유평 뜰에서 두레 소리가 나는 것을 봄 풍경의 하나로 그리고 있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제시대에도 수원의 두레굿, 즉 수원 농악은 계속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정조는 자주 범람하던 진목천(眞木川)을 막아 둑을 쌓고, 수문과 갑문(閘門)을 설치하여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화성 북부의 황무지를 개간해 거대한 농장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대유둔(大有屯)이라는 점, 대유둔의 일부는 군인들에게 둔전(屯田)으로 주고, 나머지는 수원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곳에서 두레굿, 즉 농악이 일제시대까지 흥겹게 연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 수원 두레의 구성과 전통성

#### 1) 수원 두레의 구성

농악은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 매구라고도 부르고 단순히 굿이라고도 부른다.

8)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 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13쪽.

9) 崔泳柱, 「春色三千里」, 『別乾坤』 제50호, 1932.

또한 연행 주체나 목적에 따라 마을굿, 당산굿, 걸립굿, 판굿, 마당밟기(뜰밟기)라고도 하며, 연행 시기에 따라 대보름굿, 백중굿,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농악이 세시풍속과 함께 연행되어 온 것은 농악이 단순한 연희나 놀이가 아니라, 각종 세시명절에 연행되어 온 민간신앙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악은 농사일의 고된 노동을 공동체적 신명으로 푸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에서는 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하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의 진주 삼천포농악과 전라도 지역의 이리농악과 임실 필봉농악, 강원도의 강릉농악,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농악 등 다섯 지방의 농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시나 도, 군(郡)단위, 면(面)이나 리(里)단위로 대규모의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신명을 돋우기 위한 풍물패의 음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이나 놀이에 두루 쓰이기 시작하면서 농악은 발전해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악패는 악기를 연주하는 치배(잽이)와 여러 종류의 분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는 잡색(뒷치배) 그리고 각종 깃발을 드는 기수로 구성된다.

치배는 쇠(팽과리, 낑매기, 팽쇠), 징, 장구, 부, 소고의 순서로 편성된다. 마을에 따라 법고(벽구), 태평소(호적, 날라리, 새납), 나발, 영각 등을 편성하는 곳도 많다. 상쇠는 농악패의 행렬과 음악을 주도 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집안의 가신을 위한 고사소리나 덕담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잡색을 주도하는 대포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쇠 대신에 고사소리나 덕담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농악패의 기는 농기와 영기가 기본이고, 용을 그려 넣은 용기를 편성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김매려 갈 때나 김맬 때, 그리고 김매고 돌아올 때, 또한 호미걸이와 같은 축제를 벌일 때 치는 농악을 ‘두레풍장’이라 한다. 두레를 짜게 되면 두레기를 세우고 농신을 받는데, 이 두레기는 흔히 농기라 하며, 그 밖에 용기·용당기·용듯기·덕석기·농상기 등으로 불린다.

김매기가 끝나면 두레패들이 농신을 모시고 풍년을 비는 축제를 벌이는데, 이것을 호미걸이·호미씻이·두레먹기·질먹기·풋굿·술메이 쉬는 날 등으로 부르며, 배중 무렵에 논다 하여 배중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호미걸이 의식은 대개 농악을 치며 술먹고 노는 것으로 고장에 따라 다르나, 모든 고장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농신맞이(당제)·기 절받기·농사풀이·농사순방·판굿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의 농악은 일단 지역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크게 본다면 걸립농악이 크게 성행한 지역이기도 하고, 불교적 영향을 받은 농악도 다수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농악풀이농악과 판굿의 농악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경기도의 농악이 훨씬 중요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순서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 영남지방의 경우는 징과리, 징, 북, 장구, 소고의 순서로 선다. 수원과 인근 지역의 두레가 몇 명의 구성원이 악기 편성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두레풍장과 악기편성이 10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두레총원 30여 명에서 10명 미만이 풍장을 쳤다. 사물 4명, 법고 3인을 포함해도 7인 규모였다. 그러나 농기 4인(1인은 기잡이, 3인은 춤잡이), 영기 2인을 포함하면 10인이 넘었다.<sup>10)</sup>

위와 같이 실제 농사일을 위하여 구성되는 두레의 악기편성은 1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색동 큰말의 경우, 팽과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3명이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원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예비적 자원까지 포함한 숫자로 보인다. 실제로는 마을을 대표하는 상쇠가 있지만 상쇠가 유고시에는 부쇠가 상쇠의 역할을 맡았다. 상쇠와 부쇠가 한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부쇠는 상쇠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 부쇠가 상쇠를 대신 하는 법은 없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강현의 말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인원은 10명 내외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수원두레의 특징이 벽구를 반드시 편성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악기편성의 인원은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팽과리·장북·장고의 사물과 소고가 딸렸다. 사물은 필수적이나 소고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었다. 농사일에 번잡스럽다고 소고를 쓰지 않는 경우와 소고를 쓴 경우로 나뉜다. 법고는 5법고, 6법고 따위가 원칙이었다.<sup>11)</sup>

이를 통해서 보면 수원의 두레는 벽구를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일 반적으로 두레기와 영기를 담당하는 인원을 빼더라도 수원의 두레에서 악기를

10) 주강현, 「농기 의례와 놀이」, 『한국민속학보』, 1995, 95쪽.

11) 주강현, 위의 글, 95쪽.

담당하는 인원은 약 10명 정도였으며 여기에 영기와 두레기를 담당하는 인원을 합한다면 약 15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레란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다. 그렇다고 두레가 노동의 현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두레라고 하면 두레기와 영기를 담당하는 사람, 악기의 연주를 담당하는 사람의 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두레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구성원을 파악함에도 그 수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 판단한다. 다음의 「수원두레 원형 조사 보고서」에 보이는 기록은 두레의 인원을 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벼논 공동제초 17~18명으로 두둑 위 다음의 그림과 같이 농기를 세우고 그 아래는 악기 일체 및 화립(꽃으로 만든 쟁깃을 쓰고 제초하는 사람이 있다) 등을 갖춘다. 제초하면서 노래를 부른다.<sup>12)</sup>

이는 화서문밖 두레의 기록이다. 즉 군동(軍洞)이다. 농기(두레기)를 세웠다면 분명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당시의 사진 자료가 있으나 너무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라 깃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동노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17~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화서문밖 두레(군동)와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 현곡동(玄谷洞)에 대한 기록이다.

경기도 수원군 현곡동 : 중식을 위해 25~26명이 논두렁을 줄지어 간다.  
양농군(樣農軍)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sup>13)</sup>

또한 이 지역 두레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경기도 수원군 사동(蛇洞)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다.

경기도 수원군 사동(蛇洞) : 수십 명이 벼논 제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참으로 맨 앞에 공동기가 하나 뒤이어 춤을 주는 남자, 팽과리, 징, 북 등을 울리는 사람 도합 7~8명 뒤에 수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주악에 맞춰 춤을 추며 지나가는 것을 봄.<sup>14)</sup>

12) 일본농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경기도·충청도·강원도 편, 1905, 427쪽.

13) 일본농상무성, 위의 책, 1905, 427쪽.

14) 일본농상무성, 앞의 책, 426~427쪽.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혼란이 야기된다. 두레의 전체 규모를 볼 때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 팽과리, 징, 북에 5~6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 수원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악기편성과 구성인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동(蛇洞)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동의 예가 수원지역 두레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은 다음의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수원군 일왕면 율전리와 구운리의 농악대 각각 50명씩 100여 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양측에서 9명의 중경상자가 났다. 싸움의 원인은 7월 15일 두레패놀이 중 싸움이 벌어져 구운리 농악대원이 사용하던 도구를 율전리 농악대한테 전부 빼앗기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구운리 농악대원 10여명이 율전리에 농악 도구를 찾으러 갔다가 집단 패싸움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두레패들끼리의 싸움은 거의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집단 패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sup>15)</sup>

위의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농악대의 구성원들은 일반 농민들이었으며 각 마을별로 50여명씩 모여 농악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율전리와 구운리의 농악대 각 50명이라고 하였지만 두레로 구성된 마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여하튼 양지역에서 두레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은 두레는 마을의 얼굴이면서 자존심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실제로 두레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나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못하고 있다. 단 “구운리 농악대원 10여명이 율전리에 농악 도구를 찾으러 갔다가.” 하는 내용에서 악기의 운반 등을 고려한다면 두레의 규모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보인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각자의 역할이 달랐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악기를 다루는 재비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모저모를 살필 때에 구운동의 악기 편성인원은 10여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15) 1938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

16) 한 마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인원의 편성이 50명에 이를 수는 없다. 기사에서 말하는 농악대는 두레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두레는 두레기와 영기를 담당하는 사람, 악기의 연주를 담당하는 사람, 공동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농악대가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에 희박하다.

〈표 1〉 수원지역 두레 악기 편성<sup>17)</sup>

	팽가리	징	북	장고	벽구(소고)	총인원
수원지역 두레	2명	2명	3명	3명	8명	18

두레의 악기편성은 농지의 규모, 인구수 등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로 세류동 버드네의 경우, 사물에 비하여 벽구가 유난히 많은 것도 지역의 특색이며 두레의 특색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벽구와는 그 숫자가 비슷하니 수원두레에서 벽구잽이의 역할이 그 만큼 크고 중요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또한 총 인원에 있어서도 대략 18명 정도였다고 하면 주강현의 앞선 논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적어도 7~8명의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농무성의 기록은 두레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 어느 지역의 토양이 어떻고 작물이 어떠한 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 두레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인 숫자의 파악보다는 그림 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농상무에서 펴낸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경기도·충청도·강원도 편의 기록 중 경기도 수원군 사동(蛇洞)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수 십 명이 벼논 제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맨 앞에 공동기가 하나 있고 뒤를 이어 춤을 추는 남자, 팽가리, 징, 북 등을 울리는 사람 도합 7~8명, 그리고 그 뒤에 수 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주악에 맞춰 춤을 추며 지나가는 것을 봄.<sup>18)</sup>

17)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44쪽.

18) 사동(蛇洞)의 경우 수원을 비롯하여 수원과 접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도 그 마을의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목동 건너 칠보산 앞의 지역이름에 '뱀골'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는 2009년 8월 22일 매송면의 민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원말에 거주하는 박명선(87세) 어른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이다. 제보자께서는 뱀이 많아서 뱀골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논배미'의 '배미'와 같이 들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람들은 '배미'라 불렀을 것이다 이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동(蛇洞)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사동이란 화서문밖 군동 및 현곡동과 같이 인접하여 있는 지역의 이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된다. 사동이란 지명이 어느 지역에 존재하였는지는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군동과 현곡동에 접하여 있던 북둔과 남둔 사이의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춤을 추는 남자가 잡색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다음은 수원 두레가 진을 짜서 놀았느냐에 대한 고증의 과정이었다. 진이란 원래 군사 용어로 전쟁에서 양측 군대가 전투를 앞둔 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락에 따라 진풀이를 펼쳐 가며 판을 진행하는데, 원진, 방울진, 미지기진, 오방진 등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그 외 지방에 따라 특색 있는 진풀이가 있다. 그러나 수원의 두레가 진을 짜면서 두레를 놀았다는 제보를 접할 수는 없었다. 이는 임광식, 강은중, 천용식 등 원로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다만 강은중으로부터는 인근 지역의 두레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고색동과 수영리에서는 진을 짜고 놀았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고색동 큰말의 상쇠를 맡았던 전영태는 역말의 가락을 배워갔으며 그렇기에 역말과 고색동의 가락이 같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필자가 고색동에도 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색이는 역말에서 배워서.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은 역말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 짬던 진을 고색동에서 배워갔다는 말이지 본래 고색동 큰말에서 진을 짜서 놀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수영리의 경우는 필자가 “수영리에서는 진을 짜고 놀았다고 하는데?”라 하자 수영리의 가락과 역말이 같다고 하면서 “거기는 돌아 다니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좀 다르게 꾸몄다고 말했다.” 강은중의 증언으로는 역말에서 예날에 진을 짬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다만 역말에서 행하고 있는 현재의 진은 강은중씨의 주도로 형성된 것이라 파악된다.

다시 정리하면 수원과 인근지역에는 진을 짜서 놀지는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의 두레가 결립을 많이 다녔던 지역이라면 진이나 잡색을 갖추었을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 보인다.<sup>19)</sup>

## 2) 수원 두레의 전통성

수원두레는 수원주민들이 행하는 고사소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원천 우물

19)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46-47쪽.

굿, 성밟기, 입성놀이 등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마을의 안녕이나 국가의 안녕을 빌기도 한다. 또한 소리는 경기체의 민요 창법으로 특이하게 꺾는 창법과 옛 어른들이 농사에 중요성과 가족의 안녕을 소망하는 서민적인 사설이 담겨있다. 또한 서얼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단무동 놀이등 주변 지역과의 특이한 점도 없지 않다. 평택이나 안성농악과도 대조적인 고유의 소리굿이나, 고사굿, 그리고 잔굿이나 춤굿, 마당굿 등이 있는 지역 전통의 민속 예술과 마당의 풍물놀이로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만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축만제(서호)의 영향권에 놓여있던 고색동과 벽산보(碧山湫)지역인 유천의 좌우에 설치되었던 남둔인 베드네 두레가 전승되고 있으나, 만석거 아래 북둔이 설치되었던 대유평 지역의 두레는 현재 전승이 단절된 상태이다.

수원 두레의 전통성을 알아보기 위해 베드네 두레 출신으로 남사당의 마지막 상쇠로 활약했고 한국 민속예술 축제에서 개인상을 받은 임광식 명인과의 대담을 통해 수원지역 두레의 전통성과 현주소를 파악하였다.

임광식 명인은 세류동 베드네 두레 출신으로 아주 어렸을 때 세류동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마을사당에서 놀며 베드네 두레의 상쇠였던 조부 임재근에게 수원 풍물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50년대 후반 수원시에서 열리는 수원 전 지역의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그 기량을 인정받았다. 그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초대 교장인 박현봉의 요청으로 40여년간 후학을 양성해 왔다. 지금 현재는 전국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각종 명인 명무전을 통해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농악의 대표적인 농악 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와의 대담을 통해 40년대부터 현재 까지 수원지역 두레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임광식의 기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수원두레 원형 조사 보고서」에 강은중과 이원근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역말농악의 상쇠인 강은중 명인은 베드네 두레와 서둔동 두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베드네 경우 임광식이 역말로 팔려왔던 것에서 베드네 두레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한 베드네 두레의 기량이 어느 정도 뛰어났

기 때문에 베드네 출신 임광식을 초청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을 겪은 후, 1950년대 중반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수원 농악경연 대회를 통하여 수원 두레의 전통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임광식은 11~13살쯤의 어린나이에 수원시 대회에 출전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기에 수원 전 지역의 가락들과 판제, 그리고 기수와 잡색들이 비슷하여 수원의 지역적 두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둔전으로부터 발전된 수원지역 두레는 수원 전 지역이 비슷한 가락과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회가 아니더라도 수원의 큰 우시장부터 작은 시장에서까지 수원두레를 연희하였다는 증언도 함께 나왔다.

임광식의 조부인 임재근 명인(베드네 두레 상쇠)과 지동 두레 김경극 상쇠도 큰 우시장에서 함께 연희를 했다는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장사를 하기 전 사람들의 볼거리로 수원 두레를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량이 뛰어나 여러 지역에 상쇠로 많이 팔려 다녔던 임광식도 수원에 들어오면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연주했다는 추억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수원 두레는 1950년 중후반에도 다양한 용도로 연희를 하였으며, 수원 시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대유평과 서둔, 남둔에 걸쳐, 각 지역의 둔전과 두레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임광식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수원 두레를 복원하는 작업은 이 시점부터 다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 두레는 1960년대 초, 중반 장안문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수원 두레는 둔전의 두레 농악으로 시작한 이후, 도시 풍물의 형태로 점차 그 판제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그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는 수원지역은 삼남대로의 요충지였을 정도로 지리적 교통의 요지였고 그런 지리적 특색으로 인해 시장이 발달하여 상업적으로 발전되어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임광식 명인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대 수원 두레는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 지역의 이름있는 풍물꾼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남사당 출신의 김두환(팽가리), 남사당 출신인 김재원(소고) 등 남사당 출신들도 수원두레와 함께 연희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연희 활

20)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37쪽.

동은 몇 달씩 여관에 머물면서 장안문 일대부터 수원 대유둔 지역까지 연희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원의 전통적인 가락이 독자적으로 남아있다기 보다는 남사당출신들을 비롯한 각 지역의 풍물꾼들을 만나 토속적이고 지역적인 가락에서 현재의 도시적이고 화려한 가락들로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화려하게 변화된 가락들은 수원 지역의 고사굿부터 다리 걸립, 사찰 걸립 등 상업적 풍물에 쓰여 왔다는 점이다. 이후 상업적인 풍물은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오산의 세마대 걸립, 화성의 우정면, 발안면 걸립까지 확대되면서 수원지역 두레의 연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또한 이원근의 의하면 대유평의 두레농악의 존재에 대하여는 들은 적이 없으며 수원 대유평의 전승이 끊어진 가운데 수원 두레는 이미 1950년 중반에 수원지역의 가락과 진법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임광식 명인과의 대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라질 뻔한 수원 두레는 임재근의 계보를 이어받아 임광식의 농악지도로 다시 활기를 뛰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원 민속예술단 소속 예술 총감독 김현수를 비롯한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4. 맷음말

지금까지 수원두레에 관하여 기존의 문헌과 명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군주 정조가 만든 이상적인 농업경영 방식의 수원 대유평은 두레 농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진목천(眞木川)을 막아 둑을 쌓고,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화성 북부의 황무지를 개간해 대유둔(大有屯)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대단위 농사일에서 두레굿, 즉 농악이 흥겹게 연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군동(軍洞)과 현곡동(玄谷洞), 사동에 대한 기록으로 “수십 명이 벼논 제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춤을 추는 남자, 빙과리, 징, 북 등을 울리는 사람, 10여명이 줄지어 주악에 맞춰 춤을 춘다, 신문기사에 “수원군 일왕면 율전리와 구운리의 농악대 각각 50명 씩 100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는 기록들이 1900년 초엽에 수원 농악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 수원두레는 원천우물굿, 성밟기, 입성놀이와 양반들의 향락문화를 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지역의 풍물과는 달리 경기도 무속에서 사용되는 진쇠장단과 터별림 장단등, 경기도 도당굿의 무속장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넷째, 수원 베드네 농악의 임광식명인에 의하면 1950년대에 이미 수원 전 지역의 가락들과 판제, 그리고 기수와 잡색들이 비슷하여 수원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연희를 하였다.

다섯째, 대유평과 서둔, 남둔에 걸쳐, 각 지역의 둔전과 두레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임광식의 중언을 기초로 하여 수원 두레를 복원하는 작업은 이 시점부터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 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근현대사 제1권-농업근대화의 여명-」, 2008.
- 박재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 원영환, 「조선후기 둔전고」, 유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1971.
-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정조대 역사 문화 재조명-」, 신구문화사, 1996.
- 이경식,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1978.
- 이재료, 「조선초기 둔전고」, 『역사학보』 29, 1965.
- 이태진, 「한국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일본농상무성,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1905.
- 정창렬, 「조선후기 둔전에 대하여」, 이해남박사화갑기념논총, 1970.
- 주강현, 「농기 의례와 놀이고」, 『한국민속학보』 6호, 1995.
- 최홍규, 「정조의 화성 건설」, 일지사, 1997.
- 한국역사연구회편, 「한국역사입문」, 풀빛, 1995.
-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6.
- 한영우, 「정조의 화성 행차 그 8일」, 호령출판, 1998.

여 백

# 수원대유평두레 구성 및 판제 연구

양근수 (남사당놀이 이수자, 광주시립농악단 총감독)

##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호미걸이 두레     |
| 2. 둔전과 대유평 | 2) 깃발(낭대)과 기싸움 |
| 3. 두레와 걸립  | 3) 두레농악        |
| 1) 두레      | 5. 웃다리 판제      |
| 2) 걸립      | 6. 맷음말         |
| 4. 수원두레 판제 |                |

## 초 록

수원대유평두레의 구성과 판제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정조대왕의 화성축성과 둔전 또는 둔전경작의 주체인 둔전병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두레가 갖는 특징적인 요인과 다양한 두레의 실제들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남사당놀이를 통해 경기 웃다리 풍물의 판제구성을 살폈으며,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줄다리기 두레와 거북놀이 두레에 대해서도 약간의 글을 덧붙였다.

경기도의 중심인 수원두레농악은 일반적인 경기웃다리 풍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진가락 - 칠채 - 육채 - 덩더쿵이 - 자진덩더쿵이 - 엎어빼기 등 특유의 가락과 당산벌림, 오방진, 네줄백이, 사통백이 등 경기지방 특유의 판제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대유평두레는 다양한 내용과 판제가 혼재되

어 있어 정확한 판제구성의 맥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며, 여러 인물과 예능 인을 중심으로 점차 재점검하고 재구성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두레농악, 걸립농악, 웃다리 판제, 낭걸립, 대유평, 기싸움

## 1. 머리말

두레는 전통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연행된 대표적 무형유산이다. 두레농악은 마을신이나 농사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봄의 풍농 기원과 가을의 풍농 축제 등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였고 공동체의 신명을 이끌어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경기웃다리 농악의 중심에 있는 수원대유평두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와 행위들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근거와 내용들로 재정립하여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먼저 수원대유평두레는 여러 근거에서 정조 임금의 화성 축성과 화성 축성 당시 성을 쌓던 일꾼, 농사일을 하며 수원화성을 지키던 둔전병들과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유평야, 만석거, 풍년과 짐대배미(진떼백이) 등 두레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동제축원 두레인지, 또는 지신밟기형 축원두레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며 낭걸립 형태의 떠돌이 유랑 뜬패들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재인청의 무속굿과 무속행위에 나타난 잡색구조까지 포함하려는 노력들도 엿보이고 있어 혼란스러운 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속학적 견해와 토속적 견지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출다리기 놀이나 거북놀이 등은 배제되어 있으며, 두레 노동에 필수적인 노동 들노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래 수원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다양한 건립패들이 활동하던 건립농악의 본거지였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수원대유평농악 역시 비나리고사와 함께 다양한 전법과 진풀이가 가능했을 것이다. 유랑 뜬패들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재능 있는 이들은 그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면서 예능적으로 교류하였을 것이다.

경기농악은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 경기 서해안과 강원도, 충청도에 인접한 농악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농토가 비옥한 수원일대의 평야지역에서의 농악은 대동소이한 웃다리농악의 판제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원대유평 두레의 판제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보다는 마을두레, 결립두레, 민속두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점차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에서 논하고자 한다.

## 2. 둔전과 대유평

조선시대 명재상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임금에게 훈련도감(訓練都監)<sup>1)</sup>의 설치를 건의하여 1593년(선조 26)에 정병 양성을 위한 훈련도감이 편성된다. 훈련도감은 1882년(고종 19)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간 존속되었으며 포수·사수·살수의 3수병으로 분류하여 군사를 훈련시켰다.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삼수미를 받는 고정된 급료 병으로 복무했으나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둔전병(屯田兵)<sup>2)</sup>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평상시에 현지 둔전의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도모하여 군사 재원을 창출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직접전투에 투입되어 적과의 전투에 임해야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고가 비게 되어 관청의 부족한 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둔전 본래의 성격은 사라지고 관청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적인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둔전 경작을 목적으로 이민된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sup>3)</sup>

당시 화성 축성을 진행하던 정조 18년(1794)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1)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초기 편제는 명나라 척계광(戚繼光, 1528~1588)의 『기효신서』에 따른 속오법과 삼수기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를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2) 둔전병은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하여금 황무지, 진전(陳田) 등을 개간·경작한 둔전을 기반으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이념에 입각하여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3)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 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2009년 7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 김재명, 남상서, 한상구, 천용식, 이원근, 황선만, 이용세, 오수복, 임봉례, 유청자, 김문향, 임광식, 조경택, 김정택, 이창현에 대한 녹취자료 중 김문향의 인터뷰 : 둔전두레가 있다가 나중에 정조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가 지금 새로 한 처음 도시계획을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중략)… 뜰 자체가 군인들도 적어지고 그리다 보니 개인들한테도 농지가 돌아가게 되니깐 두레들이 쇠퇴되니깐…(하략)….

인해 축성공사를 중단시키고, 가뭄을 타개할 방안으로 화성 북쪽에 땅을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장안문 북쪽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조성하고 안정된 둔전 경영을 위해 거대한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sup>4)</sup> 그 결과 정조 19년(1795) 5월 18일에 만석거(萬石渠)<sup>5)</sup>가 완성되었으며, 화성지역의 대유둔전은 만석거에 힘입어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고 1795년 가을에는 766석의 대 수확을 이루었다.<sup>6)</sup>

이렇듯 정조는 둔전 설치를 통해 농촌을 이탈한 사람들에게 둔전 경작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sup>7)</sup>, 화성부의 농민들은 농토를 얻어 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성부에서는 성을 쌓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 둔전으로 일거다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up>8)</sup> 정조는 수원화성의 농업을 진작시켜 백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이루고자 했다. 특히, 만석거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대유둔전으로 농토를 새롭게 얻게 된 백성들의 생계를 안정시켰다.

정조가 사도세자 능을 화성으로 옮긴 해에 서둔동 일대에 대풍이 들었다. 큰 풍년이 드는 해는 대유년(大有年)이라 부르는데 정조는 풍년든 쌀로 혜경궁 홍씨의 잔치를 벌이며 백성들을 먹였다.<sup>9)</sup>

4) 『正祖實錄』 卷 41, 正祖 18年, 10月, 癸酉 ; 卷 41, 正祖 18年, 11月, 乙酉.

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방죽으로 1795년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네 개의 호수를 파고 방죽을 축조하였는데, 북쪽에 판 것이 만석거이다. 한편 동쪽, 지금의 수원시 지동에 죽조한 것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서쪽에 축조한 것이 수원시 서둔동의 축만제(祝萬堤, 西湖)이고, 남쪽에 축조한 것이 사도세자 묘역인 화산(花山) 현릉원(顯陵園) 앞의 만년제(萬年堤)이다. 이들 호수들은 수원화성(華城)을 축성하면서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게 되자 사관병졸들의 급료나 기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화성둔전(華城屯田)에 물을 대려고 판 것이었다.

6) 『弘濟全書』 卷 170, 「川得錄」 金載瓊 戊午錄 : 농가(農家)의 이로움으로 수리(水利)만 한 것이 없다. 겨울과 봄의 눈이 녹을 때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봄과 여름의 짹이 마를 때에 물을 내어 보내면 그 이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지금 화성(華城)의 만석거로 보더라도 제언을 축조하기 전에는 황폐한 논밭으로 잡풀만 자라는 땅이었는데 제언을 축조하고 나서는 원천(源泉)이 넓고 커서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바뀌었다. 비록 올 4, 5월과 같은 가뭄에도 제언 아래의 수백 석(石)이 나는 큰 들판은 한결같이 풍년이 들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가뭄이 재해가 되지 않았다.

7) 『華城城役儀軌』, 「附編」 2, 大有屯設置節目 : 대개 이 둔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성의 백성들의 일을 만들어주려는 큰 뜻에서 나온 것인데, 경작자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먼저 아전과 관의 노비로부터 성안의 백성들까지 그 힘에 따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며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라.

8) 『華城城役儀軌』 卷 1, 紫音, 11月, 甲寅.

이렇게 조선시대 훈련도감 등으로 시작된 병졸들의 둔전 경영과 정조는 화성 축성 당시 성에 주둔하는 병졸과 축성을 돋고 있는 일꾼들을 먹이기 위한 경작지가 필요했다. 정조는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둔(屯)을 설치하게 되고 풍년이 들자 대유둔<sup>10)</sup>이라 부르게 했다.

침대는 솟대 신양의 솟대를 부르는 말로 진대, 침대, 솟대, 솔대 등으로 불리며 솟대에는 기러기 등 새를 올려 하늘에 염원이 전해지기를 기대했으며, 대부분의 침대에는 새는 없으나 같은 의미의 신양적인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배기는 논배미에서 전해온 말로 진폐배기<sup>11)</sup>란 솟대 주변의 평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침대가 있는 평야, 침대가 있는 마을단위의 농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경도농악<sup>12)</sup>의 경우 경기도를 대표해서 두레농악을 놀았으며,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대표하는 농악을 경도농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부안읍성 침대

### 3. 두레와 걸립

#### 1) 두레

9) 시지은, 『수원지역 농악연구』, 2007, 54쪽: 유청자의 진술.

10)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김문향 : 우리가 수원에 문밖에 대유둔을 만들어 놓고 대유평이라는게 있었으니까 그냥 대유평두레라고 하자 했죠.

1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김재명 : 성당에서 쭉 올라가는 길에 고색 한의원 있는 안쪽에 두 개가 서있었죠. 솟대 옆에 엄청 큰 10미터 정도 되는 향나무도 있었어요. 지금 성당 있던 데에 두개가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는 솔대라고 그러더라구요. 조사자 : 솟대위에 새 모양 없었나요? 김재명 : 네. 없었어요.

12)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김문향 : 경도농악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경기도청 지대나깐 경도 농악이라 했죠. 그것을 누가 인용했냐 했더니 재인청에서 정종현이가 그걸 나갈 때 족보를 나가다보니깐 경도 농악이라고 했죠.

품앗이의 “품”은 노동력을 의미하며 “앗이”는 교환한다는 의미로 품앗이는 서로 간에 노동력을 교환하며 나누는 것을 말한다. 두레<sup>13)</sup>는 두르다의 고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이며 그 부사인 두루의 뜻과 같이 모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공동체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두레는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로 모든 일꾼들이 힘을 모아 큰일을 함께 해내기 위하여 짜여진 모임을 지칭한다.

두레는 마을의 공유지와 마을 성원들의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농경지의 농사 작업을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공동노동을 수행하면서 상부상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어 마을단위의 일과 노동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두레 조직은 노동력 동원 면에서 공동체적 강제성에 기초하였다. 이는 마을 전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되었기다 따라서 두레란 우리나라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공동체적 강제성을 지닌 공동 노동 조직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두레농악의 기원으로 삼국시대 신라 유리이사금조에 왕이 육부를 두 패로 나누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를 거느리고 편을 짜고 패를 나누어 큰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의 다소를 심사하여 지는 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를 한 다음 모두 함께 가무연희(歌舞演戲)를 즐기었다는 기록이 있다.<sup>15)</sup> 그만큼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의 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리고 가무연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영조(英祖)와 우의정 송인명의 대화는 두레농악을 실제적으로 유추하게 한다. “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을 할 때 혹 게을러서 힘써 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쟁과리와 북을 두드리어 사기를 진작시킨다”<sup>16)</sup>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두레농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공동

13) 두레는 원시적 유풍인 공동 노동 조직이며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촌락 단위이다.

14) 주강현, 「두레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5집, 1996, 114쪽.

15) 『三國史記』 卷 1, 『新羅本紀』 1 儒理尼師今 九月條.

16) 『英祖實錄』 卷 47, 英祖 14 年, 11 月, 乙丑: 임금이 물기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징을 어디에 쓰는가?” 하자, 우의정 宋寅明이 아뢰기를,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다가 피로해져 더러 게을리하며 힘써 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金鼓를 두드려 기운을 북돋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체의 조직을 넘어 민족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일과 놀이를 통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놀이하며 즐기는<sup>17)</sup> 독특한 문화, 흥겨운 노동문화를 이어왔다.

### ① 노동 두레농악

노동 두레농악은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놀이로 두레풍장, 두레 굿이라고도 한다. 두레농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레기(旗)를 들고 당(堂)에 가서 농신(農神)을 받는다. 두레농악은 전통적인 협동 노동의 조직으로 모내기, 풀베기, 김매기, 길쌈 등에 두레를 조직하게 되는데 주로 모심기, 김매기 때의 두레에 농악이 따른다. 두레농악은 농기, 영기, 꽹과리, 북, 장구로 편성되며, 복색은 따로 없고 일할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었다. 김매는 논 가운데 들어가서 농악을 잡히고 징은 논두렁에서 치기도 한다. 논매기하려 갈 때에는 영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대와 두레꾼들이 뒤따른다. 이때 농악대는 길가락을 연주한다. 김을 맬 때에는 농악을 치면서 농요를 부리기도 한다.<sup>18)</sup> 김매기가 끝나면 하루 날을 잡아 두레꾼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인이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데, 이것을 백중놀이, 호미씻이(꽃놀이)<sup>19)</sup>, 두레먹기, 뜬굿, 술멕이 등으로 부른다.

### ② 동제 두레농악

동제 두레농악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농악이다. 주로 마을의 신을 모신 당(堂)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제, 당산굿, 당굿 등으로 불린다.<sup>20)</sup> 동제농악은 동제당이나 당나무에 제사를

17)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노는 인간’ 또는 ‘놀이하는 인간’을 뜻한다. 이는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8) 김택규 외,『韓國의 農樂』湖南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4, 10-12쪽.

19) 김용국 · 이도남 · 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강은중 : 어르신 그러면 논매고 논 훔칠 때하고 녹음 놀이도 따로 하셨나요?, 강은중 : 녹음놀이가 아니고 꽃놀이라고 했어요. 조사자 : 봄에 하셨어요? 강은중 : 네 봄에 했어요. 조사자 : 그럼 정월달 끝나고 나서 모내기 끝나고 하는 건가요? 강은중 : 4월~5월 전에 하는 건데 모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꽃놀이 할 적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죠. 그때는 모가 조금 자란 걸 가장 한가한 시간이라 말합니다.

20) 서연호 · 김현철,『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365쪽.

울리려 갈 때에 농악대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제관, 축관, 제물을 준비한 주민 등이 따른다. 당에서 동제를 올릴 때,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쇠가락에 맞추어 절을 하면서 “서낭 서낭 서낭님 동구 밖에 서낭님”하고 외치기도 한다. 당산굿을 마치면 서낭이 내린 서낭대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돈다. 이것을 지신밟기, 마당밟기, 집돌이라고 부른다.<sup>21)</sup>

당산굿이 끝나고 서낭기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와서는 공동우물에서 샘굿을 치고, 마을 앞 다리에서는 다리굿을 치며 마을 공공의 장소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축원덕담을 한다. 다음으로는 마을이장 등 동네유지의 집을 시작으로 집돌이를 돌게 되는데 문굿-샘굿<sup>22)</sup>-조왕굿-성주굿-정지굿-장독굿-곡간굿-축간굿-마당굿 등 집안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사소리와 농악을 친다. 이때 집주인은 베, 돈, 쌀 등으로 성의껏 상에 올리고 농악잽이들을 위해 술과 음식으로 대접한다. 동제와 지신밟기를 하여 얻은 쌀과 돈은 동제의 비용과 마을의 공공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 2) 걸립

걸립농악은 건립굿, 걸궁이라고 불리며, 걸립패들이 지역사회나 특정한 단체의 공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한 농악패로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패이다. 건립의 목적에 따라 절걸립패, 낭걸립패, 다리걸립패, 나루걸립패, 서당걸립패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연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을 두레농악에 비해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sup>23)</sup>

이러한 걸립농악은 점차 고도의 공연성이 요구되었으며, 전문적인 뜬패 연희자들이 적극 가담하여 규모가 커지고 많은 인원과 내용이 화려하였다. 걸립농

21) 류보라, 『평택농악과 대전 웃다리농악 비교연구』, 전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3, 8쪽.

22)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한상구, 강은중 : 어르신 줄다리기를 하거나 정월에 우물고사 할 때 그때 가락 치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한상구 : 길가락 치다가 우물에서 고사하고 그렇지요. 길가락을 치고 동네를 돌고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물고사를 하는 거죠. 조사자 : 우물 고사 할 때 하던 가사 좀 불러주세요. 강은중 : 뚫어라 뚫어라. 샘구멍을 뚫어라. 물주쇼 물주쇼. 지하여왕님 물주쇼.

23) 서연호·김현철, 앞의 책, 2006, 371쪽.

악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도시의 장터에 포장 을 치고 마을을 돌며 유랑하던 사당패, 여성농악단, 남사당패의 연예농악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 ① 절 걸립

사찰의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랑하던 절 걸립패는 사찰에서 발행한 신임장(信任狀)을 가지고 다녔으며, 절걸립 때에는 국사기(國師旗)를 앞에서 든다. 국사기란 절에서 부처님의 뜻을 받은 신표로 광복 이후 1940년대 후반과 6. 25 이후 1950년대 후반에 성행하였다. 특히 전쟁에 피폐한 사찰의 재건과 보수를 위하여 1950년대 말기에는 숱한 걸립패가 난무하였다. 절 걸립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찰과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절을 새로 짓거나 중수 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시주받고자 하여 걸립패와 협업을 하게 된다.

절걸립은 주로 도회지나 어촌으로 다니며 걸식이나 걸숙을 하지 않고 여관방에서 유숙하고 매식을 하였다. 평택을 출발하여 동해안으로 가서 속초, 주문진, Mukho 등 해안선을 따라 부산을 돌아오기도 하였다. …불도와 사찰의 명예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켜야 했다. …절걸립의 방법은 대체로 낭걸립과 유사하였으나 유독 고사덕담이 발달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지신밟기, 터주굿, 조왕굿, 성주굿, 등을 하는 것은 비슷하였으나 꽃반을 앞에 놓고 하는 의식에는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되었다. …예컨대 고사덕담소리에는 살풀이, 삼재풀이, 호구별상풀이, 달거리, 성주풀이, 장사풀이 등 각종 풀이가 진행되는데 고사가 다 끝나면 꽃반에 놓았던 시주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로 수입원이었다. 보통 가구당 대두 1되 정도를 놓았다.

(평택농악 최은창, 이돌전과 김복섭스님의 회고담 재구성)<sup>24)</sup>

절 걸립은 사당패들이 절에서 주는 신표(信標)나 부적을 받아 들고 다니며 걸립을 하였으며, 다양한 재주와 연희로 전국을 떠돌며, 사찰측과 함께 공동모금을 하였으며, 참여한 놀이패들이 수입을 분배하여 개인수입을 삼았다. 절 걸립은 기금이 모아지면 해산하였다.

### ② 낭걸립

24) 서연호, 『한국 전승연희의 현장연구』, 집문당, 1997, 289-320쪽.

낭걸립은 서낭걸립의 준말로 서낭기에 신을 받들고 다니며 걸립을 하여 생긴 말이다. 낭걸립은 마을의 공공사업의 자금모금과 걸립패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교량을 새로 놓기 위한 다리걸립, 학교를 세우기 위한 학교걸립, 제방을 쌓기 위한 제방걸립 등 다양하며, 낭걸립패를 뜬쇠패라고 부른다. 낭걸립은 인근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된다.

낭걸립은 마을의 두레패가 자기 마을을 위해 낭걸립을 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의 패를 초청하여 낭걸립을 부탁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보통 3/7제로서 공공사업에 3을 주고 나머지 7을 참여한 놀이패들이 분배하여 개인수입을 삼았다. 낭걸립패는 서낭기, 태평소, 상쇠, 꽹가리, 설장구, 부장구, 수북, 부북, 상벅구, 부벅구, 상무동, 중무동, 새미, 짐꾼 등으로 구성된다. 낭 걸립은 보통 화주(식화주, 꼭두쇠)가 붉은 영기를 든 무동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화주는 이장을 찾아가 뜬쇠 행중임을 말하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청한다. 이장의 허락이 떨어지면 “곰뱅이 뒼다”를 외치며 영기를 흔든다. 그러면 걸립패들은 들 당산굿을 치며 마을에 도착해 문굿을 친다. 다음으로는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용왕제를 올린다. 이장은 마을을 돌며 걸립패의 숙식을 주선한다. 그러면 걸립패들은 이장집을 시작으로 집집마다 지신밟기와 고사를 지낸다. 그 후 저녁밥을 먹은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본격적인 판놀이를 벌인다. 하룻밤을 유숙하고 다음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에는 날당굿을 치며 출발한다. 낭걸립패는 추운 겨울이 되면 단원 중 일부는 떠났으며, 개인기가 부족한 가열과 빠리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다. 낭걸립은 경기도 안성, 진위(평택), 충청도 당진과 회덕, 경상도 진양과 남해, 전라도 강진과 구례, 경기도 북쪽으로, 황해도 송하와 은률 등으로 이동했다.<sup>25)</sup> 이와 관련되어서 낭걸립패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남 먹는 만큼 착실히 나이는 먹어도 가진 거라곤 늘 맨몸뚱이 하나에 익은 재주뿐. 불여먹을 한 퇴기 논밭은커녕 바람 든 삭신 접고 들어앉을 반 칸 집도, 모아둔 돈도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놀 때만은 늘상 신명이 솟구쳐 햇불빛 널름대는 너른 마당이 좁다고 귀신이 씬 듯 너나없이 미치게 돌아간다. 날나리를 불고 벽구를 치고, 땅채주를 넘고, 접시를 돌리고, 공중으로 가로지른 외줄을 탄다. 탈춤을 추고, 인형을 놀리고, 기왕에

25) 윤광봉, 『유랑예인과 꼭두각시놀음』, 밀알, 1978, 116쪽.

노는 것 눈치코치 볼 것 없이 배꼽 비틀어지게 웃으라고 걸찍한 재담도 술술 풀어낸다. 등뼈가 휙도록 육신을 놀려도 변함없이 빈손이어서, 억울하기는 빙 둘러서고 앉은 농 투성이 구경꾼이나 노는 잽이나 다들 매 한가지. 없는 설움에 쌓인 시름 죄다 털고 날 이야 새건 말건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놀아 보잔다.(여자꼭두쇠의 회고담)<sup>26)</sup>

팔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마을의 큰 마당이나 장터에서 밤 새워 놀이판을 벌이곤 했다. 간간이 쌀말이나 얻게 되면 그것으로 다음 마을까지 살림을 꾸려가곤 했다. “당시 고생을 너무 해서 생각하기조차 끔찍해. 주먹밥 한 덩어리로 허기진 배를 달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서를 달래주는 탓인지 좋아하였으나 관(官)에서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 동네 이장에게 사정 사정해서 짐자리를 마련한 뒤 공짜 구경시켜주고 걸립해서 나오곤 했어.” (박계순의 회고담)<sup>27)</sup>

#### 4. 수원두레 판제

수원대유평 두레의 판제를 구체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하나 짚어 가다 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본다면, 노동 두레는 본디 품앗이의 발전된 형태로 노동, 특히 논농사의 공동 농작을 위해서 마을 전체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경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농번기의 아침이 밝아오면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농기구를 점검하고, 오늘은 누구누구의 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를 심고 새참을 먹은 다음 어디로 이동해서 누구네 논 몇 마지기에 모를 심을지 계획하게 된다.

이어서 마을 두레를 상징하는 두레기를 앞세우고 풍물잽이들이 앞장을 서면, 일꾼들은 뒤를 따라 농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들고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풍경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회관에서는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가 울려 퍼지고, 낡은 확성기에서는 동네 주민 모두 몇 시까지 울려 나오라고 방송을 하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쉽게 연상될 수 있을 것이다.

26) 박계순, 『교보생명』 3월호, 「진정한 민초의 기예를 지키는 마지막 여자 꼭두쇠」, 1996, 99-104쪽.

27) 최홍, 『열린마당』 1월호, 「대를 잇는 사람들 박계순」, 1998, 10-13쪽.

이렇게 마을의 비좁은 길과 꼬불꼬불해서 걷기 힘든 논두렁으로 이동하던 두레 농군들은 일하기로 정한 논배미에 도착하자 논두렁에 두레기를 꼽고 본격적인 노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면, 마을회관에 모여 북으로 점고(정고) 가락을 울리고 난타 가락을 치고 - 자진가락을 치고 - 길가락 칠채를 치면서 논두렁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때 상쇠의 가락 운영에 따라 덩더쿵이 등 일반적인 가락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며, 모 심을 논에 도착한 두레 농군들은 본격적인 노동을 시작하기 전 열심히 하자는 의미의 두레 가락을 신명 나게 한바탕 울린 뒤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또한, 모를 심거나 김을 매는 과정에서 남도들노래나 상주 모심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3박자 계열의 늦은 굿거리에 맞는 상사소리(농요)<sup>28)</sup>가 함께 하게 되고 한 명(장구) 정도의 소규모 반주자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흥겹게 일했을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비좁고 평평하지 않는 논두렁에서는 다양하거나 화려한 진풀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전국 각지의 들놀음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요 상사소리는 당연히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 적은 인원의 반주자의 경우,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바쁘다는 속담처럼 농번기에는 한 명의 일손이라도 아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두레놀이는 공연물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오전일(하루일)을 마친 두레 농군들은 다시 두레기를 앞세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논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언덕을 넘어가거나 개울을 건너게 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옆 마을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두레기 싸움(기싸움)은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큰 마을 또는 인원이 많은 두레꾼 팀은 위세가 당당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두레꾼 팀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시비라도 붙거나 비등한 경우에는 두레 기싸움이 일어

28)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

인터뷰 강은중 : 호미걸이 때 어떤 식으로 놀았나요? 강은중 : 어려럴려 상사디어 이렇게 놀았어요.

나게 된다. 두레기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장한 청년들이 상대편의 꿩 장목(꿩 작목)을 뺏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기싸움의 승패는 마을의 자존심을 견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두레 농군들은 해가 지기 전에 마을회관에 다시 모여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며 신명 난 두레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7월 백중을 전후로 하여 모내기, 김매기를 마친 두레 농군들은 꼼비기, 장원례(壯元禮), 질먹기, 초연(草宴), 풋굿 등으로 불리는 호미씻이(꽃놀이)를 하게 되는데 술과 먹을거리와 술을 장만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두레풍물을 주축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마련했을 것이고 두레풍물의 진풀이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풍물 진법과 연희 내용에 대한 다소의 한계는 분명하다. 마을 구성원들만의 잔치였기에 외부의 전문 연희자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며 대회나 경연의 장이 아닌 서로 즐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진풀이 수준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축원 형태의 동제 두레농악을 살펴본다면, 정월초하루부터 대보름 까지, 또는 척사대회, 단옷날, 팔월 한가위 등 세시 절에는 일반적으로 동제 두레농악을 진행하였다. 앞서 밝힌 바처럼 동제 두레농악은 성황당에 나아가 무사와 안녕, 풍년을 빌고 공동우물굿을 치고, 가가호호를 돌며 문굿부터 판굿까지를 연주하며 지신밟기를 하였다.

동제 두레농악은 마을 지신밟기를 마친 다음 출다리기, 거북놀이를 진행하고 두레농악 진풀이 공연을 했다고 고로의 연희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 선행연구자들<sup>29)</sup>의 도움으로 본 판굿의 내용과 함께 두레농악 주변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29)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 호미걸이 두레<sup>30)</sup>

먼저 정월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이어졌던 수원지역 호미걸이의 풍경을 그려본다면, 각 각의 마을단위에서 날짜를 정하면, 지역이나 마을의 두레농악들이 적게는 5개 팀, 많게는 12개 팀들이 이웃 마을을 돌며 품앗이 형태로 참여하여 서로의 흥을 북돋아 주는 최고의 마을잔치, 신명의 축제의 밤을 이끌었다. 호미걸이 두레와 관련된 녹취자료는 다음과 같다.

강은중 : 정월 보름간 하구요.

조사자 : 걸립 다니세요?

강은중 : 그렇죠. 고사 다니죠. 고사반 하면 쌀이에요 밑창에다가 한 뒷박 놓고 그 위에 또 놓고, 그 위대 또 놓아서 수저 놓고 명태에 실을 감고 수저 옆에 놓아요. 그걸로 두레를 계속 유지해갔어요. 그리고 역말에 많으면 12두레까지 왔어요.<sup>31)</sup>

조사자 : 정월 대보름에 고사반 하는 거. 초이틀에 고사반 하는 거 호미걸이도 하셨죠?

강은중 : 호미걸이 때는 고사반이 없죠.

조사자 : 호미걸이 때 어떤 식으로 놀았나요?

강은중 : 어려럴려 상사디어 이렇게 놀았어요.

조사자 : 어르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정월초이틀부터 열사흘까지 두레를 놀면서 걸립을 한 거죠?

조사자 : 활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을 부락을 돌아다니며 했나요?

강은중 : 그렇죠.<sup>32)</sup>

조사자 : 여기 12두레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아세요?

한상구 : 다른 마을에서 오면 저희도 그 동네에서 놀아줘야 돼요. 곳집말, 배양리, 고색이, 기안2리 이거까지 밖에 모르겠네요.<sup>33)</sup>

조사자 : 그럼 무슨 두레가 왔나요?

30)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인터뷰 한상구 : 호미걸이는? 한상구 : 호미걸이는 농사 다 짓고 7월에 우리들끼리만 하는 거지. 다른 두레는 안 부르고 우리끼리만 하고 호미걸이는 어른들이랑 애들이랑 돼지 잡고 악기치고 노는 거야.

3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4쪽.

32)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8쪽.

33)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21쪽.

김재명 : 안산 일동 1리도 웠어요. 그 다음 고잔 거기두레도 웠어요. 줄다리기 할 때 거기서 올려면 3~4시간 걸리거든요. 길놀이를 쳐가면서 잘 따라왔죠.

조사자 : 기억나시는 데로 무슨 두레가 웠었는지요?

김재명 : 안산 일동, 원뜰, 양막, 오목천, 배양리, 기양리, 역말, 구운들, 골말, 사탄말(새 텃말), 버드네, 가는골, 하동두레(용인).<sup>34)</sup>

강은중 : 반고개(역말 옆), 역말, 시내말, 분천리, 보통리, 수기리, 진등, 내리, 고색이, 곳 집말, 기안리, 와우리 그리고 요 근처는 다 웠어요. 많게는 12두레, 적게는 5두레 아주 적은 건 드물어요. 평균 8두레는 계속 웠어요. 많이 올 땐 12두레죠.

조사자 : 수원과 화성이 가락이 틀린가요?

안봉현 :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안봉현 : 왜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품앗이하잖아. 그래서 다 비슷하게 치지 뭐. 예전엔 줄다리기하는데 마다 12두레 정도 모였거든 그래서 다 품앗이 했지. 품앗이를 정월 한 달 동안을 했지 동오 열 며칠부터 계속했지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녔지.<sup>35)</sup>

이렇듯 정월에 이루어지던 품앗이 호미걸이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재주를 뽐내기도 하고, 두레농악 팀들끼리 가락이나 진법들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좀 더 넓은 형태의 공동체 문화, 지역사회에서의 순기능을 만드는 협동의 시간을 만들었다. 다음은 마을축제에서 벌여진 줄다리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팀을 나누어 힘을 겨루던 풍년기원 줄다리기에 대해 살펴보자.

김재명 : 저희 집 마당에서 줄다리기를 했죠. 예전에 했었어요. 줄다리기를.

김재명 : 한 60년대 말이나 그쯤 됐어요. 하룻밤에도 불이 몇 군데나 나서 줄다리기도 했어요. 쇠를 안 올려서 그렇다 주위에서 막 그랬죠. 줄다리기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막 하겠다고 우리 집도 고사 지내달라면서 쌀 내놓고 막 그랬어요.<sup>36)</sup>

조사자 : 그럼 고사반 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줄다리기 하는 날인가요?

한상구 : 줄다리기 하는 당일 날 하죠. 뭐 다 그렇죠. 그때 되면 막 우물고사 해달라고 하죠. 보름날에 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없어서 보름날 전 일요일 날에 해요. 그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고사를 하고 밥을 먹고 10시부터 줄다리기를 했

34)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5쪽.

35)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4-121쪽.

36)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5쪽.

죠. 줄을 만들어 노면 애들이 감추고 해요. 동쪽에는 여자 서쪽에는 남자가  
그리고 그때 줄고시를 해요.

조사자 : 그러면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한상구 : 여자가 무조건 이겨요.<sup>37)</sup>

조경택 : 1년에 한 번이나 이태에 한 번씩은 여기서 보름 전후에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각처의 두레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랬  
지요.

한상구 : 고색이가 잘 놀았지. 음력 정월달에 서로 부르고 가고 그러지. 서로 술도 먹고  
놀려 다니는 거지. 농사짓는 들판이 같으면 같이 놀구 술 한 잔 하고 그러지.  
역말도 잘 놀구. 역 말 가락이나 우리 가락이랑 같아 그리고 역말이 고색이를  
많이 갔지 역말자체가 줄다리기가 컸지.

조사자 : 줄다리기는 언제 끊어졌나요?

조경택 : 한 40년 되었어요.

조경택 : 네. 정월보름을 전후해서 합니다.

조사자 : 줄다리기를 하면 편을 어떻게 나누나요?

조경택 : 이 위에서 줄을 늘이면, 위쪽에 부인들이 서던지, 아래쪽에 부인들이 서던지  
그건 결정하기에 달린 거고, 어른으로는 어른만 사용을 다니는 걸로 알고, 부  
인하고 할 때는 장가 안 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조사자 : 장가 안 간 사내아이들은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조경택 : 주로 여자들이 이긴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어려서도 보면 한참 남자들이 힘을 내서 하다가도 슬며시 줄이  
끌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sup>38)</sup>

줄다리기는 아침 10시쯤 줄 고사를 시작으로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 진행하  
였는데 세 번을 겨루어 두 번 먼저이긴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여자팀이 이겨야  
그해 풍년이 들기 때문에 남자팀은 아슬아슬하게 여자 팀에게 끼주는 것이 풍  
습이었다. 남존여비의 전통사회에서 평소 큰소리 못치고 숨죽여 살던 여성들  
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어 해방과 자유를 주는 풍습은 땅의 주인인 여성과 다산

37)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2쪽.

38)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5-152쪽 :

인터뷰 김재명 : 완전 토속신앙 두레예요. 당집 갔다가 지신밟기하고, 고사반하고, 줄고사  
지내고, 줄 가져다가 다시 줄고사 하고, 시작하기 전에 줄고사 한 번 더 하죠.

의 상징인 여성을 받들어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전통사회의 풍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다리기를 마치고 나면 저녁을 먹고 거북놀이를 시작하였다.

조사자 : 거북놀이는 언제 하는 건가요?

강은중 : 거북놀이는 팔월에는 안하고, 정월 보름날 했어요.

강은중 : 저녁에 하는 거예요.

강은중 : 저녁에 할 때도 있고 보통 낮에 하는 거예요. 11시정도에 하는 거예요.

조사자 : 낮에는 출다리기 하고나서 저녁 먹고 거북이놀이를 하셨나요?

조사자 : 그럼 거북놀이 할 때 두레가 같이 다닌 거죠?

강은중 : 그렇죠.

조사자 : 그럼 거북이 안에 누가 들어갔나요?

강은중 : 젊은 사람, 애들은 안 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조사자 : 그럼 거북이는 하나를 만드셨나요? 두 개를 만드셨나요?

강은중 : 하나만 했어요.

조사자 : 그럼 거북이 하나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나요?

강은중 : 혼자 하는 거죠.

조사자 : 작은 거북이네요?

조사자 : 대부분 거북놀이를 왜 가을에 해요. 여기는 봄에 했을까요? 정월에?

강은중 : 네 정월에 했어요. 보통 음식 걷어서 한 거지 따른 건 없어요.

조사자 : 그러면 언제부터 거북놀이를 하셨나요? 어르신 기억엔 거북놀이를 역말에서 했을 때 언제부터 했나요?

강은중 : 언제 까지는 모르고 출다리기 없어질 때까지 했어요.

조사자 : 출 다리고 나서 저녁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강은중 : 네.<sup>39)</sup>

조사자 : 여자들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거죠?

조경택 : 그렇죠. 우선 그 얘기죠.

조사자 : 여기도 암줄, 솟줄이 모양이 달랐나요?

조경택 : 다르죠. 암줄은 둥근형이고, 또 그 형은 마찬가지라도, 수놈은 좀 기다랗게 하고.

조사자 : 그래서 합궁을 시키는 거죠?

조경택 : 네.

조사자 : 그런 다음에 출을 다리는 거고요?

39)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8-109쪽.

조경택 : 네. 그렇죠. 그게 농악으로는 장면이 볼만 합니다.

조사자 : 줄 위에 남자 여자 올라가는 거죠?

조경택 : 그렇죠.

조사자 : 올라가서 합궁하면서. 그럼 남녀가 어떻게 하나요? 합궁하면서 같이 떨어지나요?

조경택 :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다시 거기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면 농악 치는 데로 해서 으쌰으쌰 해서 줄을 들죠. 번쩍 들어가면서 한참 하고 그런 다음에 줄을 놓고 합궁시키고 비녀목 꽂고 줄을 다리는 거죠.<sup>40)</sup>

이렇게 호미걸이 두레농악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저녁까지 마을잔치의 중심에서 모든 놀이를 이끌고 반주하고,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하며, 마을과 동화된 신명의 잔치를 이끌었던 것이다.

## 2) 깃발(낭대)과 기싸움

다음은 일반적으로 깃발이라 부르는 두레 농기와 마을끼리 상·하를 구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건장한 청년들이 앞장서 호기를 부리는 깃발싸움과 길을 지날 때 북을 쳐서 위아래를 구분하는 점고(정구) 대기(치기, 올리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자 : 혹시 기가 남자기 여자기 있다는 걸 들어 보셨나요?

김재명 :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기에 영 자 쓰여 있는 빨간기는 있었어요. 낭대 위에 꿩털이 떨어지면 그 두레는 진거죠. 논맬 때 저기 두레 여기두레 소리가 양쪽으로 올리니깐 싸우다가 그 꿩털 뺏는 동네가 이기는 거죠.

조사자 : 그게 기싸움이네요?

김재명 : 네. 맞아요. 기싸움이죠. 곶집말 기안리랑도 많이 싸웠죠. 여기 두레 당할 자가 없었어요. 농경시대에 농토 이웃도 서로 이웃이에요 대유평야 대유뜰 그쪽에 평동 사람들이 많이 알죠. 지금으로 예기하면 작은말 벌말 이쪽 사람들은 서호천 그걸 쓰고.<sup>41)</sup>

김정택 : 여기 농기는 지네발이 있었어요. 근데 있고 없고 차이는 몰라요. 농기는 지금

40)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52쪽.

4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7쪽.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리를 제대로 못 했죠.

김정택 : 농악을 놀고 저쪽에서, 그게 큰집 작은집이 있어요. 아목2리 분야목이 큰집이에요. 여기가 작은집이고, 농악을 치고 가다가 농기가 꽂힌 게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고 경보를 세 번 올려요. 거기서 받지. 큰집이냐 작은집이냐에 따라서. 작은집은 세 번을 치고, 큰집은 답례로 한 번 반을 쳐주나봐.

김정택 : 세 번 치는 게 원정구죠.

조사자 : 반정구를 치면 들이받는 거라면서요?

김정택 : 큰집이라고 인사라고 한 번 반만 치고 받는 거죠.

김정택 : 옛날에는 낭대잡이가 힘이 좋아야 해요. 낭대잡이끼리 쓰러트리는 시비를 한다고.

이창현 : 또 우리가 내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을 가게 되면, 북을 가지고 정구를 대요. 그럼 그쪽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빨리 나와서 대답을 해 줍니다. 정구가 원정구가 있고, 반정구가 있어요. 원정구를 대면 그쪽에서도 원정구를 대주면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고, 또 그쪽에서 반정구를 치면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논을 맬 적에는 낭대를 세워놓고 들어가요. 그럼 다른 두레때가 지나가다가 딱 보고 정구를 대죠. 그럼 반드시 후배가 선배한테 정구를 대는 거예요. 나와서 응답을 해주면 통과가 되고, 후배가 여기 서 있는데, 선배가 지나가다 딱 보면 후배가 나와서 정구를 대야 해요.

이창현 : 지나가다가 정구를 대서 어떤 쪽에서 반정구를 대잖아요. 그럼 시비조건이에요. 지역을 보명 어디가 세고 약한 것을 알잖아요.

조사자 : 어떤 경우에 반정구를 치는 건가요?

이창현 : 만약에 시비라도 한 번 불어보겠다고 하면 반정구를 대는 거지요. 두레싸움이 무섭죠. 진짜로 싸우는 거죠. 수틀리면 도망을 치는 거죠. 낭대를 뺏어서 땅 속에 쳐 박아 버리는 거야. 그럼 그 두레는 뚩두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sup>42)</sup>

낭대는 서낭대의 줄인 말로 걸립농악에 주로 쓰이고 있지만 인터뷰의 연희자들은 농기, 마을의 두레기와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 먼저 깃발의 옆에 지네발이 있는 암기, 옆의 지네발은 없으며, 아래쪽에 삼각형 3개를 다는 숫기로 구분되고 있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 진떼백이, 경도농악처럼 팀의 명칭을 쓰는 명기, 마을기, 또 삼각형 형태에 령(令)자를 쓰는 영기는 일반적으로 청색과 적색 두 가지만 들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청, 백, 적, 흑, 황의 오방색으로도 구성되고 있으며, 다리 건립, 사찰 건립 등 건립 농

42)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54-157쪽.

악의 신표로 쓰이는 낭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창현 : 우리 두레에 대해서 상식으로는, 낭대 있죠? 그 맨 꼭대기 평털, 평장모라고 하는데 그걸 서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자 : 왜 평털로 하죠?

이창현 :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집을 가게 되면 낭대를 꼭 앞에 세워가지고 가지고 행랑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안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부터 밀어요. 끝나고 나을 적에는 앞마당이 좁다 보면 들어갔다가 그냥 끌고 나오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돌려서 앞머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낭대 자체가 뒤로 끌고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평장모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조사자 : 못 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창현 : 못 돌릴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지.

조사자 : 낭대가 먼저 들어가서 낭대가 먼저 나와야 하는군요?

이창현 : 그렇지. 만약 거꾸로 나오면 옛날 같으면 난리 나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서 술을 내 오면 상에 빙쳐서 나오고 낭대 옆에 징을 놓고, 술 한 잔 부어서 정구를 대죠. 그 다음부터 먹죠. 반드시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조사자 : 깃발 인사법.

이창현 : 후배가 선배한테 먼저 절을 하게 되어있지요. 낭대를 숙이죠. 절을 하고 선배는 답례를 그냥 세워서 기폭이 아래로 오게끔.

이창현 : 팔자 비슷하게 하지만 일자로 세우고 인사를 하죠. 후배가 먼저 인사를 하면 선배가 답례를 하죠.

이창현 :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었고 한 쪽에 부락명이 쓰여 있고 그랬어요. 창단 된 날짜도 쓰여 있고 그런데 그건 기억을 확실히 못 해요.

김정택 : 정월대보름에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같이 가서 경쟁을 해요. 그것도 차차 없어지더라고. 원리보다 더 굉장히 했죠. 옛날에는 낭대잡이가 힘이 좋아야 해요. 낭대잡이끼리 쓰러트리는 시비를 한다고.<sup>43)</sup>

조사자 : 어르신 논매고 논 훔칠 때하고 녹음 놀이도 따로 하셨나요?

강은중 : 녹음놀이가 아니고 꽃놀이라고 했어요.

조사자 : 봄에 하셨어요?

강은중 : 내 봄에 했어요.

조사자 : 그럼 정월달 끝나고 나서 모내기 끝나고 하는 건가요?

강은중 : 4월~5월 전에 하는 건데 모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꽃놀이 할 적이 가장 한

43)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54-157쪽.

가한 시간이죠. 그때는 모가 조금 자란 걸 가장 한가한 시간이라 말합니다.<sup>44)</sup>

낭대를 반쯤 숙이고 인사하는 예법이나 1차, 2차, 3차의 점고 연주 등은 큰 마을, 작은 마을 또는 형님 마을, 아우 마을 등 마을 간의 서열과 위계를 나타내는 예(禮)로 볼 수 있으며 지역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7월 백중에 벌리는 호미씻이와 다르게 4월~5월경에 진행하는 꽃놀이가 특이하다 할 것이다.

### 3) 두레 농악

#### ① 복색

수원 두레농악의 복색은 흰색 광목 바지저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행전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고 파란색 조끼에 삼색 띠를 했다고 한다. 벼드네 두레는 허리에는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파랑, 빨강, 노랑의 색이지만 두레에 따라 각각의 스타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은중 : 그냥 하얀색 민복에 파란조끼 입었어요.

조사자 : 그러면 행전은 안하였나요?

강은중 : 예전에는 했는데 상놈 같다고 안하기로 했어요.

강은중 : 네. 처음엔 했었어요. 행전하면 상두꾼 같다고 해서.<sup>45)</sup>

한상구 : 다 갖춰서 했죠. 흰색 옷에 파란색 조끼도 입고 삼색 띠도 했어요. 그리고 행전도 했는데 요즘은 복색도 제대로 안 갖추죠. 귀찮아서 안하죠. 그리고 악기들은 고깔을 썼어요.<sup>46)</sup>



낭대

44)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8쪽.

45)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6쪽.

천용식 : 파란색이지 파란색 아니면 검정색이고 옛날에 검정 아니면 파란색뿐이지 뭐.  
 천용식 : 행전은 아래 매고 위에 매고 했지.<sup>47)</sup>

이창현 : 또 우리가 삼색 띠를 매죠. 그것이 천지인입니다. 빨간 것, 청색, 황색 그 세 가지이죠. 빨간색은 하늘을 말하고 청색은 땅을 말하죠, 황색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음양 아닙니까? 색깔 자체가 음양이에요.

이창현 :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황색이 우측어깨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또 어떤 데는 빨간 게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자기네가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하늘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걸로 판단한 걸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임광식 : 옛날에 바지저고리를 입고 남색 조끼를 입고 띠는 한쪽으로 쭉 매었지. 요즘은 배에도 매는데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매어. 흑포길이는 삼색 띠 길이랑 같이 맞쳤지. 남사당에서는 피줄이 댕기 고리라고 했지. 버드네는 이렇게 했지.<sup>48)</sup>

## ② 마을두레

마을굿이나 경연대회 모두 팽가리 1~3명, 징 1~2명, 장구 1~2명, 북 1~2명의 치배구성이었으며, 벽구(소고)는 육벽구~팔벽구로 대략 8잽이, 8벽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 태평소가 더해져 17명~18명의 치배구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마을굿에서는 특별한 판제구성 없이 상쇠를 따라 원형을 그리며 놀았던 것으로 보이며, 초청을 받아 가거나 경연대회에 출전할 때는 판제를 따로 구성하였으며 대략적인 연희시간은 20분에서 25분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 : 그럼 보통 마을굿 할 때 사람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강은중 : 쟁이들은 2씩 했어요. 벽구는 6명 했구요.

한상구 : 보통 악기들은 2명에서 3명은 했는데 소고는 10명 정도 했죠.

46)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22쪽.

47)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28쪽.

48)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6-156쪽.

임광식 : 팽과리는 2명이나 1명이 치고 징이나 북, 장고는 1명씩 쳤지. 소고는 무조건 팔벽구를 했지.

이창현 : 사람의 차이는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벽구도 늘어나는 거고, 팽과리도 둘이 할 수도 있고 셋도 할 수 있고, 인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요.

이창현 : 없어요. 옛날에는 벽구잽이가 여덟명. 팔벽구면 그 팀이 참 큰 팀이에요. 보통 육벽구나 오벽구 이렇게 되는데.

조사자 : 경연대회를 나가지 않으면, 마을에서 진을 짜서 놀기는 어렵겠죠?

이창현 : 그렇죠. 그건 어디고 드물어요.

이창현 : 거기는 진을 짜어요. 화성군 적에 군 행사가 있으면 시범농악으로 가요. 그럼 그때 나를 불러서 내가 같이 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진을 다 짜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짜서 움직이는 거야.

조사자 : 혹시 판 같은 것도 하셨나요? 대형을 만들고 진 같은 것도 만드셔서 하셨나요?

천용식 : 근대 우리는 그렇게 안 놀았지. 그냥 다니면서 했지.

강은중 : 네. 그리고 그때당시는 진도 없었고 그냥 돌아댕기면서 노는 거 보통 그거죠.<sup>49)</sup>

한상구 : 대형은 안 짜고요. 그냥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대회는 나갈 때 진을 짜긴 했어요.<sup>50)</sup>

강은중 : 그런데 전국대회 때 낭대랑 합쳐서 22명이었는데, 22명이 2등 했어요. 그러면 엄청 잘했지요. 돌사위 앉을 사위 다해서 했어요. 뒤집기만 빼고 다했어요. 대회 나간 지 23년 되었어요. 앉을상 하는 데가 우리랑 평택 안성뿐이 없었어요.

조사자 : 그러면 대회판으로는 몇 분 하나요?

강은중 : 진은 20~25분 뿐이에요.<sup>51)</sup>

평택농악, 화성농악, 남사당농악 등 대부분의 웃다리는 비슷한 가락을 사용했으며, 판굿의 판제 또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별한 잡색은 없었고 잡색의 추가는 요즘 만들어낸 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팽가리와 벽구잽이들을 제외하고 악기 치배들의 대부분은 요즘보다는 작은 크기의 고깔을 썼다.

49)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0쪽.

50)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21쪽.

5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06-159쪽.

조사자 : 가락이 평택과는 어떠했나요?

이창현 : 비등했어요. 같은 건데 치는 사람의 기교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들어가는 거지. 박 안에서 변형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sup>52)</sup>

조사자 : 평택 웃다리나 화성이나 가락 자체는 같죠?

임광식 : 웃다리는 다 똑같아. 판굿도 다 똑같지. 다른 것은 상모가 다르고 상쇠도 달랐지.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세류동이 잘했지. 정말 잘했어.

임광식 : 경기도나 화성 농악은 재식이 많이 있어. 팽과리가 신호를 주면은 일자로 서고 두 줄로 서고 하다가 신호를 주면은 꽉 하고 뒤집더라고. 옛날에 역말은 잘했어. 남사당 양상을 해서 잘했지. 웃다리는 뒤집기는 없는데 웃다리는 원래 양상이라서 양상을 잘했지.

조사자 : 잡색은?

임광식 : 잡색은 없었지. 버드네나 근방 두레에는 없었어. 있다면은 요즘 만들어 내는 거지.

조사자 : 수원에서 그렇게 한 곳은?

임광식 : 다른 곳은 모르지만 남사당은 원래 그렇게 했지. 경기도는 어딜 가든 똑같아. 다른 것은 남사당처럼 양상을 못 친다에 차이가 있지. 경기도는 다 똑같아.

조사자 : 버드네에 고깔을 썼나요?

임광식 : 썼지. 상모하는 사람만 흑포 쓰고 다른 악기들은 다 고깔을 썼지. 요즘 고깔은 큰데 옛날에는 작았어.<sup>53)</sup>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마을 두레에서는 특별한 진법 없이 상쇠가 끌고 가는 대로 앞사람을 따라가는 구성이며, 40년 전 두레 판굿의 대부분은 고깔을 썼고 평택의 경연 대회 이전에는 판제구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 : 예전에 했던 판은 있나요?

강은중 : 예전에는 상쇠만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그렇게 판은 있던 건 없었어요.

조사자 : 어르신 그림 평택 대회이전은 진을 짜진 않았던 거예요?

강은중 : 지금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진은 다른데 보면 다 비슷해요. 시간이 있으면 도드레기를 하는 거지.

강은중 : 40년 전에는 상모를 안 쓰고 고깔 썼어요. 상모 쓰기도 하긴 했어요.

조사자 : 판의 구성을 알고계신가요?

52)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58-159쪽.

53)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47-148쪽.

조사자 : 어르신 이게 평택 가실 때 짜신 거예요?

강은중 : 네. 그전에는 진을 안 했어요.<sup>54)</sup>

두레에서와 마찬가지로 판은 인사굿을 치고 - 길가락 칠채로 들어간다 - 다음은 삼채(덩더쿵이)치고 - 이채(자진가락)를 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은중 : 판은 처음에 시간이 없으니깐 인사도 갹갤 갹갤 개개개 개개 딱(인사굿)하고 바로 칠채로 들어가. 두레가 논매고 그럴 땐 처음에 시작하면 길가락으로 나가는 거여 우선 길가락에 대한 거를 먼저 하는 거지. 그다음 삼채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삼채를 치고 중간에 칠채를 치더라고. 이채치고.<sup>55)</sup>

동제두레는 길가락 칠채를 치고 삼채로 나가 우물굿을 치고 삼채로 도착한 다음 원으로 둘러서 인사굿을 친다. 인사굿 이후 다시 칠채를 치고 삼채로 원을 만들고 자진삼채로 명석을 말게 된다. 명석이 말린 후 다시 삼채를 치면서 원을 풀게 되는데 푸는 과정에서 8자를 2번 만들고 큰 원을 만든다.

다음은 불분명하기는 하나 웃다리 농악의 벽구놀임이나 새미놀림의 농사풀이 대목으로 부분으로 당산을 벌리고 - 벽구잽이들이 8자를 그리며 대형을 만들고 - 쟁이들의 반대편에 한 줄로 선후 - 한발씩 앞으로 나오고 - 개갤 갹개 갹깨의 상소 신호가락에 맞추어 꼭지상모(찍음상)를 치며 - 앉은 채로 - 처음에는 소고채(오른손) - 두 번째는 소고(왼손) - 세 번째는 소고와 채의 X교차(양손)를 하는 농사풀이를 한다.

농사풀이가 끝나고 삼채로 원을 만들고 - 자진삼채로 명석을 만들고 - 명석 상태에서 엎어빼기를 하는데 이때는 벽구잽이들이 원안에서 돌다가 - 자진가락으로 바뀌면 - 돌사위(연풍대)와 자반뒤집기를 한다.

강은중 : … 이제 거기하고는 다른 게 나는 길가락부터 하잖아. 나가서 처음에 삼채로 나가지. 우물굿을 하고 삼채로 나가지. 마당에 원에 섰잖아? 쉬어~ 하고 인사굿 하고 바로 칠채를 치고… 이게 자진삼채 아니여? 이게 다 말면 물어야 될 꺼 아니여? 끝머리 가서 팔자2번 만들고, 풀어서 원으로 서고 팔자 만들다가 쟁이들이 갈라지는 것도 있는데 원에서 신호를 받으면 (개갤 갹개 갹깨)

54)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2쪽.

55)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책, 2009, 112쪽.

앉아서 꼭지상모를 한다. 2번 반복 한다. 끝난 뒤 자진삼채를 치고 엎어빼기로 들어간다. 엎어빼기 할 적에 소고가 안에서 돌고 밖으로 나와서 돌사위도 하고 자반뒤집기도 하고 했다고.<sup>56)</sup>

다음은 전체 잽이들을 이끌고 을자진을 하고 - 치배 반대편에 벽구잽이를 세운 뒤 - 절구댕이 벽구(11자진)를 진행한다 - 다시 전체가 상쇠 앞에 4줄로 선 후 자진가락을 치고 네줄백이(자육띠기)를 진행한다 - 네줄백이가 끝나면, 다시 당산을 벌이고 따놀음(개인놀이)대형을 만들게 된다 - 개인놀이는 쇠, 장구, 소고, 열두발 순으로 진행하고 판을 마치게 된다.

조사자 : 그 다음 판은 어떻게 했나요?

강은중 : 그 다음은 내가 꾸민 건데 다 끝났으면 상쇠가 끌고 가서 일자로 두 줄로서서 을자진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하고 두 줄로 서있고 벽구잽이들이 서서 잽이 앞으로 와서 신호를 주면 벽구잽이는 앉았다 일어나서 꼭지상모를 하고 원쪽3번 오른쪽3번 총 개수 4번을 하고 갈라서서 앞에 사람이 뒤로 나가서 두 번째 사람은 앞으로 나가고, 사람을 나눠서 신호를 주고 두 줄로 넷 씩 썩 됐을 때 앞으로 2~3발자국 온 다음에 신호를 주면 돌아서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돌아서고, 좀 떨어져있으면 신호를 주고 한명씩 다 돌아서면 신호를 줘서 오른쪽 원쪽 한 쪽부터 신호를 주면 번갈아 가면서 앉았다 일어난다. 했던 거 다시 반대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채를 치고 맷은 후 삼채를 친다. 하나씩 나누어서 갈라서 들어온다. 이제 개인놀이를 하는 거예요.

조사자 : 개인놀이는 안하나요?

강은중 : 그런 거 할 줄 몰르니깐 못하지.

조사자 : 소고는 없었죠?

강은중 : 소고는 세 번째 했을 때 개인놀이 했지. 열 두발도 하고 판이 끝나요.<sup>57)</sup>

56)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글, 2009, 112쪽

57)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앞의 글, 2009, 112쪽

### ③ 대회 두레

임광식의 고증과 김현수의 지도로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sup>58)</sup>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원두레의 판제내용을 살펴보면 동제 두레형태와 낭 걸립형태가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두레패들은 마을 밖에 있다가 마을이장에게 화주를 보내 긴장마로 매교다리가 파손되었으니 다리건립을 위한 공연허가를 청하고 마을이장은 흔쾌히 승낙한다(외부의 뜬패가 마을로 진입). - 칠채가락을 치며 마을로 들어와 오방진을 맡고 성황당에서 당산굿을 치며 동서사방에 소리공양을 한다. - 당산을 벗어나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샘굿을 친다. - 먼저 이장집을 찾아가 문굿을 치고 들어가 집안의 우물에서 샘굿을 치고 - 터주굿(성주굿) - 조왕굿을 마치고 명석을 말아 1차 판을 마친다. - 다음은 비나리 고사로 잘 차려진 고사상 앞과 옆에 도열하여 고사반을 하는데, 주인은 치성정성으로 비손하며 기원한다. - 비나리를 끝내고 마당으로 이동하여 십자걸이와 명석말이 등으로 2차 판굿을 마친다.

판제의 구성과 내용으로 볼 때 규정된 대회시간 때문에 제대로 된 놀음을 하지 못하여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각 각의 과정구성의 깊이, 반멕 이조의 후불, 다양한 판놀음, 판속에서의 치배기량, 따놀음의 화려함 등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웃다리 농악을 상상할 수 있었다.

웃다리 농악의 판굿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의 두레형태를 복원하기 위한 판굿의 구성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수원두레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멘트와 대회용 리프렛은 이해되기 어려운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관계에 관하여는 수원화성 축조와 정조임금, 군사훈련과 군악, 군인들의 근무형태, 군악적 특징, 법도와 질서 등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발굴경위에 관하여는 운학 이동안선생과 임광식 선생에 관한 내용이다.

58) 2015년 9월 18~19일, 제 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오산종합운동장.

〈표1〉 – 경연대회 공연내용<sup>59)</sup>

구분	가락진행	판제내용
① 공연 허락 00:00~01:00	화주(곰뱅이쇠)로 보이는 인물이 마을어른을 찾아가 공연허락을 받는다.	정조의 집안과 마을풍경으로 배역들이 바 쁜 하루를 맞는다.
② 마을 입성 01:00~03:48	다스래기 – 자진가락 – 칠채 – 육채 – 육채님김 – 빠른 덩더쿵 – 자진가락 – 다스래기	길가락칠채로 마을에 들어와 명석을 말며, 육채에서 퇴진하다가 육채님김에서 전진
③ 당산굿 03:48~06:08	덩더쿵이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마을신에게 동. 서. 남. 북으로 소리를 올리 는 것으로 대형을 바꾸어 도열되면. 자진가 락으로 바꾸고 3회 인사. 다시 다른 방향 으로
④ 마을 우물굿 06:08~07:40	덩더쿵이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덩더쿵이로 읊자진을 만들며 도열. 물주소 물주소~
⑤ 문굿 07:40~09:27	덩더쿵이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덩더쿵이로 대문 앞에 도열(농기. 영기 X자 문 닫고 열기), 문엽쇼 문엽쇼~
⑥ 집안 우물굿 09:27~10:53	덩더쿵이 – 엎어빼기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도열 후. 물주소 물주소~
⑦ 터주굿 10:53~12:20	덩더쿵이 – 엎어빼기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도열 후. 누르세 누르세~
⑧ 조왕굿 12:20~13:30	덩더쿵이 – 엎어빼기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도열 후. 조왕대신~
⑨ 명석말이 13:30~15:00	엎어빼기 – 자진가락 / 덩더쿵이	엎어빼기와 자진가락으로 명석을 말고 다 시 덩더쿵이로 풀어나옴
⑩ 고사반 15:00~18:30	자진가락 – 비나리(선불) – 자진가락 – 터는 가락(3회)	고사상 앞에 도열한 후 비나리 진행. 마치 면서 절3회
⑪ 십자걸이 18:30~19:50	덩더쿵이 – 자진가락 – 자욱띠기 – 덩더쿵이	비나리를 마치고 악기치배들이 먼저 종으 로 서면, 다른치배들은 횡으로 선다. 자진 가락과 자욱띠기 가락(3진3퇴)을 마치고 빠 른덩더쿵이
⑫ 명석말이 19:50~20:40	빠른 덩더쿵이 – 자진가락	빠른 덩더쿵이로 십자걸이에서 벗어나(벽구 잽이 절구댕이) 끝내고 사통백이로 이동하 는 모양) 명석을 말아 자진가락으로 맺는데 옆뛰기와 돌사위
⑬ 마을나가기 20:40~21:15	퇴장장단-자진가락	시간부족으로 보이며, 퇴장후 자진가락으로 마무리

59) 2015년 9월 18~19, 제 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오산종합운동장, 공연내용분석

또한 수원두레의 특징으로 수원축성, 군인들의 근무형태, 원천우물굿, 성밟기, 입성놀이, 양반문화와 해학, 소망을 비는 사설(비나리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얼남매의 억울한 사연, 단무동놀이, 경기제 소리굿, 고사굿(비나리로 이해할 수 있다), 진굿, 춤굿, 마당굿 등이 있다고 한다. 놀이시기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이다.

구성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인 웃다리풍물 소개이며, 새미, 탈광대에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나 이들 배역은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굿은 인사굿, 돌림벽고, 소리굿, 겹돌림벽고, 당산벌림, 양상치기, 허튼양상치기, 오방진, 무동놀이, 쌍줄백이, 가세벌림, 좌우치기, 네줄백이, 밀치기법고, 개인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진행과정으로 입장굿 – 인사굿 – 겹돌림벽고 – 당산벌림 – 양상치기 – 허튼양상치기 – 오방진 – 가세벌림 – 따법고 – 십자진 – 밀치기법고 – 개인놀이 등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표에 나타난 경연내용과 리프렛의 소개내용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굵은 글씨의 다른 글자체). 수원화성 축조와 정조임금, 군사훈련과 군악, 군인들의 근무형태, 군악적 특징, 법도와 질서는 경연내용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서얼남매의 억울한 사연, 단무동 놀이, 경기제 소리굿, 춤굿, 마당굿 등의 내용 역시 찾아보기 힘들며, 심지어 새미의 역할과 탈광대 역할의 배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유와 원인은 모르지만 수원두레의 원형을 찾아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배경에 대해 다소 이해되기는 하지만 소개내용과 실제진행의 커다란 차이를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 5. 웃다리 판제

농악은 경기도 전체에 널리 분포한다.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및 동부 등에 골고루 농악이 존재한다. 경기도 북부에는 경기도 이북의 가락이 존재하고, 경기도 남부에는 충청도와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예술적으로 세련된 웃다리 가락의 우세 속에 다종다양의 토박이 가락이 존재한다. 영서 지방과 인접한 경기도

동북부는 영서농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도 농악도 아닌 혼합된 가락이 존재한다. 그래서 경계면에 선 독특한 농악가락을 선보인다.<sup>60)</sup>

전국적으로 볼 때, 여러 유형의 농악들이 존재한다. 메구, 풍장, 두레, 풍물, 군물, 판굿 등 다양한 이름의 농악은 전통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우리민족의 일상사의 여러 생활과 함께 해오고 있다. 동제, 성황제 등 풍년 축원을 비는 농악, 어촌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어제 형태의 농악, 가가호호를 돌며 집안의 안택을 비는 지신밟기 농악, 남사당패처럼 떠돌이 유랑집단이 벌이는 고사굿형태의 낭 걸립농악, 장터 너른 마당을 빌려 포장을 치고<sup>61)</sup> 벌이는 판굿 형태의 연예 농악, 해방이 후 경연 대회가 생기자 서로간의 경쟁을 벌이는 경연 대회 판제 농악, 거북놀이, 줄다리기, 씨름판, 단오, 차전놀이, 동체싸움 등 세시절과 민속놀이와 함께 진행하는 민속놀이 농악, 들노래, 모심기노래 등 노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노동요 농악 등이 있다.

경기농악 역시 이러한 배경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들에 의해 약간의 변형과 변화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이 갖는 토속적 전승력은 오늘날 웃다리농악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수원농악은 사찰 걸립과 낭걸립 등 전문 뜬패들이 진행하던 패들이 걸립농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한 곳으로 독자적인 농악권역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용인기흥의 서천농악은 서천리(서그내)와 농서리(용수골)의 두레 싸움이 유명했었다. 이 싸움은 파종이나 모내기가 끝나고 2~3개월 후인 칠석이나 백중 무렵, 일손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풍년은 기원하며 많이 행해졌다. 힘들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사일은 하면서, 협동과 단합, 품앗이를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을 단위로 농가의 조직체로서 구성된 두레를 중심으로 이 놀이가 이어져 왔다. 서천리의 두레 싸움은 농사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들로 나가는 서그내 마을과 용수골 마을 두레가 만나 인사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해와 의견 차이로 일종의 텃세 싸움이 벌어지는데, 상대방 두레의 기장복을 뽑음으로써 승패를 가리는 일종의 민속놀이이다. 특히 두레 싸움 중 파손되거나 손해 본 물품들에 대해서는 변상·수리해주고 형제의 의를 새롭게 맺는다. 그리고 합굿을 치며 한 마당 놀이판을 벌여 인근 두 마을이 서로 화합한다.<sup>62)</sup>

6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6, 17쪽.

61) 노천명의 남사당이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안성은 예로부터 풍물이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조선 고종 2년 경복궁 중건 때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덜어주고자 농악대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안성 돌우물 농악대(현재는 안성읍 석정동)가 가장 기예가 뛰어나 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 받기도 하였던 지역이다. 바우덕이 때로 널리 알려진 안성 개다리패, 안성 개다리패의 후대로서 경기 이북을 주로 순연하며 타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복만이패 등 남사당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김기복 선생을 중심으로 남사당놀이가 다시 발굴되어 안성 풍물놀이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에 공연자들의 공연 역량이 뛰어나고, 작품도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sup>63)</sup>

이천 거북 놀이는 풍물굿을 중심으로 한 잡색 놀이의 일종이다. 즉, 수명 장수를 비는 거북이와 질라아비를 등장시키는 잡색 놀이이다. 전라도의 일광 놀이나 도둑 잭이 같은 것인데, 이천의 특이한 점은 거북이라는 영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이다. 거북 놀이의 구성은 일반 풍물굿의 당굿과 지신밟기와 판굿을 합한 것과 같은 구성이다. 그 구성은 길놀이, 장승굿, 우물굿, 마을판굿,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마당놀이로 되어 있다.<sup>64)</sup>

평택농악은 일찍이 기름진 곡창지대로 알려져 농업이 번성하였던 곳이다. 그로 인해 마을 풍물 굿 중 노작음악 형태의 '농악'이 경기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발달하게 된다. 평택농악이 남사당 출신들과 결립패 출신들의 '전문예인 집단'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면 평택두레풍물은 기예 자체는 인근 남사당, 결립패에서 닦은 것이지만 전문 예인화 하지 않고 농업을 생업으로 삼으며 노작 풍물 굿의 면면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65)</sup>

평택 농악은 분류상으로는 마을굿도 아니고 결립굿도 아니다. 원래 마을굿 적 요소가 있었으나 뛰어난 명인이 있는 곳이면 대개 그렇듯이 이어 결립굿이 융성했고, 그 마을굿 자체가 아닌 요소들이 그 명인들에 의해서 도입되면서 그 두 굿은 섞이게 되었다. 더구나 기예 풍물굿을 대변하는 남사당굿이 섞이면서

6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풍물굿』, 2001, 240쪽.

63)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1, 169쪽.

64)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1, 281쪽.

65) 경기문화재단, 위의 책, 2001, 64-65쪽.

그 지역을 대변하는 풍물굿으로 변모가 되어왔다. 어쩌면 풍물굿의 변천과정, 아니 정확하게는 생존 과정과 일치하면서 발전과 쇠락을 같이 해온 표본 같은 곳이다.<sup>66)</sup>

수원 인근의 용인, 안성, 이천, 평택 등 경기도 농악 대부분은 남사당패의 영향으로 두레굿, 마을 대동굿 보다는 걸립굿이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수원지역 교통로의 발달로 인한 남사당패의 왕래가 잦아 일찍부터 걸립굿의 활발한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 물론 거북놀이 등 민속 또는 두레 농악적 특징 또한 잘 간직된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 웃다리 농악의 판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있는 걸립 농악의 표본인 남사당놀이와 남사당패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유랑예인집단 가운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남사당패이다. 대부분의 유랑광대패들은 1900년대 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차 소멸 되었다. 남사당패는 남자들로 구성된 떠돌이 연희집단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면서 전문적인 연희(공연)로 생활고를 해결했으며, 숙식만 제공 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 놀이판을 벌였다.

남사당패에는 제일 우두머리인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기획)·뜬쇠·가열·빼리·저승패·등점꾼 등의 서열이 있었다. 큰 집단은 보통 4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부 규율이 매우 엄격했다. 특히, 우두머리인 꼭두쇠의 권위는 대단히 높았다. 꼭두쇠의 역량에 따라 남사당패의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규율을 어겼을 때는 꼭두쇠가 벌을 내렸다. 남사당패의 가장 무거운 죄는 패거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도망가는 행위였다. 그 밖에도 같은 식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패거리 내부의 이야기를 밖으로 누설하는 행위도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다. 곰뱅이쇠는 꼭두쇠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으며, 규모가 큰 패거리에는 간혹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곰뱅이란 남사당패의 은어(隱語)로 허가를 의미한다. 곰뱅이쇠의 중요한 역할은 공연을 할 마을에 미리 찾아가 놀이판을 벌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한 마을에서 놀이판을 벌이려면 숙식(宿食)을 그 마을사람들이 모두

66)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2001, 118-119쪽.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에 능하고 언변과 수단이 좋은 사람이 곰뱅이쇠를 맡았다. 이렇게 곰뱅이쇠가 미리 찾아가 허가를 받으면, 곰뱅이 뒀다라고 말한다. 곰뱅이쇠가 한 명 더 있을 경우에는 남사당패의 먹거리(글, 남사당패의 은어)를 해결하는 일을 맡았다.<sup>67)</sup>

곰뱅이쇠 밑에는 남사당의 각 연희 분야를 담당하는 뜬쇠가 있다. 뜬쇠는 각 연희의 최고 기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들 밑에는 각 연희에 소질이 있는 기능자로서 가열이 있고, 그 밑에는 초보자인 빠리가 있다. 빠리는 뜬쇠들의 결정에 따라 각 연희에 배정되어 심부름부터 시작하여 기예를 익혔다. 특히, 빠리는 재주를 배우지 못한 어린 동무(舞童)들이 많았는데, 대략 7~8세가량의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들이었다. 이 무동들은 주로 길게 맹기머리를 따고 치마를 입혀 여장(女裝)을 시켰다. 그리고 이 밖에도 놀이의 기능을 잊은 노인들인 저승패와 등짐꾼인 나귀쇠가 있었다.<sup>68)</sup>

꼭두쇠가 노쇠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 패거리의 신임을 잃게 되면, 내부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새로운 꼭두쇠를 선출하였다. 뜬쇠 중에서 가장 많이 구성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었다. 대개 뜬쇠 중에서 상쇠나 텔미쇠가 꼭두쇠로 추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남사당패의 특이성과 가치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랑예인들의 총체적 모듬집단으로 과거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랑단체로는 남사당패(男寺黨牌), 사당패(社堂牌), 솟대장이패(蘇塗牌), 대광대패(竹廣大牌), 초란이패, 걸립패(乞粒牌), 중매구(僧乞粒牌), 광대패(廣大牌), 굿중패, 각설이패, 애기장사 등이 있었으나 1930년에 이르러 남사당패에 통합되어 모든 유랑집단, 짚시(gipsy)집단을 대표하는 유랑예인집단의 모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현, 남사당놀이는 19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던 개다리패, 오명선패, 심선옥패, 안성복만이패, 원육덕이패, 이원보패 등 여러 남사당패거리의 종착점으로 남사당패의 순수계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둘째, 산악(散樂), 가무백희(歌舞百戲)의 유일한 전승집단으로 산악의 산(散)은 잡(雜)스러운 것, 속된 것, 혹은 비속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악(樂)은 음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었다. 산악은 궁중에서 행해

67)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1974, 34쪽.

68) 서연호, 김현철, 앞의 책, 2006, 403-407쪽.

지는 우아한 예능과는 반대로 곡예, 예술, 가무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대중 예능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삼국시대에 유입된 산악(散樂)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전 형성 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는 일찍이 가무백희를 관장하는 산대색(山臺色)을 두었다가 1279년(충렬왕 5) 연등도감(燃燈都監)에 병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나례도감(儻禮都監)이 설치되어 세모(歲暮)의 나례와 더불어 조정의 의식, 사신의 접반(接伴) 등에 쓰는 가무백희의 주선·연행을 도맡았다.

나례도감에 매인 재인(才人)들의 기예는 국가의 공식 악무(樂舞)가 아닌 잡다하고 저속한 온갖 구경거리의 이른바 가무백희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나례도감에 귀속시켜 범위가 넓고 종목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가무백희(歌舞百戲)는 1900년 이후 점차 소멸의 길을 걸었으나 현재의 남사당놀이에 전승되어 덜미(인형극),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춤), 벼나(접시돌리기), 풍물(농악) 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셋째, 국내유일의 남성연희집단으로 남사당패는 꼭두쇠(우두머리)밑으로 4,50명의 연희자를 갖는 남성연희집단으로 일정한 거소(居所)가 없는 독신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연희집단(演戲集團)이다. 꼭두쇠를 정점으로 한 남사당패는 다양한 기·예능을 가지고 일정한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 밤새워 서민들만의 놀이판을 벌여왔다. 경극(중국), 가부키(일본), 노(일본), 분라쿠(일본) 등 남성들만의 공연예술적 특이성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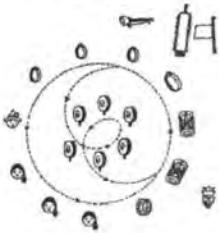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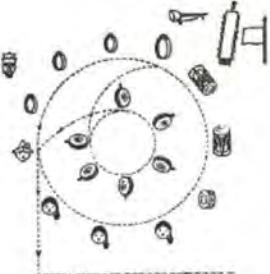
남사당놀이의 풍물판굿의 판제구성은 점고와 길놀이를 시작으로 인사굿 - 돌림벽구 - 소리판 - 겹돌림벽구 - 당산벌림 - 벽구놀림 - 당산벽구놀림 - 당산돌림벽구 - 오방진 - 무동놀림 - 벽구놀림 - 사통백이 - 가새벌림 - 자욱띠기 - 네줄백이 - 찍찍이굿 - 밀치기벽구 - 따벽구 - 상쇠놀이 - 징놀이 - 북놀이 - 장구놀이 - 시나위 - 새미받기 - 열두발 채상 순으로 진행된다<sup>70)</sup>.

그러나 필자가 남사당놀이에 가담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소리판은 전혀 공연하지 않았으며, 판굿의 진행순서와 개인놀이부분 또한 치배구성과 공연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사당풍물은 벼나, 살판 등의 기예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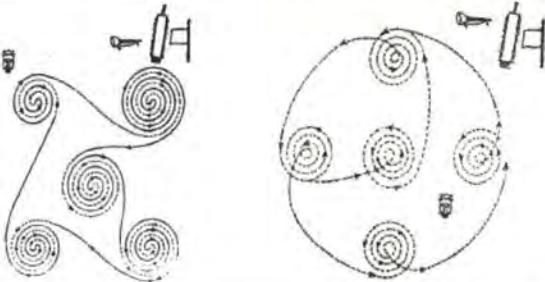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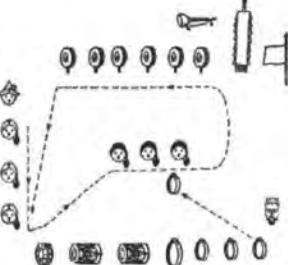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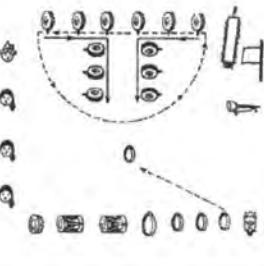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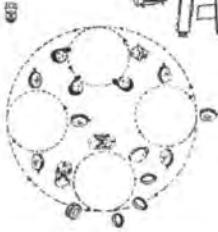
69) 양근수,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지정 확대 요청서』, 남사당놀이 보존회, 2006, 7-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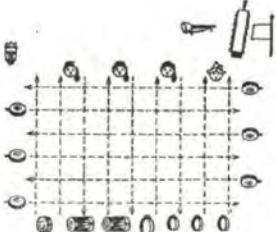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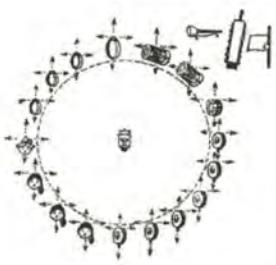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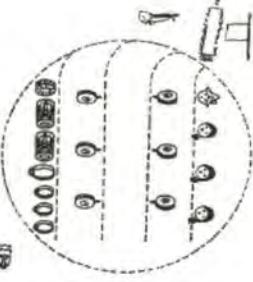
70) 심우성, 앞의 책,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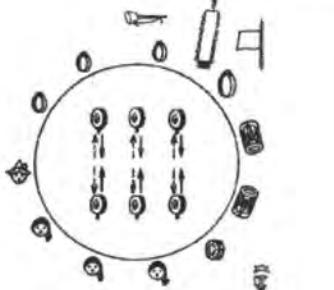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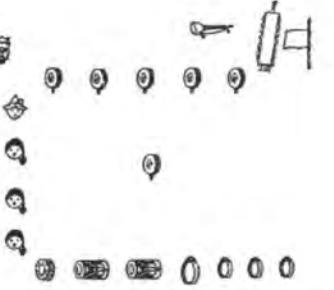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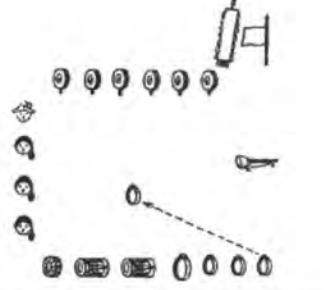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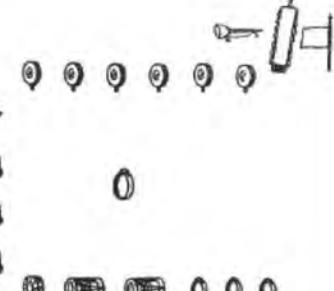
께 연희되고 있으며, 심우성선생의 자료와 필자의 공연참여 경험을 토대로 구성한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의 판굿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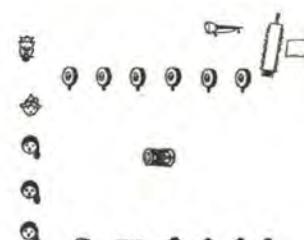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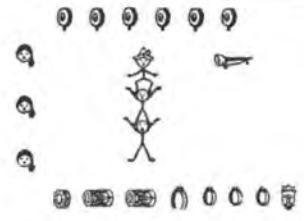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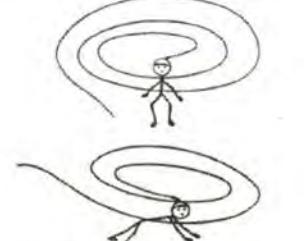
1. 인사굿	<p>서서 열림가락을 치다가 자진 가락을 치면서 흥을 돋구다가 원대형을 덩덕궁이가락으로 치고 들어와 우로 돌아 둥글게 늘어선 다음 자진 가락을 치고 쇠가락에 맞추어 사방의 구경꾼들을 향하여 둥글게 서서 인사한다.</p>	
2. 돌림벽구	<p>사물과 무동들은 자진가락에 맞추어 바깥원이 되어 돌고 벽구잽이는 안에서 양상(오른쪽 원쪽으로 상모를 한 번씩 돌리는 것)을 치며 옆 걸음으로 돌며 상식 신호에 따라 사물들은 외사를 치며 옆걸음으로 돈다.</p>	
3. 소리판	<p>사물과 무동들 순으로 원을 만듬에, 선 소리꾼만이 원 중심으로 들어가 농부가를 선창한다. 나머지 잡이들은 후렴(에헤이 에루 상사디야)을 부르며 원안으로 모였다 펼쳐졌다 하는 형태로 논메는 동작을 하며 진행한다.</p>	
4. 겹돌림벽구	<p>소리판이 끝나면 자진자락으로 돌림벽구와 같은 형태를 취하며 큰 원에서 합세한다.</p>	

5. 당산벌림	<p>벽구잽이 몇 바퀴 돌다가 다스래기 가락에 맞추어 시물잽이, 벽구잽이, 무동순으로 ㄷ자형태로 취한다.</p>	
6. 벽구놀림	<p>상쇠가 안으로 들어가고 벽구잽이들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양상치기로 벽구놀림을 한다.</p>	
7. 당산 벽구놀림	<p>자진 가락을 맷고 상쇠가 제자리에 돌아오면 벽구잽이들은 상벽구를 따라 당산 안쪽으로 을자(乙字) 형태를 그리며 돌다가 원 위치로 돌아와 양상치기도 맷는다.</p>	
8. 당산 돌림벽구	<p>양상치기가 끝나면 상벽구를 따라 당산 안쪽으로 달팽이 진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당산 돌림 벽구 놀이를 한다.</p>	

	<p>돌림벽구에서 장단을 바꾸어 길군악 칠채를 치며 오방진을 쌌다. 먼저 길군악을 치며 동쪽으로 가서 명석말이를 하고 다시 서쪽에서, 남에서, 북에서 각각 명석말이를 반복하고 맨 나중에는 중앙에서 길군악을 몰다가 자진가락으로 바꾸어서 명석말이를 한다.</p>	
<p>9. 오방진</p>		
<p>10. 무동놀림</p>	<p>다스래기 가락에 맞추어 다시 당산을 벌리고 상쇠가 앞으로 나와 가락을 바꾸면 무동들이 당산 안쪽으로 나와 춤을 추다가 당산 위치로 간다.</p>	
<p>11. 벽구 놀림</p>	<p>무동 놀림이 끝나고 덩덕궁이 가락에 맞추어 벽구잽이들이 외줄 백이, 쌍줄 백이 등을 진행하는데 사물잽이들이 있는 쪽 방향으로 직선을 그리며 양상치기를 한다.</p>	

13. 가세 벌림	<p>삼채가락(덩덕궁이)을 치고 원을 풀고 나오면 이렇게 돌다가 네모 형식으로 만드는데 사물잽이, 맞은편은 무동 벽구잽이가 반으로 나누어서서 교차하며 덩더쿵 가락에 맞추어 춤다.</p>	
14. 자욱띠기	<p>자진가락과 자욱띠기 가락에 맞추어 좌로 3번, 우로 3번, 앞으로 3번 뒤로 3번을 옮기면서 빠른 양상을 친다.</p>	
15. 네줄백이	<p>자욱띠기 후 상쇠의 다스래기 가락에 맞추어 뛰어가 네 줄로 서는데 사물잽이 첫줄, 벽구잽이 둘째, 셋째줄, 넷째줄은 무동이 서며 자욱띠기 가락에 맞추어 좌우 전후로 벌자국을 옮기며 양상치기를 한 후 덩덕궁이 가락으로 바뀐다.</p>	
16. 찍찍이 굿	<p>상쇠가 찍찍이 장단을 치면 벽구가 시울 뒤에 붙고 무동이 벽구뒤에서 크게 원을 그린다. 무동은 찍찍이 장단에서 춤을 추고 걸으며 다음에는 앉았다 일어선다. 이때 사물과 벽구들은 깨끼춤을 춘다. 그 다음 타령, 육체, 육체님김가락으로 잇는다.</p>	

17. 밀치기 벽구	<p>쪽쪽이 굿에서 벽구놀이 가락으로 바뀌면서 큰 원을 그리고 원 안에 벽구잽이들이 마주보고 나란히 선 후 밀고 당기는 반복을 하며 양상치기를 한다.</p>	
18. 따벽구 (벽구놀이)	<p>'따로 떼어낸다'에서 따 벽구라고 하며 벽구잽이들이 나와 양상치기, 번개상, 찍음상, 연풍대, 뒤집기 등으로 진행된다.</p>	
19. 상쇠놀이	<p>다스래기 가락에 맞추어 당산을 벌린 후 상쇠만이 당산 한쪽으로 들어와 부포놀이와 쇠놀이가 중심이 된 개인 놀이를 한다.</p>	
20. 징놀이	<p>상쇠놀이와 마찬 가지 형태에서 징이 안으로 들어와 느린 굿거리부터 빠른 자진 가락까지 멋들어지게 춤을 춘다.</p>	

21. 북놀이	<p>징놀이와 같은 형태에서 북춤을 주는데 가죽과 테를 번갈아 치면서 구수한 입담과 함께 즐겁게 준다.</p>	
22. 장구놀이	<p>전라 우도 성향이 강한 가락으로 화려한 울동과 함께 원직선사선을 그리며 진행한다.</p>	
23. 시나위 (태평소 시나위)	<p>쇠납이라고도 부르는 태평소로 굿거리, 덩덕궁이, 동살풀이, 업어빼기, 자진가락 순으로 장단에 맞추어 태평소의 기교를 뽐낸다.</p>	
24. 새미 반기(무동놀음)	<p>분홍색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은 어린 무동들이 동니를 서는데 곡마단의 기예(技藝)처럼 삼총서기, 이 총서기, 오명서기 등의 재주를 뽐낸다.</p>	
25. 열두발 채상놀이	<p>12m 정도의 긴 끈을 단 채상을 쓰고 팔배고 눕기, 가새뛰기, 모듬뛰기, 새뛰기 등으로 진행한다.</p>	

## 6. 맷음말

수원대유평 두레의 수성과 판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농업풍년 두레농악은 논 고르기, 써래질, 모내기, 김매기, 호미씻이, 벼베기, 도리깨질 등 농업생산과 함께한 농업두레로 반드시 상사소리의 들노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제축원 두레농악은 당산굿, 공동우물굿 등 마을단위의 축원형태와 문굿, 샘굿, 조왕굿, 정지굿, 곡간굿 등 집돌이 형태의 마당 지신밟기가 있다.

여기에는 세시절 형태의 민속놀이 두레농악은 줄다리기, 거북놀이, 차전놀이, 고싸움 등 세시절놀이와 민속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형태의 놀이형 두레농악이 존재하며, 남사당패 등 유랑과 걸립을 전문으로 하는 뜬패들의 건립농악이 있다.

또한, 판굿의 경우 포장공연에서 보여준 전문연희패들의 판제구성과 경연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경연대회 판제구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는 농악이 분명한 근거에 의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수원대유평 두레의 경우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 첫째, 화성축조와 영조대왕간의 관계로 화성축조에 직접 가담했던 일꾼들의 놀이라면 입성놀이 문굿, 성 터주 조왕굿, 성내 우물굿, 성밟기 지신놀이, 일꾼 위로 농악판굿 등 다양한 판제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것이 수원화성을 지키는 병졸들, 둔전에서 농사일을 하며 순번제와 유사시 군인의 역할을 하던 둔전병의 두레농악이라면, 창술, 검술, 제식, 훈련 등 다양한 구사적인 무예행위와 진법, 제식행위 등이 포함된 판제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얼이 남매의 억울한 사연은 차지하더라도 경기재인청과 이동안의 역할과 근거로 진쇠, 올림채, 터벌림 등 경기무속가락의 실제적 활용과 판제구성이 뒤따라야 된다.

넷째, 줄다리기, 거북놀이 등 호미걸이의 두레농악이라면 앞서의 놀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판제구성을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드러낸 수원대유평 두레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낭걸립, 경연대회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웃다리 풍물판제의 틀에서 벗어나 수원대유평 두레만이 갖는 특이성과 차별성으로 수준 높은 무형문화유산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지역에 기반 한 토속성과 기예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6.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품물굿』, 2001.
- 김택규 외, 『한국의 농악 : 호남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4.
- 김용국 · 이도남 · 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 류보라, 「평택농악과 대전 웃다리농악 비교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계순, 『교보생명』 3월호, 「진정한 민초의 기예를 지키는 마지막여자 꼭두쇠」, 1996.
- 서연호, 『한국 전승연희의 현장연구』, 집문당, 1997.
- 서연호 · 김현철,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 시지은, 『수원지역 농악연구』, 「유청자의 진술」, 2007.
-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1974.
- 양근수,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지정 확대 요청서』, 남사당놀이 보존회, 2006.
- 윤광봉, 『유랑예인과 꼭두각시놀음』, 밀알, 1978.
- 주강현, 『두레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5집, 1996.
- 최홍, 『열린마당』 1월호, 「대를 잇는 사람들 박계순」, 1998.

리플렛 : 제 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수원 두레농악 홍보자료

동영상 : 제 20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수원 두레농악 (2015년 9월), 오산종합운동장

『三國史記』

『正祖實錄』

『朝鮮王朝實錄』

『弘濟全書』

『華城城役儀軌』

여 백

# 수원대유평두레의 미적 특징에 관한 일고

이희병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대유평두레의 역할 |
| 2. 두레의 원류    | 5. 두레의 상징성   |
| 3. 대유평두레의 기능 | 6. 맷음말       |

## 초 록

정조는 수원에 요새 같은 화성을 건립하게 된다. 화성에는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여 배치된 병사 수만 무려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 대유평(大有坪) 또는 대유둔(大有屯)으로 불리던 군량을 충당한 둔전을 경작하여 장용영 군사들의 식량을 조달하였다. 농민과 군사들이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논농사의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레를 놀았다. 흔히 이 두레를 대유평두레라고 부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유평두레의 미적 특징을 통해 대유평두레의 내적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두레의 원류를 통해 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천지인 합일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생활적 기능, 공동체적 기능, 표현적 기능 등을 통해 두레의 고유한 기능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대유평두레의 역할을 동제, 농경, 걸립과 군악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유평두레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 놀이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놀이 각각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는 수원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내적요소로서의 미적 특징을 거시적이면서 보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논해 보았다. 이는 앞으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수원대유평두레, 둔전, 천지인합일, 두레의 기능, 두레의 역할, 걸립과 군악

## 1. 머리말

두레는 원시사회부터 전해지는 공동체 노동조직이며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 감찰을 목적으로 조직된 촌락 단위이다. 우두머리를 좌상(영좌)라 하고, 두레를 표시하는 기(旗)가 있었다.

두레 중에서 작은 두레는 6~10명 정도로 대개 경제적 여건이나 농지 소유 규모가 비슷한 이웃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고, 큰 두레는 마을 전체가 소속원이 되어 조직되기도 하였다. 한 마을의 경지 분포 상 큰 두레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몇 개의 작은 두레를 만들기도 하였다.

두레가 이행하는 공동노동의 형태는 모내기·물대기·김매기·벼베기·타작 등 논농사 경작 전 과정에 적용이 되었으며, 특히 많은 인력이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또한 마을의 공동 잔치로 풋굿이나 호미씻이와 같은 논농사 이후의 놀이도 함께하였다. 대체로 모내기나 추수를 마친 뒤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농사로 인한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때 토지를 소유한 주인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흥을 돋워 주었다.

수원 대유평(大有坪)은 조선후기 개혁군주 정조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집단 농장 지역이었다. 흔히 대유둔(大有屯)이라고도 불렸던 이 땅은 정조의 애민사상(愛民思想)과 농민들의 자급자족 의지가 맞아 떨어진 가장 이상적인 농업생산지였다. 특히 대유평에는 군인과 일반 농민이 서로 풍년가를 부르며 자신의 노력을 극대화시킨 곳으로 정조 때에는 조선 팔도 어느 곳으로부터도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대유평에서 농사를 지었던 장용외영 군인과 수원부 일반 농민들은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논농사의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레를 놀았다. 흔히 이 두레를 대유평두레라고 부르고 있다.<sup>1)</sup>

대유평두레의 형태면에서 고찰해 보면, 여타의 두레와 유사하게 원초적으로는

1)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 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12쪽.

벽사 의례로서의 농사 안택 축원(農事安宅祝願) 형태에서 군악 형태[軍舞]와 불교적 예능 형태로 변천하였다. 또한 예능적 측면에서 보면 원초적으로는 무속의 바탕을 가진 신악(神樂), 신무(神舞), 신유(神遊) 등이 융합된 굿에서 비롯하였으며, 이것이 문화의 발달로 주술 예능적 굿형식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예능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악을 말할 때, 축원 형태의 농악에서 시작하여 농경적인 노작 농악(두레 농악), 걸립 농악, 연예적인 형태의 농악 등 네 단계로 변천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농악의 변천 과정에서 당초에는 무격들이 농악을 하였고, 훗날에는 두레패나 농군, 승려 그리고 직업적인 농악패들이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천 요인은 그것들이 낱낱이 절단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면서 혼합 내지는 융합된 상태에서 연주, 노래, 춤, 놀이, 연극 등이 융합된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그 성격을 구축한 것이다.

## 2. 두레의 원류

한국 민족의 두레는 고대 동이족들의 천지인 합일의 우주적 사상과 음양오행설에 밀받침되어 생성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나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오늘에 볼 수 있는 민간신앙의 형태로 변모하였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민속예술로 또는 예술가들의 춤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우리나라 두레의 원류를 정의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 1) 태백산 천제에 나타난 천지인 합일

태백산은 우리 겨레의 개국신화와 연관된 신령스럽고 거룩한 민족의 영산이다. 이렇게 태백산을 영산으로 보는 까닭은 이곳 산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천제(天祭)가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 천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록 제의의 형식은 다르겠지만 제사의 내용이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의식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한의 여러

나라에서 소도(蘇塗)라는 장소를 마련하여 매년 5월과 10월 파종 때와 추수시기에 제주인 천군(天君)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sup>2)</sup>과 그 원류가 유사하다.

태백산맥에 있는 세 개의 제단은 그 형상이 원(○), 방(□), 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부인(天符印)과 유사한 것으로 원은 하늘이고, 방은 땅이고, 각은 사람을 상징한다. 태백산의 천제는 이른바 천지인 합일의 삼재(三才)와 같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천제의 의식은 제장에 일월기(日月旗), 복두기(北斗旗)를 세워놓고 풍물패들이 천신을 맞이하기 위해 농악을 하면서 춤추고 집례(執禮)가 홀기(笏記)를 부르면서 시작된다. 하늘로 솟아올라간 연기를 타고 천신이 강림하기를 비는 것이다. 이어서 제주가 천단에 올라가 강신례(降神禮)를 올린다. 가무는 두레패들에 의해 농악과 함께 행해지고 이 가운데 천신(天神)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태백산의 천제는 고대시대의 천지인 합일의 종교의식을 원류로 한 제의라 할 수 있다.

## 2) 천지인의 합일을 도모하는 주체의 변천

가령 마을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근석(男根石) 또는 미륵이라 불리기도 하는 입석(立石)에서의 제의는 정월 보름날 마을 두레패들에 의해 베풀어지는데 이는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가진 농업 신과 사람들의 합일 풍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세워진 솟대에 달던 새는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하늘의 신과 사람의 뜻을 서로 전하는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솟대제에서 농악대와



고인돌(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2)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1200쪽.

마을 사람들의 두레는 천지인의 합일을 상징한 제의적 두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모양에서 뚜껑돌은 하늘, 받침돌은 땅, 문힌 이는 사람을 상징한 돌이기에, 고인돌은 천지인 돌로 해석되기도 한다.<sup>3)</sup>

이 곳에서는 무당들이 신과 인간이 합일하는 뜻에서 굿을 하고 신에게 혼을 바치는 춤을 춘다.

오늘날 마을의 별신굿이나 도당굿은 이 까마득한 옛적의 나라굿이 전승된 모습이다. 오늘날의 마을굿도 옛날 나라굿이 그려했듯이 먼저 신내림을 받는다. 무당이 중매꾼이 되어서 마을의 수호신인 골매기를 부르면 그 신내림은 마을 사람 가운데서 뽑힌 제주(際主)를 거쳐 마을 사람 전체에게로 번져 간다. 이것이 신지핌의 확산작용이다. 무당의 춤과 노래로 신령이 신대를 잡은 제주에게 내리면 제주는 신들림을 온몸으로 나타낸다. 신대를 잡은 제주와 그를 시위하듯 따라나서는 무당을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이나 당집을 떠나서 풍악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온다. 이것이 신맞이 절차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굿은 아득한 옛날의 제천의식인 천지인 합일 문화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경상도 수망굿에서는 신대를 흔들면서 춤추어 신인합일(神人合一)을 이루고, 강릉 단오굿에서는 산에서 베어온 신수를 굿당에 안치하여 굿을 한다.

통영 오귀새남굿에서는 대문 앞에 신대를 꽂아서 신이 내리게 하고 무당들은 신대를 들고 춤추는데, 이는 신과 사람의 합일을 의미한다. 전라도 첫김굿에서 춤출 때 주로 사용하는 기구가 지전과 성주대인데, 이러한 신구(神具)는 신과 사람이 합일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마을의 신수와 당에서 굿을 하는데 이 때 굿터에서 잡귀를 몰아내고 신을 맞이하는 신인합일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무당들이 굿을 할 때 하늘의 신을 접신하고 신을 맞이하는 영신의식, 신과 함께 같이 노는 오신의식, 신을 보내는 송신의식 등 신인일체가 되는 신명이 있다.<sup>4)</sup>

3) 박정태, 『우리의 원형을 찾는다』, 열화당, 2000, 42쪽.

4)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66쪽.

### 3) 인간들이 하늘과 땅, 해와 달과 상통

농악은 주로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양적(陽的)이라 볼 수 있고, 강강술래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음적(陰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악은 낮에 추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 하고, 강강술래는 달밤에 추기 때문에 달을 상징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합일하여 같이 노는 것이다. 이들은 천지인일월(天地人日月) 합일뿐만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위하여 약동하는 우주적인 것이다.

정월 보름이 되면 산신과 농업신, 마을신들이 있는 당과 하늘의 신이 하강하는 당산나무(神樹)에 가서 당산굿<sup>5)</sup>을 하고 농기애 신을 받아 마을 공동 샘에 제사를 드린 다음 가가호호 순회하면서 집돌이를 함으로써 사악한 것을 마을에서 몰아내고 신복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마을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판굿을 벌임으로써 한바탕 즐겁게 춤추며 어울리고 신바람을 받아 신들려 신명나게 놀면서 생명력을 회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농악은 비단 정월보름에 마을 제사나 판굿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농토에서 농산물의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성장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행해졌다.

두레째들이 들녘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용기(龍旗)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까닭은 용이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라도 진도 농악과 경상도 빗내농악의 기러기는 기러기 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형용하고 있는데 이는 천지의 합일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농악대들이 봄철에 보리밟기를 하는 것은 대지의 지모신(地母神)을 달래고 보리의 성장을 촉진시킨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지신밟기를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지신과 합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강원도 농악에서 볼 수 있는 '농사풀이'라는 춤은 지신을 달래고 풍농을 모의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무동은 본래 무동이 하늘에서 보낸 신동(神童)이기 때문에 땅에 내려가기 전 농악꾼의 어깨 위에서 유영(遊泳)하는 것이 기본이지만<sup>6)</sup> 지방에 따라서는 기러기사위라 해서 다른 무동잽이의 어깨위로 기러기가 나는 것처럼 뛰는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sup>7)</sup> 대부분의 무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깨 위에서

5)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88쪽.

6) 정병호, 위의 책, 93쪽.

노는 것과 땅으로 내려가 농사짓는 것을 모의하는 '찍금놀이'<sup>7)</sup>를 하거나 땅에서 놀았다.

두레의 상징인 농기에는 하늘을 상징한 꿩의 텔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고, 두레패가 머리에 쓰는 전립은 새털로 만든 채상모를 했다. 두레패들이 산상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는 요란하게 연주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빌었다. 모내기가 끝나고 농신제를 지낸 다음 농부들이 논두렁을 돌면서 힘차게 땅을 밟으며 도는 행위에는 자신을 달래고 풍년을 축원하는 것은 물론 하늘과의 합일을 기원하는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다.

소고잽이가 흰 종이로 만든 상모를 전립에 담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거나 땅에 앉아서 몸을 엎었다 뒤집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마치 성희(性戲)를 하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 이는 대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인합일(地人合一)의 대지애착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구려 고분에는 해와 달의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비천도(飛天圖)<sup>9)</sup>가 있다. 비천도에서 달은 보름날 밤 우리나라 여성들과 내통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지로 내려온다. 하늘의 달과 땅에 사는 여성들이 만나는 장소는 높은 산상이나 바닷가인데 이러한 곳에서 만나는 까닭은 그곳이 하늘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달을 내려오게 하는 역할은 목청이 좋은 무녀(巫女)나 소리꾼이 맡는다. 이들은 강강술래<sup>10)</sup>를 할 때 지휘를 담당하는 선도자로서 달과 사람들이 흥겹게 노래를 하고 춤출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목청 좋은 소리로 강강



수원대유평두레의 무동놀이

7) 정병호, 앞의 책, 92쪽.

8) 정병호, 앞의 책, 87쪽.

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玄室天非 日 月神),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61쪽.

10) 茂亭, 『思波儒筆』, 卷之 一(珍島郡鄉土史資料), 影印本 第二輯, 珍島文化院, 1993, 17-18쪽.

술래를 천천히 부르며 달과 동네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 광경을 볼 수 없으며 오직 여성들만 모여서 달과 노는 일종의 밀의(密儀)와 같은 놀이였다. 강강술래는 느린 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등으로 점점 춤과 노래가 빨라지다가 절정에 이르러 집단적 놀이가 끝난다. 손을 잡은 부녀자들은 선도자의 인도에 따라 전원 손을 잡고 달을 상징한 원형을 그리며 돌다가 원이 점점 좁혀지면서 달과 교합되고 선도자는 돌던 방향을 바꾸어 태극형으로 돌아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러한 원과 태극 형의 나선원은 우선 외형으로 보았을 때에도 달을 상징한 것이지만 놀이를 할 때 노래의 가사 내용에서도 달과 여성들이 교감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東海東天) 달떠온다	강강술래
저 달이 누 달인가	강강술래
달과 별이 열렸으니	강강술래
방호방네 달이라네	강강술래
저 달 뜬 줄 모르는가	강강술래
오동추야(梧桐秋夜)달이 밝고	강강술래
억만강의 구름 속에	강강술래
오동추야 달은 밝고	강강술래

이어서 말았던 원을 푸는 원무를 하면서 월신(月神)과 지신(地神)이 교합하게 하는 이른바 지신밟기를 하고 '고사리 꺾자', '청어 엮자'와 같은 농경모의와 성모의에 해당하는 '남생아 놀아라'를 한다.<sup>11)</sup>

강강술래는 달밤에 하는 고대 그리스의 여원의식(女圓儀式)과도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여성들만의 제의식이라는 점, 달밤에 연희한다는 점, 흰옷을 입고 춤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현존하는 강강술래는 마한시대에 추어진 탁무(鐸舞)와도 유사하다. 문

11) 정병호·이보형, 「노래춤」,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8, 101쪽.

현기록에 의하면 탁무는 남녀구분이 없지만 집단형식의 놀이라는 점과, 농경적 제의와 관계가 있고 땅을 밟으면서 손과 발을 맞추어 뛴다는 점에서 원형태의 집단적 놀이 형식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두레놀이와 강강술래는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놀이의 내용구성 형식은 똑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두레는 남성들이 태양과 땅을 교합시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우주적 놀이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달과 땅을 교합시켜 음(陰)끼리 교합하는 우주적 놀이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한시대에는 이 탁무를 음양사상에 의거해 남성들은 태양제로서 낮에 추었고 여성들은 월제(月祭)로서 밤에 추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2)</sup>

### 3. 대유평두레의 기능

대유평두레는 종교나 농경의례, 노동, 일상생활, 명절 등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크게 요약해 보면 생활적 기능, 공동체적 기능, 표현적인 기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생활적 기능

우리의 두레는 원초적으로 제의적인 '마을굿'과 풍농을 위한 농경의례로서의 축원적 기능을 비롯하여 농경생활과 결부된 두레적 기능의 춤을 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축제적인 기능과 오락과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생활두레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민중의식의 행동적 표현은 당굿에서 나타난다. 양반들의 제사처럼 축문을 읽고 절을 하는 형식과는 달리 민중의 제사는 애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는 가운데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토의, 기원하는 대동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13)</sup>

동제(洞祭)는 무당들이 사제한 의식과 두레가 사제한 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12) 『三國志』, 『魏志』, 東夷傳 :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相就歌戲.

13) 심우성, 『민속문화와 민중의식』, 동문선, 1985, 110쪽.

의식은 마을의 무사와 번영 그리고 그 해의 풍년을 예측하기 위해서 마을의 재해를 몰아내고 복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동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는데 이 때의 춤은 단순한 친목이나 오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조상들과의 교합(交合)은 물론 마을 수호신과의 교합과 농신(農神)과의 교합 등 제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을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마을의 무사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제재초복(除災招福)의 행위가 곁들여 있다고 하겠다.<sup>14)</sup>

이 밖에 동제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산에 올라가 농악으로 하는 기우제굿이 있으며, 10월에는 당산에 제를 지내고 지방에 따라서는 음력 설날 그믐날 밤에 사악(邪惡)을 쫓는 의식을 하는 등 종교적 의식을 한다. 생활적 기능을 가진 춤은 농경적인 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다. 말하자면 농민들이 김매기를 할 때, 초동들이 산에 올라가 묘(墓)판에서 놀 때, 농민들이 풀베기나 나무하려 갈 때 노는 지게목발놀이 그리고 농사를 끝내고 논둑밟기를 할 때, 지심매기를 할 때, 영(令)풀베기를 할 때와 보매기를 할 때를 이른다. 이 밖에 보리밟기와 수렵할 때나 새로 이사 온 집에서는 이사턱을 내기 위해서도 놀이판을 벌이며 봄철에는 화전놀이를 하기도 하고, 씨름판이 벌어지면 두레농악으로 흥을 돋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두레는 종교나 농경생활 그리고 세시풍속과 관련된 생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5)</sup>

일을 하면서 노는 놀이들은 반복되는 일의 동작에서 비롯된 신체적인 결함이나 근육의 굳어짐을 풀어 주는 동시에 일의 고통을 재미로 덜어 주고 흥과 신명으로 전환시키면서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고무하는 구실을 한다. 일의 능률을 올려 주고 일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레에서 벌어지는 놀이인 것이다.

## 2) 공동체적 기능

민중의 대동을 도모한 것이 바로 두레<sup>16)</sup>인 것이다. 두레는 '두르다'라는 고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명사이며 그 부사인 '두루'의 뜻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4)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31쪽.

15)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2002, 276-277쪽.

16) 신용하,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213쪽.

‘모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공동체’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두레들의 공동체 의식에서 공동노동 다음에 오는 이른바 한 솥의 밥을 먹는 공동 식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두레꾼들의 연대의식과 노동의 결속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분상으로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공동체적 조직인 두레생활을 통해 결속을 한층 강화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양반층과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투쟁적 시위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는 모든 놀이들은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기원하는 대동제의였고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집돌이 또한 마을의 이익과 번영을 축원하는 등 공동체적 결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돌이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놀이판을 벌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마을 사람들 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의 놀이판을 보면 각종의 진풀이나 전투적인 놀이 등이 포함된 농악을 위주로 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투적인 기능을 가진 춤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거나 농군들끼리 하는 열린 예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닫힌 예능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참여가 마을 사람들이나 농민들만으로 결속된다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볼 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지만 내부에서 볼 때는 가장 협동적이며 구성원들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두레는 내적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적인 도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강한 응집력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므로 두레는 외부에 대한 밀어냄의 기능과 내부에 대한 끌어당김의 기능이 일정한 긴장관계에서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sup>17)</sup> 이러한 뜻의 상징행위가 원으로 서서 하는 형식의 춤이라 하겠다.<sup>18)</sup>

공동체적인 기능을 가진 두레는 농민들이 공동 노동을 하면서 노동에 활력 을 주기 위하여 농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소동패(小童牌)들은 일을 할 때 소고

17)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67쪽.

18) 원무는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적 상징형식이라 할 수 있다.

놀이를 하여 공동체가 된다.

설날과 단옷날, 백중날,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은 흘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공동체나 마을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묵은 것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질서를 얻어 들이는 것, 즉 삶에 생기를 북돋우는 것은 물론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놀이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판이 민중의 문화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두레패나 서민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므로 전투적이면서도 종교적 공동체, 같은 신분끼리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 3) 표현적 기능

두레를 통한 놀이판은 생활과 결부된 기능과 공동체적 기능 이외에도 생활에서 겪은 온갖 고통과 갈등과 응어리진 감정을 푸는 삶의 표현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난장판으로 벌어지는 향토축제는 지루하고 고된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때는 두레꾼들이 자기들의 예능적 기량을 보여 주고 또한 마을 사람들은 놀이판에 뛰어들어 흥과 신명을 만끽한다.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추므로 난장판이 되고 혼돈과 세속적인 질서가 깨지고 일상생활에서 이탈함으로써 억압과 금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놀이판에서 중요한 것은 오락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도달함으로써 엉클어져 있는 갈등을 풀고 삶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이다.

동적인 두레 합주는 심장의 고동과 맥박을 꿈틀거리게 하는 놀라운 힘과 흥겨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명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두레 소리만 들어도 피로한 얼굴이 활짝 밝아지며 두레의 놀이판이 벌어지면 아무런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몸 한뜻이 되어 판에 섞이게 된다.

그러나 이 신명의 놀이판은 단순히 생활상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기약하려는 삶의 춤이며 또한 예술적 꿈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묵였던 마음, 오그라든 몸을 놀이판 속에서 온갖 갈등을 풀어 버리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sup>19)</sup>

## 4. 대유평두레의 역할

### 1) 동제(洞祭)와 결부된 기원 두레

동제는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하는 계절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주된 제사는 봄·가을에 한다. 동제는 일단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거행되지만, 본래는 농경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제재초복(除災招福)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생산의 무재풍양(無災豐穰)이라 할 수 있다. 부락의 무재안태(無災案泰)나 부락민의 무병득복(無病得福)을 기원하는 것은 중요한 생산적 근원에 종속한다. 따라서 봄의 제사는 그 해의 농사가 하등의 재해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원하는 것이고, 가을에 행하는 제사는 그 해의 농산물이 별 탈 없이 풍년 들게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굿'이라 하면 제신무악(祭神舞樂)에 관련된 종교적 주술 예능으로 행한 모든 신성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굿은 무녀나 광대들이 행하는 경우와 농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당굿을 농악으로 하는 경우 농악대들이 성황대를 들고 앞장서며, 농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제관, 축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게 된다. 당에 도달하면 당 주변을 돌거나 일렬횡대로 서서 당굿을 치고 절가락으로 절을 하거나 축관이 축문을 외는 가운데 제관은 소지를 올려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신을 즐겁게 하거나 신과 더불어 농악으로 즐겁게 춤을 춘다.

서낭기(전라도에서는 용기, 경상도는 천왕기)에는 서낭신이 잘 내리도록 방울을 달고 기폭에 서낭의 상으로 용, 범, 인신상(人神像)을 그리기도 한다. 또 기폭에 신상(神像)을 그리는 대신 용탈, 사자탈, 거북탈을 쓴 놀이꾼을 서낭대에 딸리기도 하며, 인신탈을 쓴 잡색(雜色)을 딸리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당에서 농악대들이 판굿을 하고 대동우물굿이나 집돌이(지신밟기)를 하기도 한다.

19) 채희완,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사, 1985, 89쪽.

## 2) 농경 생활과 직결된 두레

두레는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이다. 이러한 두레는 논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모심기, 논매기 등의 논농사는 그 시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 노동은 농경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노동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품앗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교환하는 생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레가 노력의 합리성을 강조한 제도라면 품앗이는 보다 증여(贈與)의 관념에 비중을 둔 관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공동체 생활양식에서 생성된 협동의 제도이며, 그 바탕에는 농민의 능력에 대한 평등관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농경 생활에는 반드시 농악이 따랐다. 그리하여 농악은 노동 생활은 물론 농민들의 단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농악의 발달 요인 중에서 두레 패들의 농경 생활과 농악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악은 두레로 노동을 할 때 노동의 고통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두레의 뜻에는 공동체 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외부 세계와 경계를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두레는 일을 돌아가며 해 준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제도로서, 두레패들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이나 농민들이다. 두레패가 하는 작업은 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인데 이들의 생활은 공동 노동뿐만 아니라 공동 회식, 공동 가무가 특색이다. 이른바 민속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두레 생활의 전통에서 발달한 것이다. 특히 농악과 농요는 두레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토착 예술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레가 성행했던 시대에는 마을마다 두레 본부인 농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모든 연회를 하고, 실내 공동 노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농기나 농악기 그리고 공용 농구도 보관하였다. 농악은 두레에 부속된 필수적인 것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악이 없는 두레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악은 두레가 발달한 곳에서 성행하였으므로 농악은 농경이 발달한 평야지대에서 현저하게 발달한 흔적이 보인다.

### 3) 걸립과 군악의 기능을 가진 두레

걸립 농악이 시작된 시기는 고려 때인 것으로 보인다. 팔관회와 연등회 등의 국가적 명절 행사를 통해 가무백희가 성행하였다. 한편으로는 흉례에 속하는 나례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나례는 축귀 예능(逐鬼藝能)으로 세종나례(歲終儺禮, 매굿)였다. 그리하여 '우인', '창우'로 불리는 직업적인 예능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걸립패의 시원을 확실하게 해 주는 기록은, 이두현이 『한국의 가면극』에서 밝혔듯이 광대, 재인, 수척, 사당 등 예능인들의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과 기타의 문헌들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걸량(걸립)으로 생활하며, 나례도감의 공의(公儀)와 함께 존속되어 왔고, 유사 시에만 상경하여 궁궐에도 출입하여 나례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떼를 지어 경향 각지를 다니며 각종 연희를 보여 주고, 이른바 걸립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사사파(寺社罷) 이후 재승기악인(才僧伎樂人) 등이 환속하여 재인, 광대들과 상종하며 연예인 사회에 어울리게 되었다고 한다.

전남 해남군 대홍사에는 응송(應松)스님이 소장한 『설나규식(設儺規式)』이라는 책과, 범해(梵海)스님이 소장한 『고인구본편차(故因舊本編次)』라는 책이 있다. 거기에 보면, 동쪽 풍속에는 매굿, 소나(消儺), 금고(金鼓), 걸립, 걸공(乞工)이라는 칭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례의 별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보면 걸립 농악은 무당, 재인, 광대들로 조직된 패들이 하던 귀신을 쫓는 나례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조에 이르러 불교가 유교에 밀려 쇠퇴함에 따라 사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속계에 내려가 걸립하거나, 인근 농악단을 고용하여 절 걸립으로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집돌이를 하게 되어 절걸립 농악이 성행하게 되었다. 걸립 농악의 조직은 절걸립패 말고도 낭걸립패(神農 걸립패)가 있으며, 이 걸립은 직업적인 농악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농악꾼(두레 농악꾼)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걸립패들이 농악을 하는 목적은 마을의 공익사업 기금을 거출하기 위하여 구정 때나 아니면 특별히 날을 잡아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치기도 하였다. 걸립굿은 주로 집돌이로서 지신밟기를

하는 것과, 그 후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행하는 판굿으로 갈라서 한다.

조선 후기 농악에서 전북 지방의 정읍과 김제 지방의 농악이 예능적으로 크게 발달한 것은, 김제의 강증교(동학계의 재래 종교)와 정읍의 동천사교(동학계의 재래 종교)에서 농악을 중요시하고 교서에 올리는 등 각지의 농악인들을 불러들여서 교리에 따른 포교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농악은 지신밟기가 끝나면 판굿을 하는 수가 많은데, 판굿은 음악만 연주하여 흥을 돋우는 채굿을 비롯하여 춤과 연극, 놀이 같은 것들이 연희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진풀이(행진으로 구성되는 군사놀이)이다. 이 진풀이는 판굿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춤과 연극, 놀이 등의 표현과 내용에는 전투적인 예능 요소가 가장 많으며, 복색은 전복(戰服)으로 꾸며진다. 아마 농악이 군악이라는 일설을 펼친 까닭에는 이러한 데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걸립 농악에 있어서 지신밟기가 축귀(逐鬼)와 정토(淨土)의 예능이라 하면, 판굿은 전투적 성격의 예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걸립 농악이 전립(戰笠) 농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까닭은 걸립패들이 관에 예속되어 나희를 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전립대(군악대)나 농군에 편입하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군악적 성격의 농악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두레의 상징성

- ① 농기는 농신(農神)을 상징하는 신(神)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을의 무사와 풍년을 위하여 축귀(逐鬼)하거나 풍우를 조절하는 주력(魄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② 영기(令旗)는 신발이 기(旗)인 동시에 군기(軍旗)나 음양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액막이와 축귀 등의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다.
- ③ 상쇠의 직능은 신관과 군관이라 할 수 있으며, 고대에서는 주술능력이 발달한 무관이었으리라 생각된다.
- ④ 잡색(雜色)으로서의 무동은 영격(靈格)으로서 인태신격(人態神格)이라 할

수 있고 동물을 가장(假裝)한 잡색들은 동물신격으로 보인다. 신격들은 집돌이를 할 때는 내방신(來訪神·農神)으로 행세를 하고 판굿을 할 때는 무동인 경우 무동타기를 하며 불양(祓禳)과 기복(祈福)의 두 영능으로써 예축적(豫祝的) 연기를 하며, 동물가장의 잡색들은 성적 놀이를 통하여 농경의 풍요를 예측하고 거북이 가장춤은 농경 풍요와 사람들의 장수를 상징한다.

- ⑤ 대포수(총잡이)는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데 원시적으로는 무당들이 포귀수(捕鬼手)가 되어 잡귀를 몰아내고 액풀이를 하듯이 농악의 대포수는 총을 쏘아 액풀이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⑥ 농악에 있어서 음악은 신을 맞이하거나 잡귀를 몰아내는 신악적(神樂的) 주술기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적과의 싸움은 물론 공동체적 집합을 위한 군악적(軍樂的) 성격과 일장단(勞動音樂) 그리고 성적 발산과 힘껏 두들겨 울분을 토하는 신명의 성격을 담고 있다. 또한 징을 하늘의 소리라 하는데 이는 그 소리가 멀리 들리기 때문이며, 농악대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징을 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 ⑦ 춤에 있어서 쇠꾼의 부포놀이는 전령이나 꽃, 액풀이, 방어, 성묘사로 볼 수 있고, 몰입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북춤은 신무나 군무, 노동무(일북)로 본다. 소고춤은 채상모 놀이인 경우 수렵이나 적을 방어하는 무술행위 또는 군사적 신호에서 비롯되었으며 소고놀이 춤인 경우 주로 농경모의의 행적이 보인다.
- ⑧ 농악에 있어서 놀이는 농경풍요로서 열두발 상모, 성장의례(成長儀禮)로서 농사풀이와 하늘에서 보낸 신동의 무동타기 놀이가 있다.
- ⑨ 도무(跳舞)는 자신을 달래고 귀신을 격퇴시키며 농산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 ⑩ 2방진(方陣), 3방진, 4방진, 5방진과 같은 진법(陣法: 진풀이)은 음양설의 방위신(方位神)의 배치와 액풀이 그리고 군진법(軍陣法)으로서 돌진, 포위, 훈련, 점호, 행군 등 전투를 상징한다.
- ⑪ 원(圓)의 행진은 영신(迎神)과 송신(送神), 탄생과 죽음 등 종교적 상징을 담고 있으며, 나선행진(螺線行進)은 저승과 이승의 영생과 윤회관, 그리고 음양의 자연 순리에 대한 상징행위이다.<sup>20)</sup>

- ⑫ 농악에 있어서 극(劇)은 걸립 농악을 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그 속에는 액막이나 축귀, 성풍요 등 희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 ⑬ 당산(堂山)은 천상에서 기를 받는 성스러운 나무이다. 그러기에 당산제에서 원무하는 것은 성스러운 자연의 기를 받는 종교적 상징행위라 할 수 있다.
- ⑭ 채상모춤에서 고개를 돌리는 춤사위는 옛날 머리를 풀고 수렵을 하거나 적과의 싸움을 상징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 ⑮ 남녀가 갈라져서 줄다리기를 한 다음 여성들이 줄을 어깨에 매고 어깨춤을 추다가 입석(남성 성기를 상징한 입석(立石)에 감는 행동은 풍농(豐農)을 상징한 것이다.

## 6. 맷음말

정조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도시, 수원에 요새 같은 화성을 건립하게 된다. 대규모 행궁이 설치되고, 도시 외곽으로는 6km에 달하는 거대한 성곽이 건설되었다. 화성에는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여 배치된 병사 수만 무려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 대유평(大有坪) 또는 대유둔(大有屯)으로 불리던 군량을 충당한 둔전을 경작하여 장용영 군사들의 식량을 조달하였다. 농민과 군사들의 집단 경작 지역이었던 것이다. 대유평에서 농사를 지었던 장용외영 군인과 수원부 일반 농민들은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논농사의 진행과 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레를 놀았다. 흔히 이 두레를 대유평 두레라고 부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유평두레의 미적 특징을 통해 대유평두레의 내적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20) 정병호, 「농악예능의 상징성과 의미에 관한 일고제」, 『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535-536쪽.

첫 번째로 보편적인 두레의 원류를 통해 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 ① 우리나라 모든 민속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shamanism)의 제사장이 주체가 되어 천지인의 합일을 도모하였다. 민족의 영산 태백산 산상에서 천제(天祭)를 베푼 것은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제천의식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삼한의 여러 나라에서 소도(蘇塗)라는 장소를 마련하여 매년 5월과 10월 파종 때와 추수시기에 제주인 천군(天君)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과 그 원류가 유사하다.
- ② 무당들에 의해 하늘과 땅, 해와 달에 제재초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던 천제의 의식이 점차 마을 두레패들에 의해 베풀어지기 시작하고 이는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가진 농업 신과 사람들의 합일 풍속으로 변천되었다.
- ③ 현존하는 두레의 놀이판에서는 남성들이 태양과 땅을 교합시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우주적 놀이 형식으로, 여성들은 달과 땅을 교합시켜서 음(陰)끼리 교합하는 우주적 놀이형식으로 연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생활적 기능, 공동체적 기능, 표현적 기능 등을 통해 두레의 고유한 기능을 살펴보았다.

- ① 두레의 동제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산에 올라가 농악으로 하는 기우제굿이 있으며, 10월에는 당산에 제를 지내고 지방에 따라서는 음력 선달그믐날 밤에 사악(邪惡)을 쫓는 의식을 하는 등 종교적 의식과 함께 농민들이 김매기를 할 때, 초동들이 산에 올라가 묘(墓)판에서 놀 때, 농민들이 풀베기나 나무하러 갈 때 노는 지게목발놀이 그리고 농사를 끝내고 논둑밟기를 할 때, 지심매기를 할 때, 영(令)풀베기를 할 때와 보매기를 할 때와 같이 일반적인 삶 곳에 녹아 있다.
- ② 민중의 대동을 도모한 것이 바로 두레인 것이다. 민중의 문화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두레패나 서민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므로 전통적이면서도 종교적 공동체, 같은 신분끼리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 ③ 두레를 통한 놀이판에서 중요한 것은 오락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도달

함으로써 엉클어져 있는 갈등을 풀고 삶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이다. 동적인 두레 합주는 심장의 고동과 맥박을 꿈틀거리게 하는 놀라운 힘과 흥겨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명나게 만든다.

세 번째로 대유평두레의 역할을 동제, 농경, 걸립과 군악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 ① 동제는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거행되지만, 본래는 농경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봄의 제사는 그 해의 농사가 하등의 재해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원하는 것이고, 가을에 행하는 제사는 그 해의 농산물이 별 탈 없이 풍년 들게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다.
- ② 두레는 농사꾼들이 농번기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임이다. 이러한 두레는 논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모심기, 논매기 등의 논농사는 그 시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노동력의 동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 노동은 농경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노동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 ③ 두레의 걸립패들이 농악을 하는 목적은 마을의 공익사업 기금을 거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날을 잡아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치며 걸립을 하게 된다. 또한 두레의 놀이판 속에는 전투적인 예능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대유평두레의 농민들은 관에 예속되어 있는 군사들이 었기 때문에 군악적 성격의 농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유평두레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 놀이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놀이 각각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는 수원대유평두레가 간직하고 있는 내적요소로서의 미적 특징을 거시적이면서 보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논해 보았다. 이는 앞으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김강산, 「태백산 천제(天祭)」(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 김용국·이도남·이용식, 『수원 대유평(두레)원형조사보고서』,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2009.
- 박정태, 『우리의 원형을 찾는다』, 열화당, 2000.
- 신용하,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 심우성, 『민속문화와 민중의식』, 동문선, 1985.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 정병호, 「농악예능의 상징성과 의미에 관한 일고제」, 『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2002.
- 정병호·이보형, 「노래춤」,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8.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편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玄室天非 日月神),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채희완,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사, 1985.

『思波儒筆』

『魏志』, 『三國志』.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제2호

---

# 일 반 논 문

- 수원학이 나아갈 길  
양훈도 |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여 백

# 수원학이 나아갈 길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교육실태          |
| 2. 국내 지역학 현황      | 4. 수원학 발전을 위한 제언 |
| 1) 지역학 역사         | 1) 연구 수준의 심화     |
| 2) 지역학의 개념 규정     | 2) 교육과 활용도 제고    |
| 3) 지역학 연구 및 교육 현황 | 3) 제도적 기반의 공고화   |
| 3. 수원학의 현황        | 5. 맷음말           |
| 1) 태동과 성립         |                  |

## 초 록

이 글은 수원학의 현재 좌표와 위상을 어떠하며, 향후 심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명+학’을 표방하는 지역학 가운데 수원학은 선두 그룹에 속해 있으며, 연구 성과와 콘텐츠도 풍부하고, 대학 교양 강좌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원학이 지역의 과거 정체성 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르는 정체성을 탐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정조 시대에 치우친 연구의 시간축과 공간축을 확장하고, 연구영역과 연구방법론을 다양화 하여, 인구 120만 현대 대도시 형성의 동력을 규명하는 등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수원학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흔들리는 일 없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연구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학, 수원학, 지역정체성, 향토문화, 도시연구

## 1. 머리말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학'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다. 2014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체계적 제도화의 경로에 들어섰다. 이 글은 수원학이 현 시점에서 어떤 좌표에 위치하는지 점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학의 심화,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 보는데 있다. 수원학이 한 때의 유행을 죽이는 '향토자랑'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와 세계화 시대의 문화다양성을 발견해 내는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수원학의 개념과 위상,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역학으로서 수원학은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문화적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가진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두 측면이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때, 다시 말해 연구의 심화 발전이 교육과 활용으로 이어지고, 활발한 교육과 활용이 다시 연구를 자극하는 구조를 이룰 때, 수원학은 학문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수원학이 갖는 이 같은 실용적 실천적인 면을 최대한 감안하여 두 측면 모두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지역학의 현황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993년 서울학을 표방한 이래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지역학의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원주시가 1998년 원주학을 내세운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학을 도입하는 곳이 앞다투어 늘어나는 중이다. 수원학의 좌표도 이런 흐름을 살펴야 파악 가능할 것이므로, 이들 지역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개괄적인 역사, 자체 개념규정과 목적, 교육과 홍보 등 활용 방식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 수원학의 태동 과정과 현황을 정리하여 수원학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수원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려면 어떤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한지, 교육과 문화적 활용의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인지, 수원학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노력이 절실한지 차례로 제시

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품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현대 대도시로 발돋움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원학은 현 수준의 학제 간 연구를 뛰어 넘는 종합적인 학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문화의 풍부화, 글로컬 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의 문화다양성을 선도하는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지향점에서 보면 이 글은 단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하나하나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지면의 제약과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언급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과제들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내 지역학 현황

### 1) 지역학 약사

오늘날 지역학들의 뿌리는 향토사연구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역학 대두의 전사로서 향토사 연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별 향토사 연구는 연원이 깊으나 향토사가 전국 단위로 제도화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85년에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87년에 제1회 향토사연구 전국대회가 열렸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향토사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향토사 연구에 참여하는 역사학자 등이 늘어났고, 향토사 대신 지방사라는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8년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회의 창립 학술대회 주제가 '지방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면, 같은 해 한국사연구회·경기사학회 주체의 심포지엄 제목이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물론 향토사에서 지방사로 일직선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토사와 지방사의 개념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향토사와 지방사의 연구자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포대 고석규 교수가 지적한대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향토사와 지방사의 연구 수준이 크게 달라졌고,

연구자의 수준도 높아졌다.<sup>1)</sup>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역 단위의 지역학이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가 설립된 연도가 1993년이다. 이보다 앞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1973년에 발족하였으나, '지역명+학'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명명한 것은 서울학이 최초라 하겠다. 이어 1995년 제주의 '제주도연구회'가 '제주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듬해에는 부산대학교 한 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부산학연구문현목록집』을 간행하면서 부산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강원학은 1998년 지방선거 도지사 공약으로 강원학 체계화가 제시되어, 2002년 강원발전연구원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인천학 역시 시장 후보가 인천학을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인천학연구원이 세워졌다. 충청학은 2000년부터 한남대 충청학연구센터에서 『충청학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대구경북학은 2005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1세기 대구 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열었고, 경남학도 같은 해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가 '남해안시대, 경남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sup>2)</sup> 경기학은 2009년 경기문화재단 내에 경기학 연구실이 생기면서 경기학이라는 명칭이 공식으로 제도에 도입되었다.<sup>3)</sup>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명+학'을 내건 최초 사례는 1998년 원주학에서 찾을 수 있다.<sup>4)</sup> 같은 해 연세대 원주캠퍼스 매지학술연구소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원주학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후 2005년 전주역사박물관이 '제1회 전주학학술대회'를 주최하여 전주학을 내세웠다. 2009년에는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천안학이 등장함으로써 지역학 대학 강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학 강좌는 천안발전연구원 천안학연구소가 대학 강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학기에 천안 소재 3개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천안학이 개설되었다. 그 해 2학기에 천안학 강좌는 6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이후 변동을 거쳐 2011년부터 7개 대학에서 강좌가 매년 개설되고 있다.<sup>5)</sup>

1)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동향과 지역학의 지향」, 『지역학과 수원학—제1회 수원학 심포지엄』, 수원시정연구원, 2014, 14쪽.

2) 이들 지역학 관련 연도는 고석규 앞의 논문 참조.

3) 경기학연구실은 경기학연구팀이 되었다가 2015년 경기학연구센터가 되었다.

4) 심재권·김선명, 『삶이 평안한 천안학』, 살림터, 2014, 40쪽.

2010년에는 용인학과 아산학 강좌가 지역 내 대학에 개설되었고,<sup>6)</sup> 2011년에는 수원학 강좌, 2012년 홍성학, 2013년 화성학과 안성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지금까지 거론된 곳 이외의 지역학으로, 안동학, 안산학, 성남학, 안양학, 평택학 등이 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 지역학의 개념 규정

지역학의 사전 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를 통칭하여 지역학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 이전 향토사 중심의 지역연구가 1990년대 들어 지방사 연구, 지역문화 연구 등으로 확대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부활을 전후하여 행정단위 지역명에 '학'을 붙이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치 행정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문화 내지 지역 자체에 대한 연구를 자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학문분야에서도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를 맞아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자치의 정신은 각 지역 단위에 정체성 확립,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요청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과 관광 등 자치 단위의 발전이 지역의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지역을 새롭게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

5) 심재권·김선명, 앞의 책 59-60쪽.

6) 용인학에 대해서는 임영상 교수(한국외국어대)가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임영상, 「경기학과 대학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경기학,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경기학회(京畿學會) 창립기념학술대회 자료집』, 경기학회·경기학연구센터, 2015.

7) 국내에서 지역학이란 용어는 관용적으로 중동, 아프리리카, 동아시아, 남아메리카, 동유럽 등 대륙 내지 아대륙적 단위를 지칭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작은 단위로 나누더라도 최소한 국가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기학, 강원학, 서울학, 수원학, 천안학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지역학이 틀림없지만, 관용적 용법과는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수원학 용인학 화성학 천안학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연구를 지역학이라 지칭하는 게 온당하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학이 현재도 엄밀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진흥원, 2014, 151쪽.

하게 대두하였다. 각 지역학은 바로 이런 흐름이 낳은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다.<sup>8)</sup> 국내 지역학들의 자기규정을 검토해 보면 그 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는 서울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서울학의 연구 대상은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학은 서울의 장소·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며 서울이 지닌 도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학은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합니다. 서울에 대한 여러 기성 학문 분야(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전축 및 도시계획학 등)의 연구 관심과 성과가 상호 조명되고 교차되는 데에 서울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울학의 학문적 관심은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 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지만, 그 실천적 관심은 현재의 서울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데 있습니다.”<sup>9)</sup> 강원학의 자기규정은 다음과 같다. “강원학은 강원도와 강원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강원도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고유한 적충된 삶과 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강원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민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지역관을 바로세우며 새로운 발전의 정신적 틀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신학.”<sup>10)</sup>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산학의 경우 “안산에 관한 학제적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안산학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 교육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sup>11)</sup>

정정숙은 국내 각 지역학의 자기규정을 검토하여 지역학의 학문적 속성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장소성. 지역학은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한다. 둘째, 특수성. 특정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 일상적 삶의 과거 현재적 해석과 미래 방향 도출. 셋째, 관계성. 해장 지역의 과거,

8) 고석규, 앞의 글, 2014, 16-17쪽

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eoulstudies.uos.ac.kr>) 참조. 검색일 2015년 8월 31일.

10) 이규태, 「한국의 ‘지방학’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학연구』 No. 28, 2007 ; 정정숙, 앞의 책 14쪽에 서 재인용.

11) 디지털안산문화대전(<http://ansan.grandculture.net/?local=ansan>) ‘안산학연구원’ 항목.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지향할 때,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지역주민 간 혹은 주변지역 혹은 중앙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됨. 넷째, 정체성. 연구의 결과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으로서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함. 다섯째, 다양성,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그것들의 총체인 국가 지구촌의 문화 다양성을 풍부하게 함.” 정정숙은 이러한 속성 간의 관계는 장소성에서 시작하여 특수성, 관계성의 과정을 거쳐 정체성 다양성의 결과로 이어지며, 이 결과는 다시 장소성으로 피드백 되는 순환관계로 설명한다.<sup>12)</sup>

정정숙은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문.”<sup>13)</sup> 위에서 살펴본 각 지역학의 자기규정이나 정정숙이 정리한 지역학의 속성 및 개념 규정은 지역학의 연구 관점과 방법론까지 함축하고 있다. 요약컨대, 지역학은 다양한 학문의 학제 간 연구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용적 학문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3. 지역학 연구 및 교육 현황

#### 1) 연구기관

광역자치단체는 몇몇 곳을 제외하고 대체로 해당지역 지역학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충청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등 자치단체 산하 기구 소속이 대부분이다. 물론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등 대학 소속 연구기관도 더러 눈에 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 연구기관은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곳 정도로 파악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중심이 된 안동학, 전주역사박물관의 전주학,

12) 정정숙, 앞의 책, 19쪽.

13) 정정숙, 앞의 책, 19쪽.

안산학연구원의 안산학,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의 수원학이다. 이 가운데 안산학연구원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조직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아직까지 지역학 연구는 독립 연구기관의 설립보다는 지방문화원 산하의 향토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속한 문화원 가운데 부설기관으로 향토연구소가 설치된 곳이 광역 13곳, 기초(제주 포함) 70곳이다.<sup>14)</sup>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연구 활동의 구심은 여전히 문화원이며, 자치단체 소속이든 민간 차원이든 별도의 연구기관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학회의 경우도 광역 지역학의 경우 10여 곳의 학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기초 지역학은 아직 학회가 발족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 2) 교육

지역학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지역에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능의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학이 연구보다는 교육 영역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크게 나누어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방식과 시민대학 방식으로 나뉜다. 대학 교양과목 개설은 2009년 천안학이 처음 시작한 이래 여러 지역의 대학들이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교양과목으로 지역학을 개설했다. 시민대학 방식은 민간 연구소인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이 진행하는 안산학시민대학을 들 수 있다.<sup>15)</sup>

천안 지역 7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천안학 강좌의 경우 16주에 걸쳐 11개 주제를 다룬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학과 천안학의 의미에서부터 천안의 역사, 지명유래, 역사적 인물과 사건, 자연환경 및 특산품, 문화재, 전설과 설화, 지역경제와 교통, 교육, 지방자치 발전, 생활 등 천안에서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강의는 매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14) 정정숙, 앞의 책, 45쪽. 지역학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경우는 제외했다.

15) 각 지역문화원에서 시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학에 해당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사례는 많다. 이들 대부분은 향토사/지역사, 향토문화/지역문화를 강의하는 강좌를 운영한다.

교수, 지역 전문가, 기업 CEO, 역사학자, 지역 정치인 및 행정가, 지역 출신 유명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표-1〉 2013년 천안학 강좌 주제계획서 일례<sup>16)</sup>

주제	주제	주제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 방식, 평가 방법 등 과목 소개	자율
2	지역학으로서의 천안학	지역학의 정의와 방법론 천안학의 의의 및 가치	공통
3	천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망	천안의 주요 역사적 사건 천안의 현재적 삶과 미래	공통
4	유관순과 천안의 독립운동	천안 지역의 독립운동사 유관순의 삶과 꿈	공통
5	오룡쟁주, 천안의 풍수지리와 인물	천안의 지리적 특성 천안의 역사적 인물	자율
6	현장답사	천안지역 현장답사(유관순열사기념관 등) 천안지역 특산품 체험해 보기	공통
7	천안 삼거리 민요(흥타령) 배우기	천안 삼거리 민요의 장르와 의미 천안 삼거리 민요 배우기	공통
8	외국인으로서 천안에서의 나의 삶과 인생	국제화와 지역화 외국인으로서 천안에서의 삶	자율
9	천안 지역 IT 산업과 천안 발전	국가 경제 속에서 IT 산업의 비중 천안 IT 산업의 비중과 위치, 전망	공통
10	천안의 향토 식품 순대의 명품화 전략	지역 특산품의 지역경제 내 가치 천안 특산품의 명품화 전략	공통
11	천안의 기업,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국가 및 충남 속에서의 천안 경제 천안의 기업 현황과 지역경제 활동	공통
12	천안 문화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 콘텐츠	천안 문화의 대중화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공통
13	천안의 전설과 설화	구비문학과 한국인의 삶 천안 지역에 얹힌 전설과 설화	공통
14	천안 지역 연예인 특강	천안 출신의 연예인 특강	공통
15	천안 UCC 동영상 만들기 및 평가	동영상 제작 및 기법 지역의 동영상 제작해 보기	자율
시험	평가		자율

16) 심재권·김선명, 앞의 책, 62쪽.

천안학 이외에도 강릉원주대, 창원대, 제주대 등에서 대학 교양과목으로 지역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강원지방의 역사와 민속」, 「영동지역의 이해」 등 융합교양영역으로 지역학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창원대는 「통합창원시의 도시인문학의 이해」라는 과목명으로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통합창원시의 역사와 문화, 인간과 사회, 공간과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통합창원시의 변화를 주도,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대의 경우 「제주해양산업의 이해」와 「제주 4·3의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sup>17)</sup>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학 연구원의 ‘안산학시민대학’은 지역학 교육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안산은 선주민(先住民) 비율이 5% 미만으로, 반월 시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히 성장한 공업도시다. 유입된 인구 대다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대학이 만들어졌다. 1기수 당 수강생은 35~40명이고, 2014년 현재 누적 수료자가 700명에 이른다. 수강생들은 입학금으로 70만원을 납부한다. 이 가운데 60만원이 강사료, 교재비, 공간대여료 등 운영비로 사용되며, 10만원이 동문회 활동비로 쓰인다. 2014년 상반기에 진행된 20기 안산학시민대학의 커리큘럼은 다음 표와 같다.

17) 최지연, 「지역학과 대학교육」, 『경기학과 대학교육—경기학회(京畿學會) 제1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경기학회, 2015, 20쪽. 이를 3개 대학 이외에도 경북대(영남학과 지방학, 대구지리기행), 부산대(부산학-삶터로서의 부산읽기, 구술사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부산 역사 새로 쓰기), 전북대(호남문화과 문화콘텐츠), 전남대(호남의 역사와 문화) 등에서 지역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표-2〉 안산학시민대학 20기 커리큘럼<sup>18)</sup>

회차	강의내용	강사진
1강	개강식 및 개강강의 -왜 결국 안산학인가?	사회: 스피치사관학교 서장훈 원장 전)안산도시공사 사장 김현준 사장
2강	안산의 역사 수강생 상호간의 교류시간 회장 선출	안산 역사문화연구소 정진각 소장 안산학시민대학 김민정 부학장 20기 원우 주관
3강	탐방-안산의 역사, 문화 유적	안산시 관광해설사 안경순
4강	안산의 자연환경 19기 선배기수 환영식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 제종길 박사 19기 선배기수
5강	안산의 산업과 경제	상공회의소 김철연 박사
6강	안산의 다문화교육과 사회통합	경기대학교 남부현 교수
7강	안산의 정신 – '실학'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8강	최용신과 안산	서강대학교 윤정란 박사
9강	안산의 도시 이미지	안산대학교 고윤배 박사
10강	안산과 단원 김홍도	경주대학교 정병모 박사
11강	안산의 시장	안산시 김철민 시장
12강	수료식	안산학 시민대학 김영일 학장

### 3. 수원학의 현황

#### 1) 태동과 성립

수원학은 2005년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가 창립되면서 처음 등장했다.<sup>19)</sup> 수원학 연구소의 창립목적은 “수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수원 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 되어 있다. 수원학연구소는 2014년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가 개소하면서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토사에서

18) 정정숙, 앞의 책, 79-80쪽.

19) 고석규, 앞의 글, 2014, 9쪽. 고석규는 수원학연구소의 창립 시기를 2004년으로 밝히고 있으나 수원문화원 홈페이지(<http://www.suwonsarang.com/>, 검색일 2015년8월18일) 연혁에는 2005년으로 되어 있다. 연혁에 따르면 수원학연구소의 전신은 2004년 창립된 수원문화연구소이고, 수원문화연구소는 1995년 창립한 수원문화사연구회다.

지방사로, 지방사에서 지역학으로 변화하는 전국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원주(1998)이나, 수원학의 등장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선두그룹에 속한다. 수원학이 이처럼 일찍 태동하게 된 것은 수원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수원은 주지하다시피 정조(正祖) 시대에 축성된 화성과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자부심이 이어져왔다. 특히 1980년대부터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화성과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활기차게 펼쳐졌고,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 선거에서 당선된 수원문화원장 출신 심재덕(沈載德) 시장이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력히 추진하여 1997년 실현시켰다. 이후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확립할 확실한 중심을 갖게 되었고, 역사 연구나 향토사 연구에서 상당한 역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수원학이 일찍 대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sup>20)</sup>

수원학은 2010년 민선 5기로 염태영(廉泰英) 시장이 당선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염 시장은 '인문학도시 만들기'를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으로써, 기존의 지역 역사와 문화의 성과를 다양한 시민 강좌를 통해 더 확산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기존의 강좌 운영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중심의 연구 및 교육을 총체적 학제 간 연구로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특히 2011년부터 지역 내 5개 대학<sup>21)</sup>과 협약을 체결하고 1년에 한 학기 교양 과목으로 수원학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교육과 연계한 수원학의 저변확대를 꾀했다. 2014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센터를 출범시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문화원 수원학연구소는 2014년 수원향토문화연구소로 개칭하여 기존의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수원학 발전에 기여할 방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기관으로는 경기대학교가 화성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폐지했다.<sup>22)</sup>

20) 수원학연구소 창립을 전후하여 지방사와 지역문화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다. 역사학자 조병로 교수(경기대)는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수원학연구센터 설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방사 차원에서 이뤄진 연구 성과를 정리 발표한바 있다. 조병로, 「전근대 수원의 지정학적 위상과 수원학 연구 동향」, 『지역학과 수원학—제1회 수원학 심포지엄』, 2014.

21) 2011년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아주대, 한신대, 협성대이다. 이후 성균관대가 수원학을 개설하여 6개 대학이 되었다. 이들 6개 대학은 2015년 3년 협약을 갱신하여 수원학 강좌를 열고 있다.

22) 조병로, 앞의 글, 97쪽.

## 2) 교육 실태

지역 대학에 개설된 수원학 강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수원학의 사업목적은 '수원지역내 인문, 지리, 역사, 환경, 교육, 산업 등의 제반사실을 수원지역 관내외 대학에서 커리큘럼화하여 수원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목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깔고 있다. 즉, 학문적 차원에서 수원을 연구하여, 수원과 관련된 제반 사실을 커리큘럼화한 교육을 통해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수원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긍심을 배양하여 수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학문적 차원의 수원 연구로 수렴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수원학 강의의 주제는 이에 따라 〈표-3〉와 같이 정해졌다. 현장답사는 화성 등 성곽유적, 용주사 등 불교유적, 제암리기념관 등 3.1운동 유적, 수원박물관 등 기타유적 가운데서 대학별로 1~2회 답사를 실시토록 했다. 각 대학의 강좌명은 대학자율로 정해졌고, 주차별 강의 계획도 〈표-3〉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4〉는 2014년 진행된 6개 대학의 강좌 운영 현황이다.

〈표-3〉 수원학 강의 주제와 내용

강의 주제	강의 내용
지역학과 수원학	수원학의 의의, 가치 및 기대효과
수원의 역사와 유래	수원의 역사, 명칭, 마을 유래 및 인문자리적 환경
수원의 자연환경과 생태	수원의 산과 하천, 생태계에 대한 보전 및 복원
화성과 실학	화성의 축조과정의 의미, 실학사상의 인본주의
수원의 민속과 생활	수원의 신화, 전설 그리고 민속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고찰
수원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	지역경제와 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향후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원의 교육, 문화, 예술	수원의 과거, 현재 교육의 변천 및 문화, 예술의 발전
수원의 인물과 사건	수원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한 자긍심 고취
수원의 지방자치 발전	지방자치 역사, 행정제도 소개 및 주민참여제도 등
수원의 현재와 미래	수원의 현재 모습과 미래발전상

〈표-4〉 각 대학의 수원학 강의운영 현황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주대	한신대	협성대
과목명	수원학	수원화성과 도시인문학	실학과 수원화성의 과학성이해	수원의 이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	수원지역학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학</li> <li>-고고유적</li> <li>유물의 성격</li> <li>-현릉원, 화성 축성과 교통통신</li> <li>-실학사상과 정약용</li> <li>-영조시대 예술경향과 문인회</li> <li>-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li> <li>-정조시대 국방 정책과 무에서</li> <li>-일본, 중국의 성곽 문화 비교</li> <li>-근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리와 생태</li> <li>-정조와 수원신도시 건설</li> <li>-다산의 실학정신과 화성</li> <li>-근대사</li> <li>-인문도시 비전</li> <li>-마을만들기 성과</li> <li>-전통무예</li> <li>-문학</li> <li>-시민운동</li> <li>-수원천의 역사 문화</li> <li>-미래도시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의 과학 발전</li> <li>-한국의 전통 사상</li> <li>-실학의 특징</li> <li>-영조 시기의 한반도</li> <li>-유립의 도시와 성의 구조</li> <li>-현재 수원 도시구성</li> <li>-화성의 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학</li> <li>-수원의 역사 (고대~근대)</li> <li>-인문지리(도시사, 금석학, 지명의 유래)</li> <li>-현재와 미래 (다문화/이주 문학, 문화도시로서의 수원)</li> <li>-콘텐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지리적 환경</li> <li>-한성백제기</li> <li>-고려시대</li> <li>-정조와 수원 문화관광자원 으로서의 회</li> <li>-현재와 미래 (다문화/ 이주 문화, 문화도시로서의 수원)</li> <li>-콘텐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학</li> <li>-정조시대 개혁정치</li> <li>-역사지리</li> <li>-화성과 행궁의 건축학</li> <li>-명가</li> <li>-음식문화</li> <li>-정치</li> <li>-경제</li> </ul>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각 대학의 강좌명과 강의 내용은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역사학과가 있는 학교이거나 역사 전공 교수가 책임교수를 맡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역사의 비중이 높다. 또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처럼 자연과학대가 중심인 곳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으로 하되 축성 기술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6개 대학 모두 강의를 총괄하는 책임교수를 두고, 강의는 다양한 외부 강사진을 초빙하여 진행한다. 특히 10월 중하순에 수원시장 혹은 부시장이 직접 나서는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자치행정의 비전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학 강좌는 이제 4년차에 접어든다. 앞 장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 대학교육과 비교해 볼 때 커리큘럼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원학 과목에 대한 현재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평가자에 따라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냉정하고 박하게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수원학 강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엔 사업진행 경과가 짧다고 본다. 교육효과를 논하려면 최소한 10~20년 후에나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2014년 2학기 강의 종료 후 수원학연구센터가 각 대학 수강생들을 상대로 공통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강생들의 강의만족도는 85~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수강 후 수원에 대한 애정이 향상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학교에서 90% 이상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수원학 과목 수강생 가운데 수원 출신의 비율이 최저 3.4%, 최고 23.9%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수원학 강의를 듣고 수원을 더 잘 알게 되고, 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관심과 애정이 수원학의 질적 발전과 매개 없이 연결될 수는 없겠으나, 향후 수원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sup>23)</sup>

## 4. 수원학 발전을 위한 제언

### 1) 연구 수준의 심화

수원학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 연구라는 인식을 넘어 오늘날 수원이라는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구수준을 질적으로 심화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수원의 정체성을 역사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모색하는 일이 요청된다.

시간 축으로 볼 때 정조 시대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더 심화되고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sup>24)</sup> 또한 이를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수원은 인구 120만이 넘는 현대도시로 성장했다. 이렇듯 수원시가 18세기의 계획도시에서 근대도시로 발돋움한 과정, 더 나아가 현대도시의 비약하는 발전한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해야 수원의 면모를

23) 최지연 수원학연구센터장은 경기학회 제1회 월례발표회 자리에서 '현행처럼 수원시가 각 대학에 교육 지원을 하지 않아도 대학들이 수원학 강좌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자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제기라 판단된다. 수원학 과목의 미래와 관련하여 지역 대학들의 소극적 태도가 적극적 자세로 전환되되는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최지연, 앞의 글, 22쪽.

24) 조병로, 앞의 글, 참조.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도시로서 수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이뤄져야 하며 수원시가 인구 120만 도시로 급격히 발전하는 변곡점인 1980년대 중후반의 과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시기를 전후로 수원시는 대도시적 면모를 갖추었고, 수원의 삶과 정체성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종합적 도시사(都市史)의 관점과 연구방법론으로 두 시기를 면밀히 연구하여야 수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비전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 폭을 대폭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시사, 도시연구, 도시계획학과 지방사, 지방문화 연구를 접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매우 다양한 충위를 갖고 있고, 단일한 관점으로 풀어내기 어렵다.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꿈 또한 단일한 관점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과거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정체성만으로는 도시의 비전을 세울 수 없다. 수원학이 오늘날 수원, 나아가 미래의 수원의 정체성까지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되려면 현대 도시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대폭 받아들여 수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고유성과 가치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5)</sup> 또한 수원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키기 위해서는 지리학, 생태학, 사회학 등 수원이라는 공간의 탐구에 필요한 다양한 분과 학문의 성과를 적극 수용하고, 그 방법론을 지역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행정구역으로서의 수원을 넘어서 수원문화권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역사적으로 수원 화성 오산은 같은 문화권을 이뤄왔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같은 문화권이기에 동일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된 최근의 역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에 기대어 수원문화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수원문화가 어떻게 분기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문화권, 수원문화다움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관계라는

25) 도시사 연구자인 김태승 교수(아주대)는 수원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2015년 5월 수원학포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중국 상해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학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의 발표자료 참조.

측면에서는 중앙과 수원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요청된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해 왔는지 밝혀내는 작업은 꼭 필요하면서 다층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분야일 터이다. 이와 함께 비교사와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인접지역의 지역학과 수원학의 비교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2) 교육과 활용도 제고

현재 6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원학의 성과는 더욱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원학 대학 강좌 진행이 불과 4년에 불과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엔 경험이 짧지만 강의자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수원학 강좌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장이 누구나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관에서 벗어나 교육의 성과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나아가 계속성 보장 못지않게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우선 대학 교양 강좌와 일반 시민 수원학 강좌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원문화원, 지역 내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정조 시대와 화성 중심의 인문학 강좌와 수원문화 관련 일부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지향하는 수원학 강좌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성과 수원문화 강좌는 오늘날 수원의 뿌리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나 수원의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확산해 나가려면 지역 근현대사, 교통과 마을 만들기 등 도시학, 생태와 환경, 산업과 경제, 문화예술 등 수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青森)현의 아오모리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인구 130만 규모인 아오모리현은 1997년부터 평생학습 차원에서 현민(縣民)칼리지를 시작했다. 아오모리학은 아오모리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교통, 문화, 역사, 전통, 예능, 민속, 기상, 동물, 식물 등 지역 내 사람과 사상(事象)을 아우른다. 기존의 학문성과를 토대로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종

26)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시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강좌를 지속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현민칼리지를 통해서는 현민들에게 아오모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제공을 넘어 주변에서 접하는 사물을 통해 스스로 창조적으로 지적 발전을 하는 즐거움을 갖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 현민칼리지의 학장은 아오모리 지사가 맡고, 현 교육위원회와 현 종합사회교육센터가 본부의 역할을 한다. 본부에서는 학습정보 학습상담 수강증명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며, 실제 강의와 강연회는 연계기관들이 담당한다. 연계기관은 현내 대학 현립학교 민간교육사업자 NPO법인 각종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이룬다. 현민이 어느 기관에서도 수강을 할 수 있다. 시작 초기 70명으로 시작한 현민칼리지는 2014년 4월말 현재 학생 1만7천여 명에 연계기관 603곳(체험시설 143곳 별도)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sup>27)</sup>

수원학도 아오모리학처럼 문화원, 지역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NGO, 마을만들기 사업 주체, 각종 민간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역학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역학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기도 하다. 또한 교육체계의 형성은 연구를 더욱 자극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 연구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 지역학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 3) 제도적 기반의 공고화

수원학 연구와 교육 사업은 아직 모색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토사 등 지역의 역사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지역학의 관점이 충분히 정립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수원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현재 수원학 연구의 제도적 구심점은 수원시정 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수원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이다. 연원으로 따지면 향토문화연구소의 역사가 10년가량 앞서지만, 현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수원학 연구센터를 중심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직선으로 선출되는 시장이 바뀜에 따라 수원학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도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27) 정정숙, 앞의 책, 88-93쪽.

관광과 지역경제의 관점에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확립해 나간다는 지역학적 관점은 입지가 매우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학의 특성 상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수준이 심화되며, 학제적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대폭 확대된 지원이 필요한 판에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는 한국 자치의 부정적 관행이 발동한다면 수원학의 발전은 지체되거나 후퇴할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하려면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 역진(逆進)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원학의 진흥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2013년 3월 제정함으로써 제주학연구센터가 안정적인 지역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에 앞서 2012~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 5년간 총 40억 원을 지원토록 보장하였다. 이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로 이를 보장한다면, 어떤 자치단체장이 당선되든지 지역학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조례에는 기 설립된 수원학연구센터의 활성화, 수원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지원 확대, 대학을 비롯한 자생적 수원학 연구 교육 강화, 민관 네트워크의 구성 등을 규정하여, 수원학의 종합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처럼 기본계획까지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지원의지를 확실히 천명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

물론 지역학으로서 수원학의 발전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 연구 풍토가 조성되고, 이를 활용한 교육과 문화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학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이벤트성 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연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두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지역학의 역사가 일천하여 지역민들조차 지역학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하지 못 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수준의 연구와 활용도 금세 시들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원학이 학문 용어로 치장한 향토 사랑이나 시민인문학 붐에 편승한 색다른 시도 수준을 넘어, 수원의 미래를 조감하고, 오늘의 문제들을 해법을 모색하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식을 발견하고 익혀나가도록 돋는 명실상부한 학문이 되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그래서 필요하다.

## 5. 맺음말

수원은 향토사와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의 연원이 깊고, 국내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훼손된 화성과 화성행궁의 복원을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1997년에는 자체 노력으로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나아가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도시로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들어 민선 5기부터는 아예 시정의 목표로 '인문학 도시'를 내걸 정도로 지역의 정체성을 인문학 전통 속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학은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지역학을 내세워 이제 지역의 정체성 찾기를 시도하는 곳들과는 달리 수원학에는 이미 콘텐츠가 풍부하다. 이를 더욱 풍부하게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지역학으로서도 앞서가는 모범이 될 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 크다.

하지만 앞에서 점검해 보았듯이, 수원학의 토대는 아직 허약하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지역 내 대학에 수원학 관련 강좌를 4년째 개설할 정도로 일찌감치 대학 교육을 지원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더욱 많은 시민들이 수원학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험하여 지지를 보낼 만큼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학연구센터가 2014년 설치되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독립적인 연구센터를 갖추었고, 수원문화원의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는 수십 년의 향토사 향토문화 연구 전통을 계승하여 나름대로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센터와 연구소가 수원학 연구의 확고한 구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더 과감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순수 연구의 측면에서도 아직은 학제간 종합 연구로 발돋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학 연구자들의 결합인 학회도 결성되지 않았고, 지역 관련 논문을 발표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론 성취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서론에서 이 글은 수원학이 현 시점에서 어떤 좌표에 위치하는지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학의 심화 확대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지역학의 간단한 역사와 자기 규정, 교육 측면을 중심으로 한 활용 실태를 살폈고, 이에 근거하여 수원학의 위상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학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원이라는 누적된 기억의 공간, 삶의 공간을 어떻게 조명하여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인가는 사실 일 개인의 제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이 적극적인 모색의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김백영, 「근대도시의 형성과 수원학」, 『지역학과 수원학—제1회 수원학 심포지엄』, 수원시정연구원, 2014.
- 김태승, 「“수원학”이란 무엇인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학포럼 자료』, 2015.
-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동향과 지역학의 지향」, 『지역학과 수원학—제1회 수원학 심포지엄』, 수원시정연구원, 2014.
- 심재관·김선명, 『삶이 평안한 천안학』, 살림터, 2015.
- 임영상, 「경기학과 대학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경기학,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경기학회(京畿學會)창립기념학술대회자료집』, 경기학회·경기학연구센터, 2015.
- 조병로, 「전근대 수원의 지정학적 위상과 수원학 연구 동향」, 『지역학과 수원학—제1회 수원학심포지엄』, 수원시정연구원, 2014.
-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진흥원, 2014.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 제주특별자치도, 2011.
- 최지연, 「지역학과 대학교육」, 『경기학과 대학교육—경기학회(京畿學會) 제1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경기학회, 2015.

디지털안산문화대전(<http://ansan.grandculture.ne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eoulstudies.uso.ac.kr>)

수원문화원 홈페이지([http://www.suwonsarang.com/mp01\\_default/](http://www.suwonsarang.com/mp01_default/))

여 백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옛 수원군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内外 학술 교류, 강좌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향토문화연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장
3. 향토문화연구위원장

###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문화원장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문화원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5. 연구위원은 연구위원장 및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회지,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5 장 재 정

**제22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4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되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여 백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1〉 제목, 목차, 필자 명

1. 게재 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맷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2〉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3〉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4〉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 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쪽, 1998.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3.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仍罷之"(원문 이용은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4〉 주의 사항 : 국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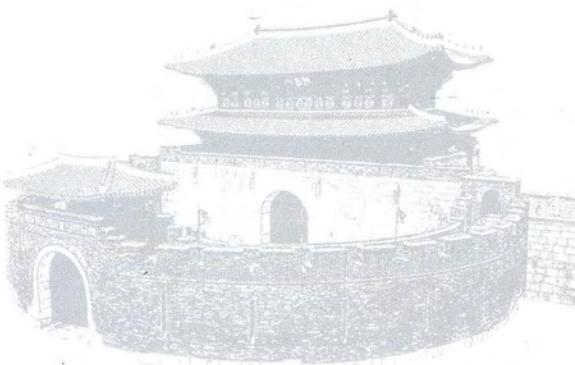
2.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초록 뒤에 첨부한다.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제2호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인 김영욱  
편 집 인 염상덕  
편 집 김혜나  
표 지 조형기  
발 행 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031-244-2161~3  
발행자번호 956256 ISSN 2465-9339  
제 작 한언기획

비매품

이 책은 수원시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2호

##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